

UNIVERSAL DESIGN GUIDELIN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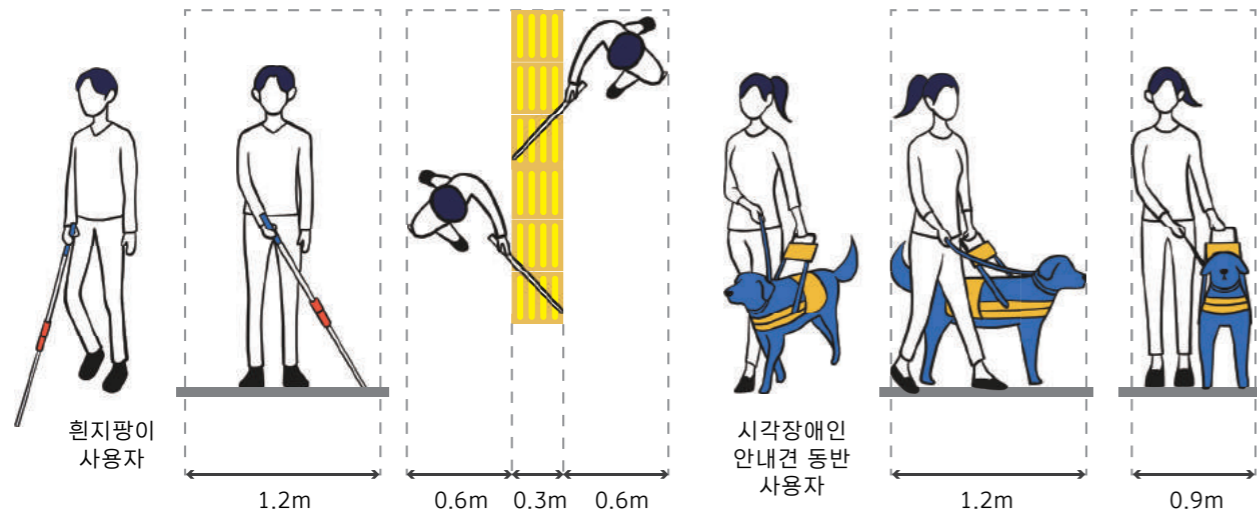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고
어디든 이어지는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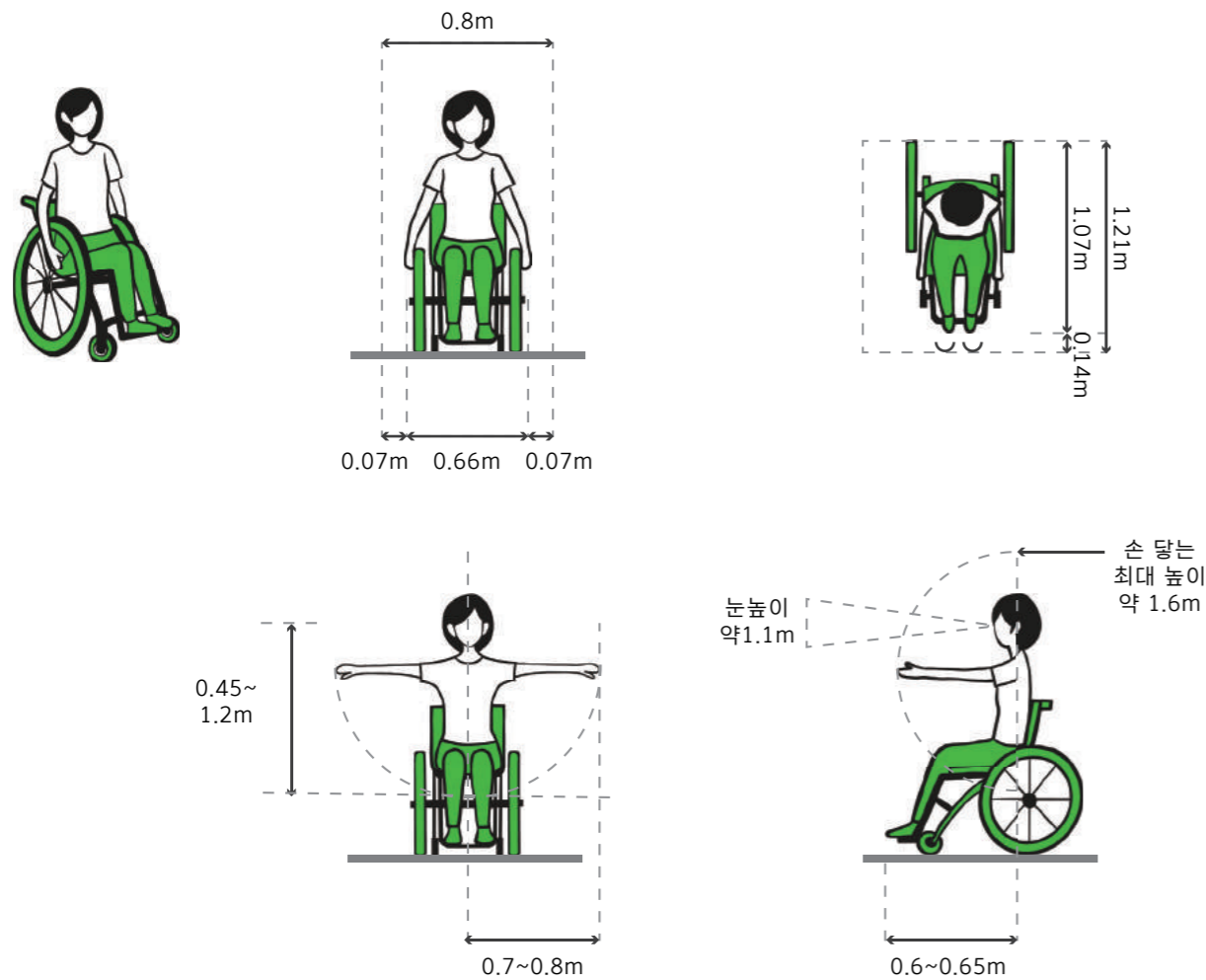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유형

1. 시각장애인
2. 휠체어 사용자
3. 청각장애인
4. 고령자
5. 아기띠 사용자 · 임산부
6. 유아차, 쌍둥이 유아차, 유아웨건 사용자
7. 저신장 장애인, 어린이
8. 외국인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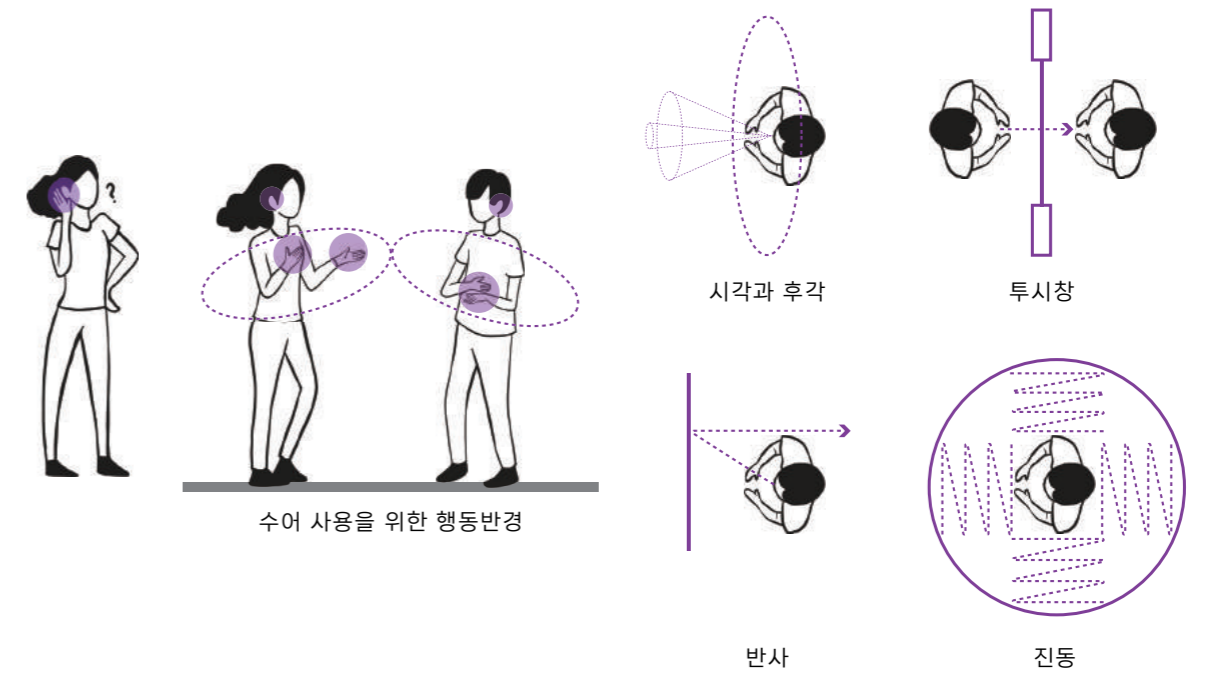
1.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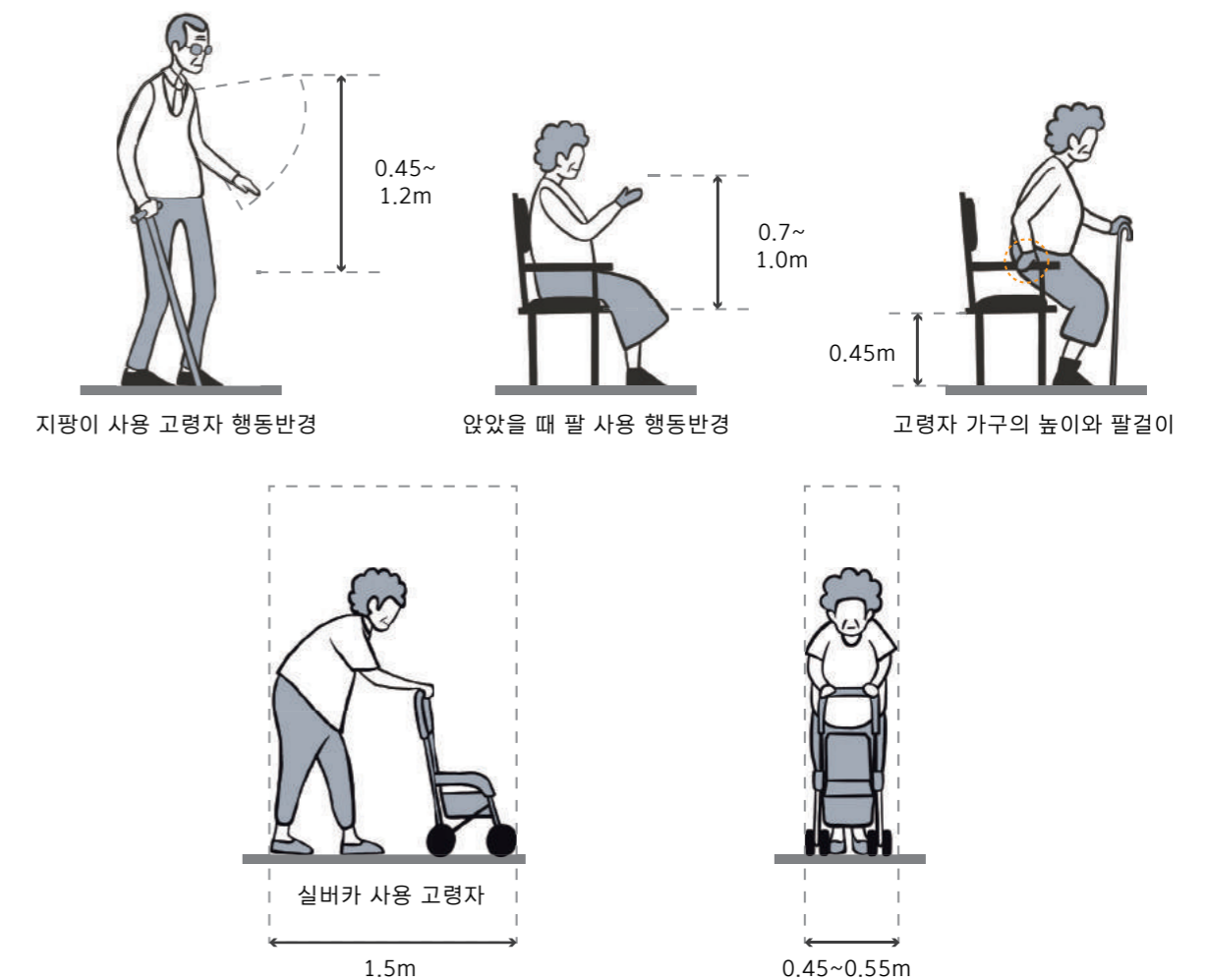
2. 휠체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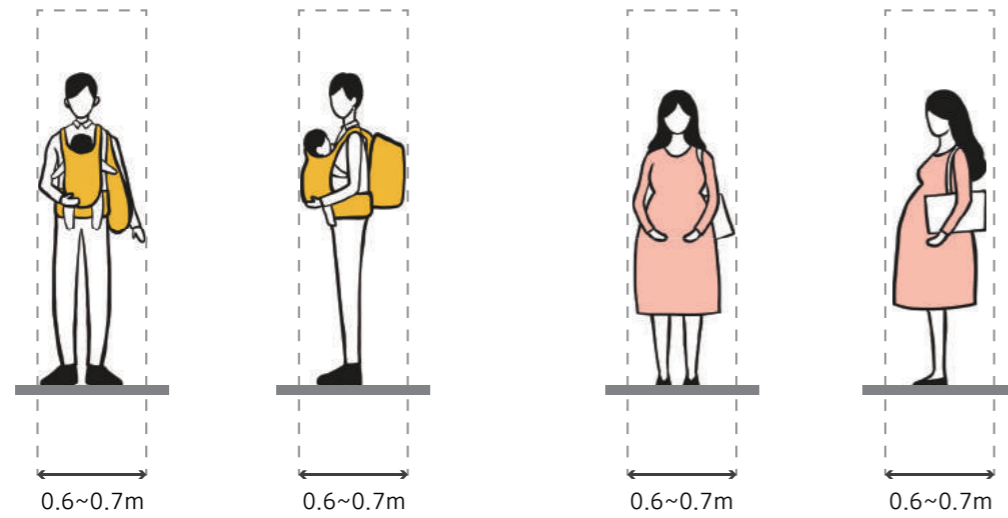
3. 청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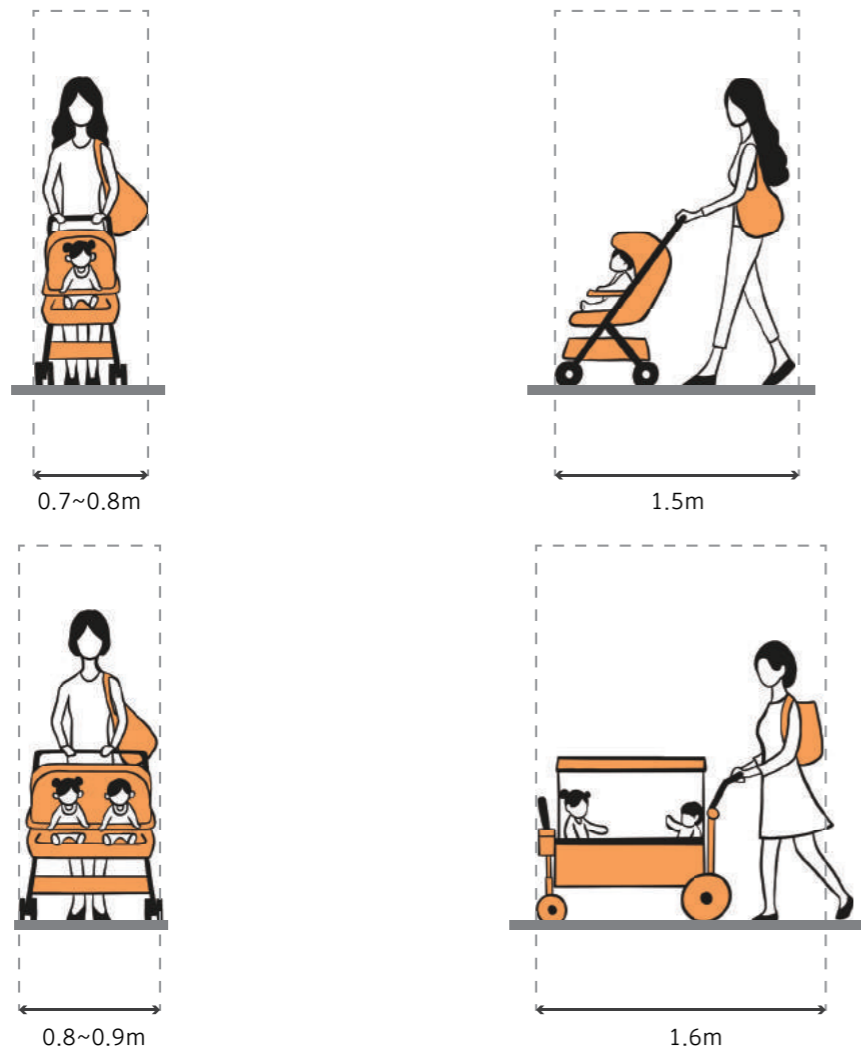
4.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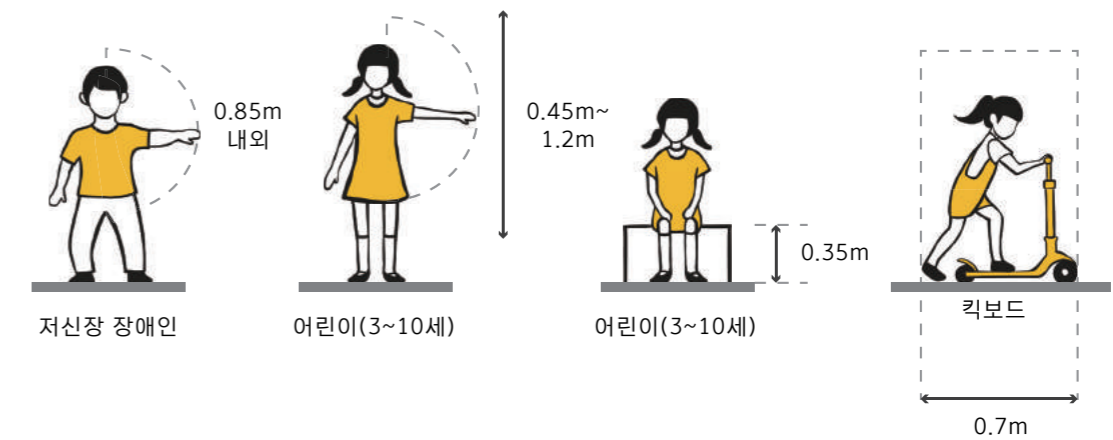
5. 아기띠 사용자 · 임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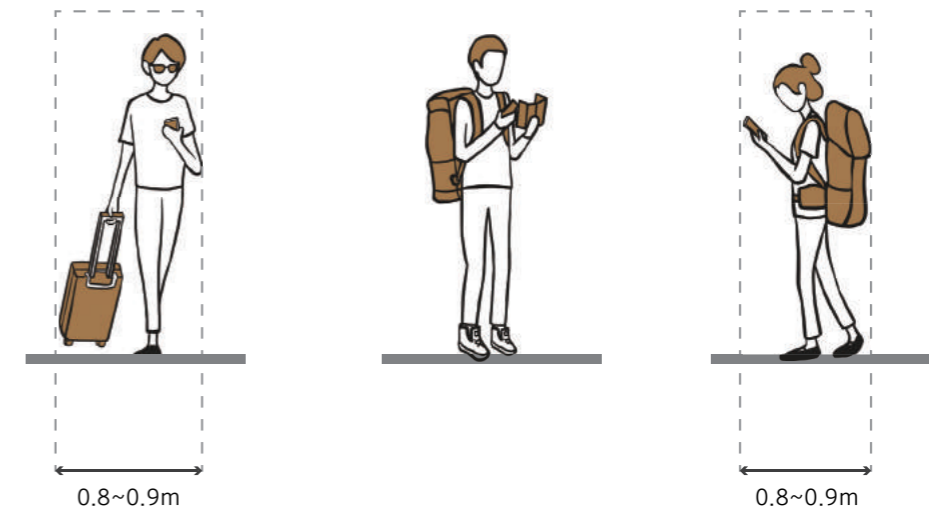
6. 유아차, 쌍둥이 유아차, 유아웨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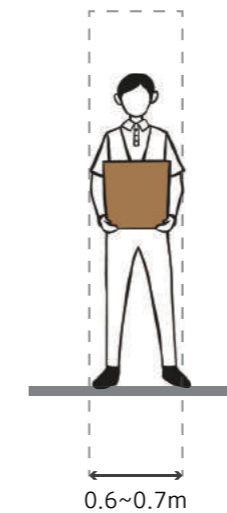
7. 저신장 장애인, 어린이



8. 외국인



9. 기타



가로공간 Sidewalk

1	보행 공간	012
2	차량 공간	024
3	가로시설	033
4	안내시설	039

공원공간 Park

1	접근 및 이동 공간	050
2	위생 및 편의시설	058
3	놀이터	066
4	안전시설	070

건축공간 Architectural Space

1	접근 공간	080
2	이동 공간	092
3	위생 및 편의 공간	110
4	안내시설	120

친수공간 Waterfront Space

1	관광시설	138
2	방파제	146
3	여객터미널	154

가로공간 Sidewalk

1	보행 공간	012
	1-1 보도	014
	1-2 횡단보도	019
	1-3 차량 진입 구역	022
2	차량공간	024
	2-1 속도 저감 시설	026
	2-2 자전거 도로	029
3	가로시설	033
	3-1 승하차 시설	034
	3-2 점자블록	037
4	안내시설	039
	4-1 위치 및 방향 안내	040

가로 1 보행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보행 공간은 보도, 횡단보도, 차량 진입 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보행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보행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 보도

1.1.1 기본지침

- 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는 휠체어나 유아차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단차가 없고 횡단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는 연속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도의 안전 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 장애물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노인, 어린이, 유아차, 여성, 장애인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 공간으로 조성한다.
-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 변화를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한다.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권장사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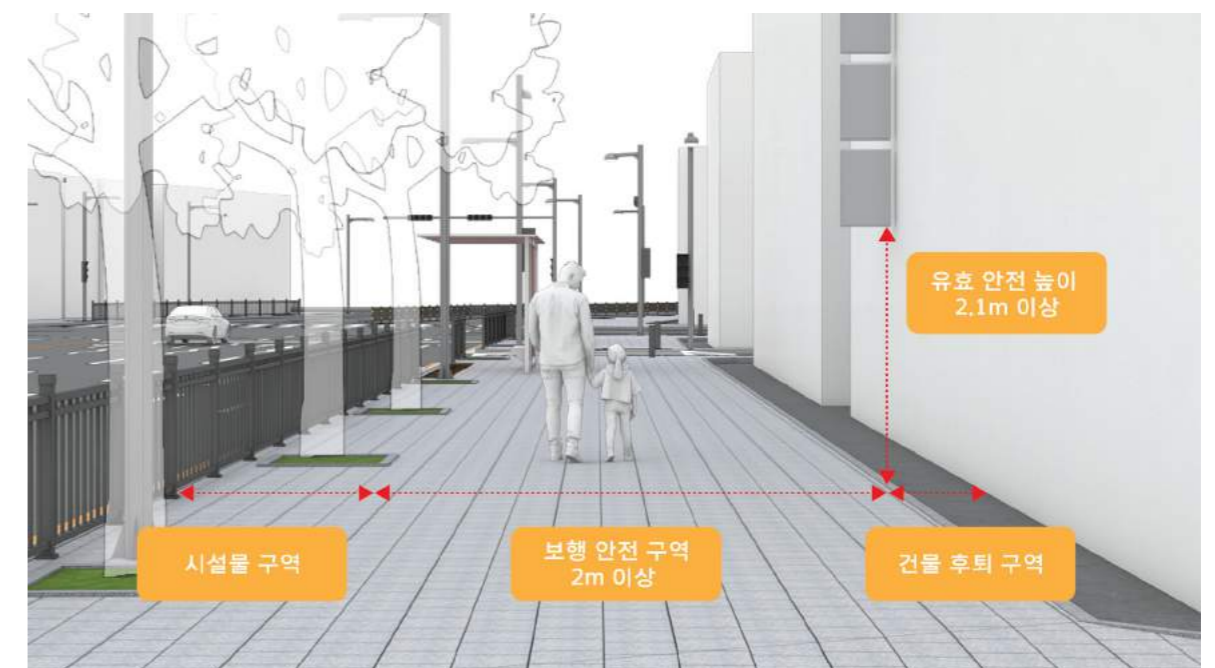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환경 조성

1.1.2 수평 유효폭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정기준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또는 유아차 사용자 상호간에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법적 치수 50m) 마다 폭 1.5m 이상, 길이 1.5m 이상(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된 교행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1.3 수직 유효폭

- 전방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보행할 때에도 안전에 위협이 없는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보행 구간에는 2.1m 이상의 유효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 유효높이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므로 법적 기준 2.1m보다 상향된 유효높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유효 안전 높이의 확보는 보행 안전 공간 및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구역)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1.1.4 기울기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한다.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 높이와 보행 안전 구역의 높이에서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영역에서 경사를 보완한다.
-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를(법적 치수 1/18) 권장하며, 지형상 또는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
- 진행 방향의 횡단기울기는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1/50 이하를 권장한다.
- 경사로 전체에 대한 구배 안내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 경사가 연속되는 지역의 평탄한 구간을 활용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하도록 권장한다.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



기울기 1/20 이하

진행 방향의 횡단기울기



기울기 1/50 이하

1.1.5 단차

- 블록 포장, 각종 덮개, 재료 분리 구간과 보행 안전 공간 바닥과의 경계 등은 무단차로 처리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모따기 처리를 한다.

1.1.6 바닥마감

-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유아차가 가급적 흔들리지 않으며, 이음새의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음새의 틈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습윤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가 용이한 투수 블록 등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보행 안전 구역과 그 외 구역(시설물 및 장애물 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 교행 구간 등)은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이 차이 나도록 계획한다.
-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경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마감재 색의 명도를 4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유도·안내 관련 배색을 할 경우에는 마감재 색의 명도를 3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조잡한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1.1.7 배수구 덮개, 맨홀 등

- 보도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 표면은 보도 등과 같은 높이로 하며,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1cm 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설치한다.
- 덮개의 표면은 보도 미끄러짐이 없는 마감 처리 및 재료를 사용하고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보도 포장재와의 이음새 간격을 최대한 좁혀 유아차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1.2 횡단보도

1.2.1 기본지침

- 횡단보도는 도로의 여건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차로 횡단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 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조성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 높이에 맞추어 계획한다.
-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를 지양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안전 통행을 위해 필요가 인정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거리를 짧게 하기 위하여 교차 횡단보도 혹은 보행광장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

권장사례



보행로와 단차가 없는 횡단보도



충분한 대기 공간의 교통섬식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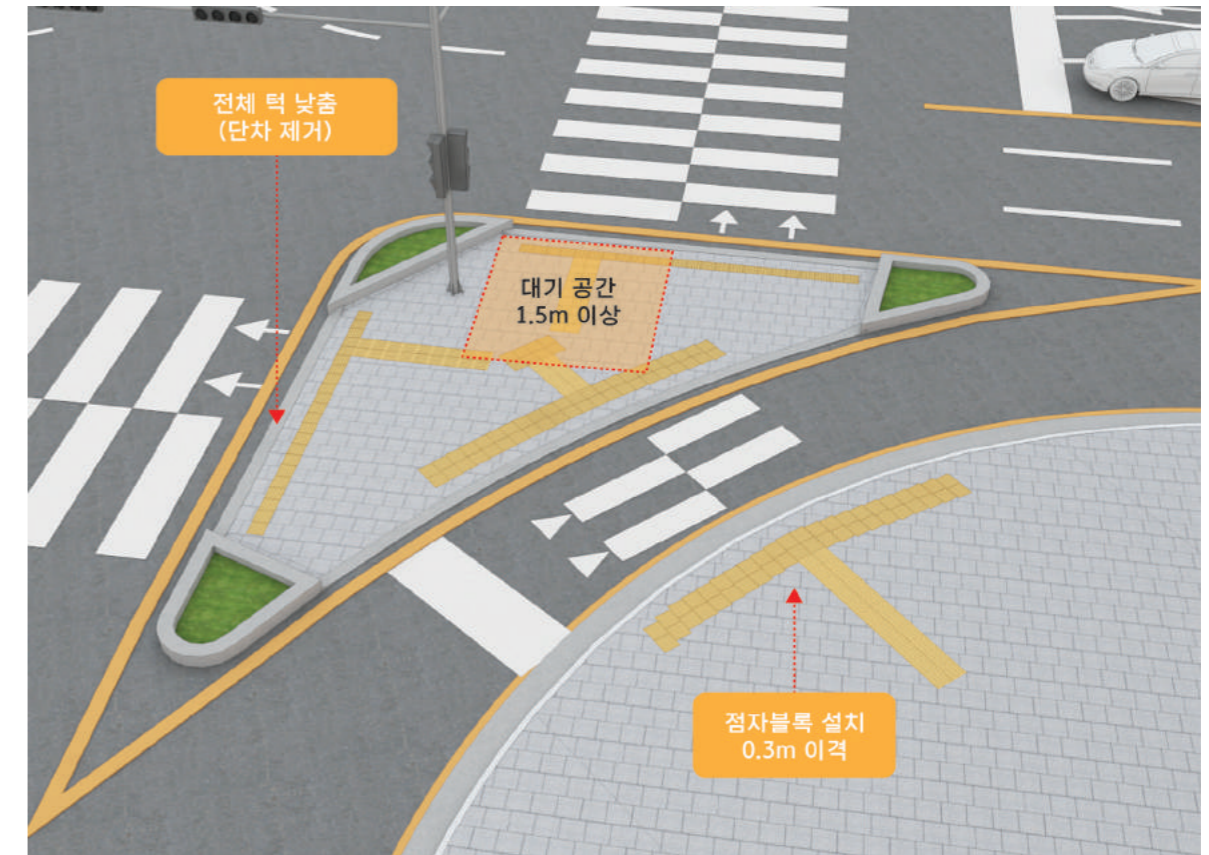
1.2.2 고원식 횡단보도

- 교통약자의 교차로 횡단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를 제거한다.
- 높여진 교차로의 면 전체를 주변 도로와 구분되는 보도 포장재를 적용하여 높여진 면을 강조한다.
-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광로나 대로, 또는 오르막길과 경사가 심한 도로, 화물차나 응급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 교차로 진입부에서 경사가 생기므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적절히 배수될 수 있도록 측구 등 주변 배수 체계도 함께 고려한다.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3 교통섬식 횡단보도

-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도로와 단차 없이 설치, 조경 설치 부분은 연석 높이를 올려 설치한다.
- 최소 1.5m 이상 보행자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통섬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최소 1m 이상 보행자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 차량 운전자가 교통섬 및 교통섬 내 보행자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교통섬 대기 공간 전후 차도 경계에 0.3m 이격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1.3 차량 진입 구역

1.3.1 기본지침

- 차량 진출입부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보도면은 높이 변화가 없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를 위해 보도는 설치 높이를 유지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나 보도 턱 낮춤 등의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최소한의 보행 안전 구역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 공공보도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 통행에 따른 보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권장사례



보도 위 차량 진출입부 디자인



연속성을 가진 차량 진출입부

1.3.2 설계지침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안전 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향의 횡단경사는 1/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적어도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 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주차장 진입 구간이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보행 안전 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 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 경고 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 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 안전 공간과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 안전 공간과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볼라드 설치시 볼라드 전면 0.3m에 점자블록 1장을 설치한다.





가로 2 차량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차량 공간은 속도 저감 시설, 자전거 도로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차량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차량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1 속도 저감 시설

2.1.1 기본지침

-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스쿨존 등에는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설치한다.
- 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 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 저감 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한다.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 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노면 요철 포장, 긴급 제동시설, 안개 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 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등의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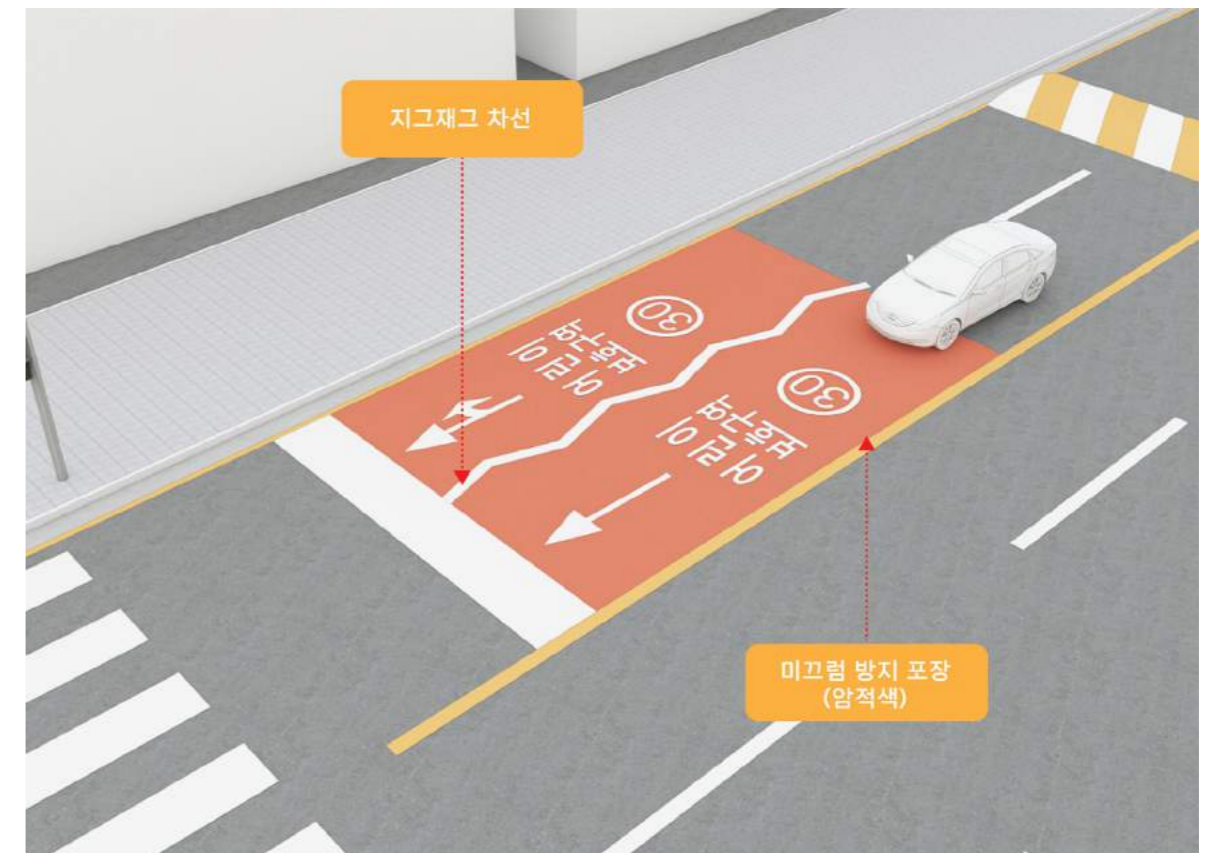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지그재그 차선



과속방지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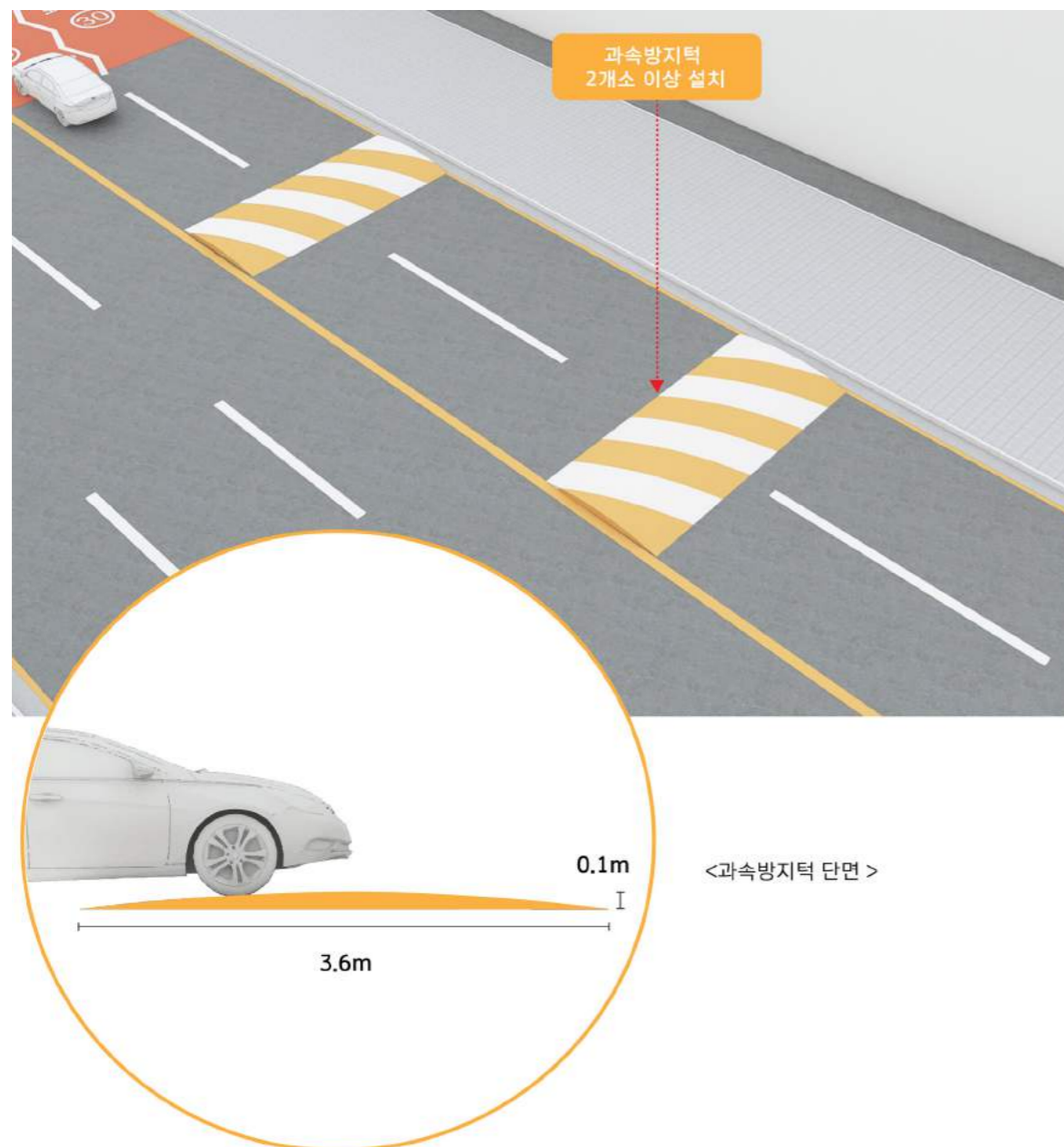
2.1.2 차도 폭 좁힘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지그재그 차선을 사용하여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 요철 포장 및 이질재 포장을 통해 차량 속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보도 공간 확장의 효과를 내면서 커브를 조성한다.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발색 도료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차량이 정해진 차도로만 운행 하도록 차도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한다.



2.1.3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차로 횡단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 형태로 설치한다.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과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속으로 2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2.2 자전거 도로

2.2.1 기본지침

- 자전거도로는 안전 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는 보행 안전 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우선 권장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분류하며, 각각의 구분 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으로 적용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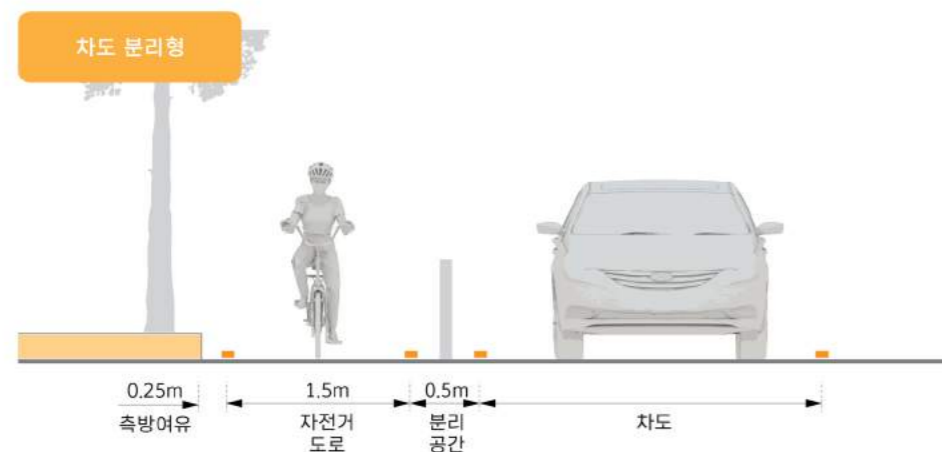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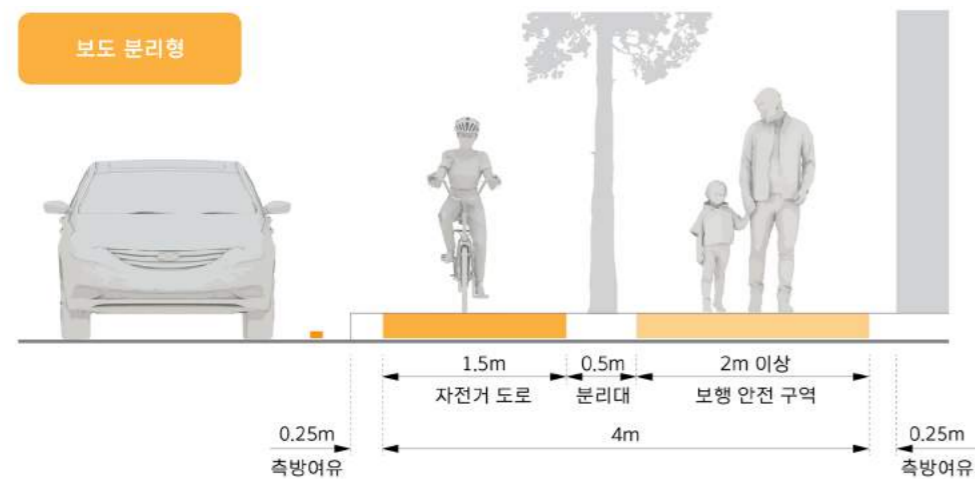
독립적인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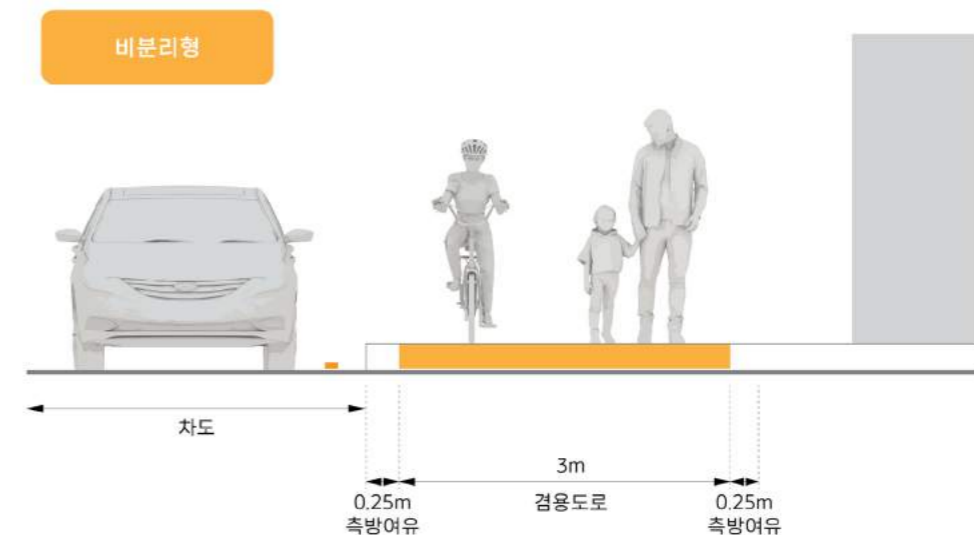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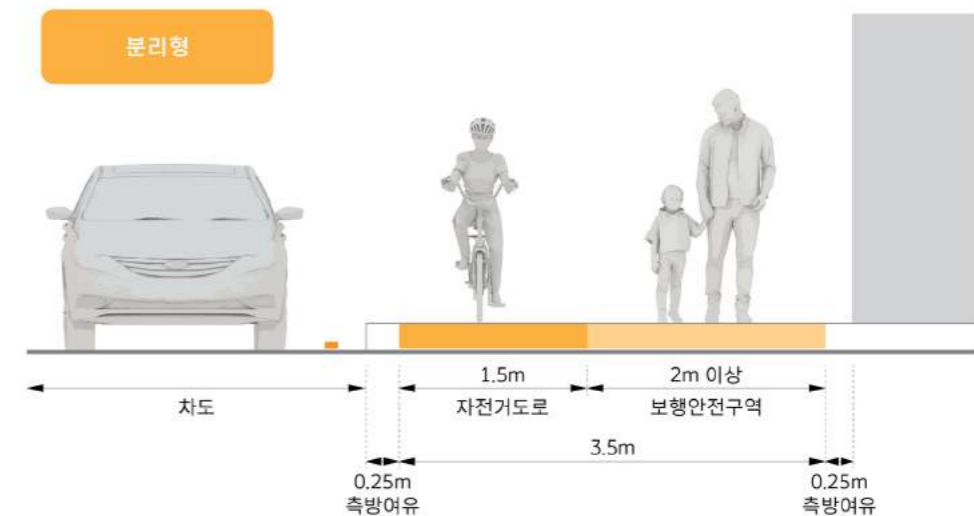
2.2.2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화단, 안전난간 등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폭은 1.5m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 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며 차량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 폭을 확보한다.
-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5%~2%의 횡단경사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측구, 집수정, 맨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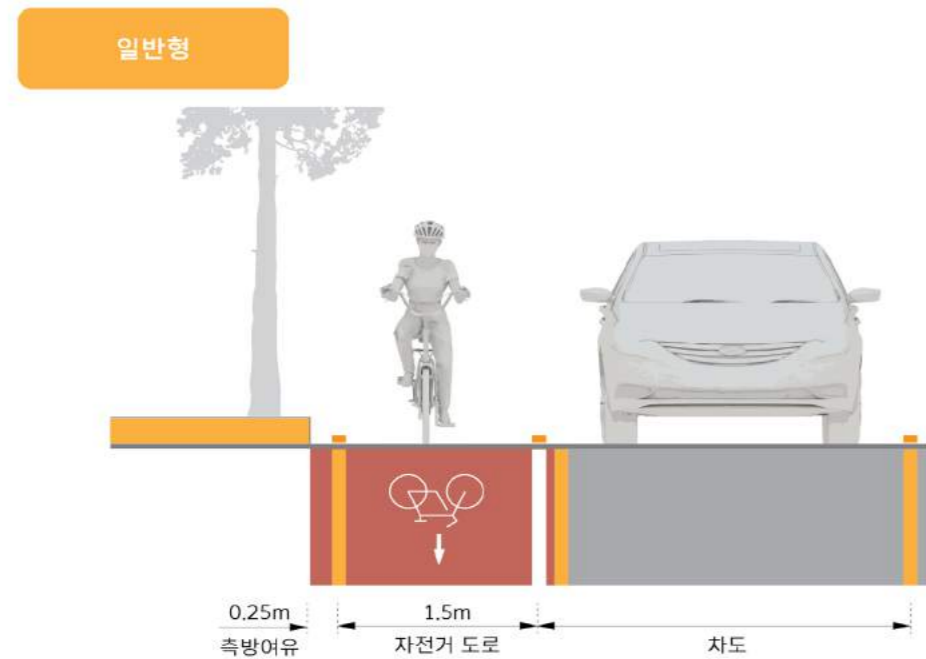
2.2.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운행에 지장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비분리형은 보도부에 설치하고,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하천변 등 주변 여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2.2.3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폭 1.2m까지 설치 할 수 있다.
-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 이상을 확보한다.
-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 공간을 확보한다.
- 분리 공간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백색 복선(실선 또는 점선, 0.5m)으로 표시하며, 제한속도 50km/h이하의 경우 백색 단선(0.2m)으로 표시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50m~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로 3 가로시설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가로시설은 승하차 시설, 점자블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가로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가로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1 승하차 시설

3.1.1 기본지침

- 승하차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 제거 및 식재 높이 조절 등을 통해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기하는 부담이 적은 승하차 시설을 조성한다.
- 승하차 시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 버스 및 택시 승하차 시설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보도에 설치하는 승하차 시설의 외형은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자인이 되도록 하되,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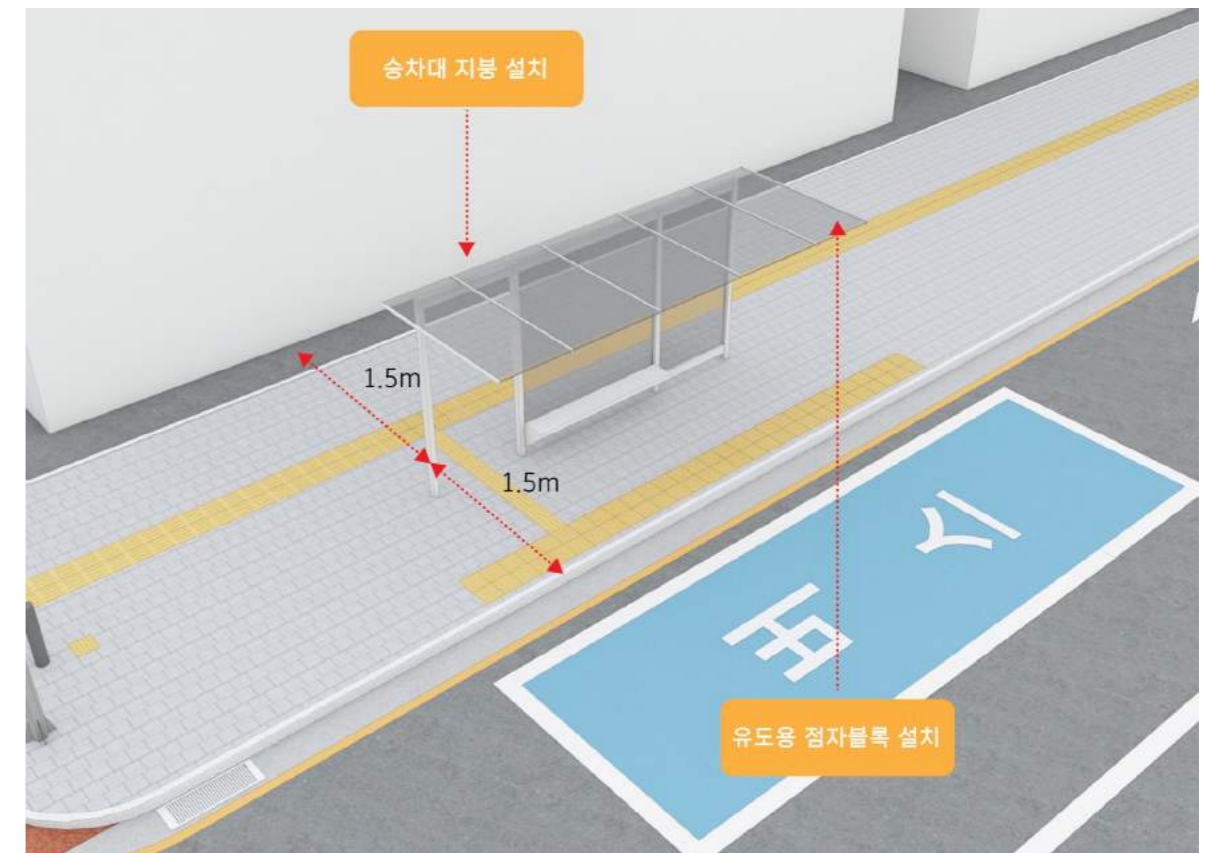
누구나 제약없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기후 변화를 고려한 (밀폐형+ 개방형) 승하차시설

3.1.2 설계지침

- 승하차 시설은 휠체어 등의 활동과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유도 및 안내가 되도록 구성한다.
- 승차대 쉼터로의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승차대 인근의 보도 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승차대 쉼터는 보도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상황에 따라 보도 중간형, 역상형, 보도 후퇴형 중 최적의 형태로 설치하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 설치를 우선 고려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대기 공간은 2m×2m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장 내 승차대에는 지붕 및 조명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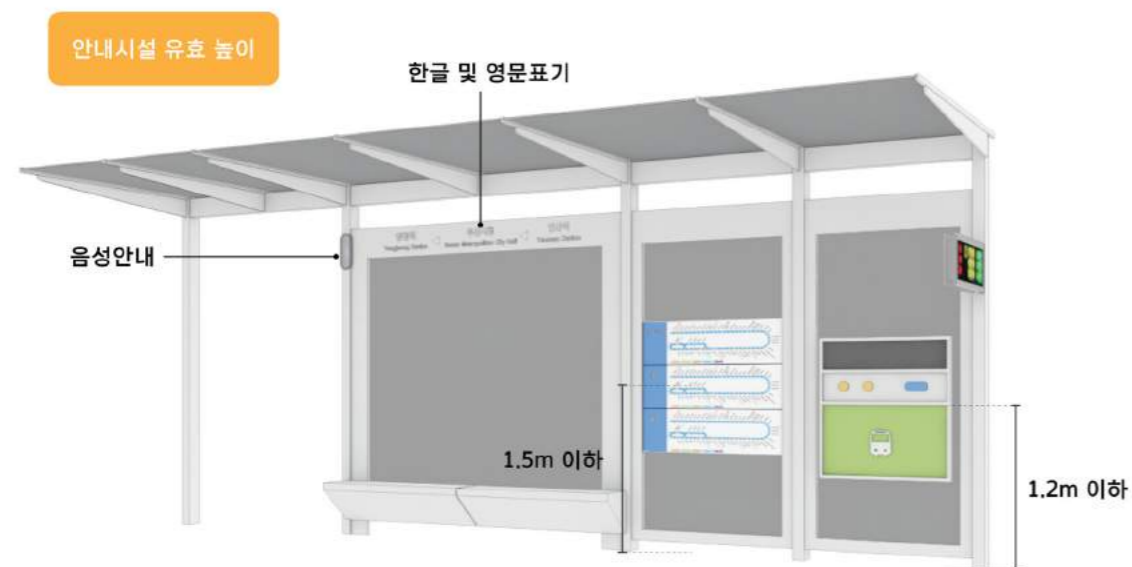
3.1.3 경계구간

- 연석의 높이는 0.25m 이하로 하되, 저상버스 저상면의 높이에 따라 승강장의 적정 연석 높이를 확보한다.
-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승하차 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위치를 표시한다.
- 차도로 내려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과 차도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며, 기울기가 1/18 이하, 유효폭 0.9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 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한다.
- 차량이 정류소에 인접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정류소의 연석은 곡선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1.4 안내시설

- 승차대에 부착된 안내도는 중심 높이가 바닥에서 1.5m 이하로 하고, 외국어·점자 안내·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 음성 안내는 주위의 소음에도 가청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높이 1.2m 이하로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설치, 가능한 한 양면형으로 화면 등에는 눈부심 및 역광 방지 설비를 설치하며, 디스플레이 시각 정보 장치는 음성 및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3.2 점자블록

3.2.1 기본지침

- 보행공간에서의 점자블록 설치의 주의, 경고, 필요한 보행 유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가능한 바닥 포장재의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한다.

3.2.2 규격

-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는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으로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0.5±0.1로 하여야 한다.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권장사례



연결성 있는 보도의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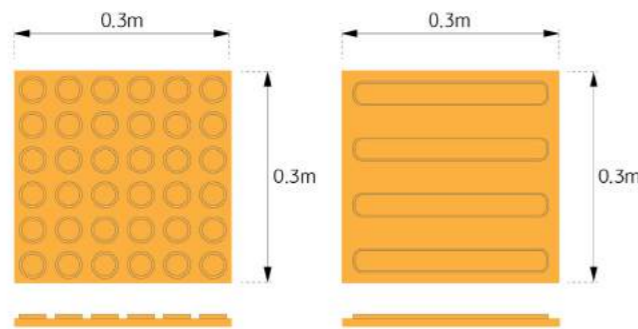


주변색과 대비되는 점자블록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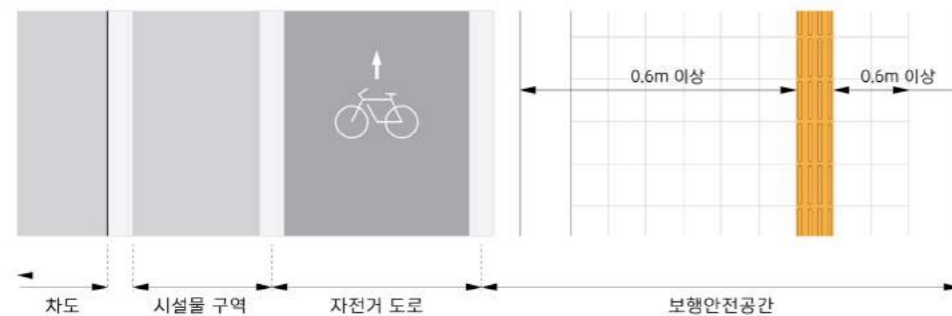
3.2.3 설계지침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버스정류장, 승강장, 연결 승강기 등)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블록의 좌우 0.6m 내에는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경고 및 주의 환기용 점형블록은 방향 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화장실 전면 0.3m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m~0.9m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점자블록 규격



선형점자블록 설치



가로 4 안내시설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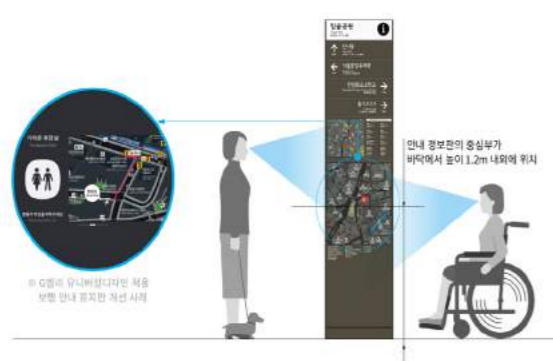
- 본 가이드라인의 안내시설은 위치 및 방향 안내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안내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안내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1 위치 및 방향 안내

4.1.1 기본지침

- 길 찾기 과정에서 혼돈을 야기하거나 추측, 오해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상황, 장소 등 맥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 지식의 정도나 이해의 차이, 연령, 신체 능력이 다른 다양한 이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급 및 행정 중심에서의 정보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 다국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인도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약자 등의 배려를 위해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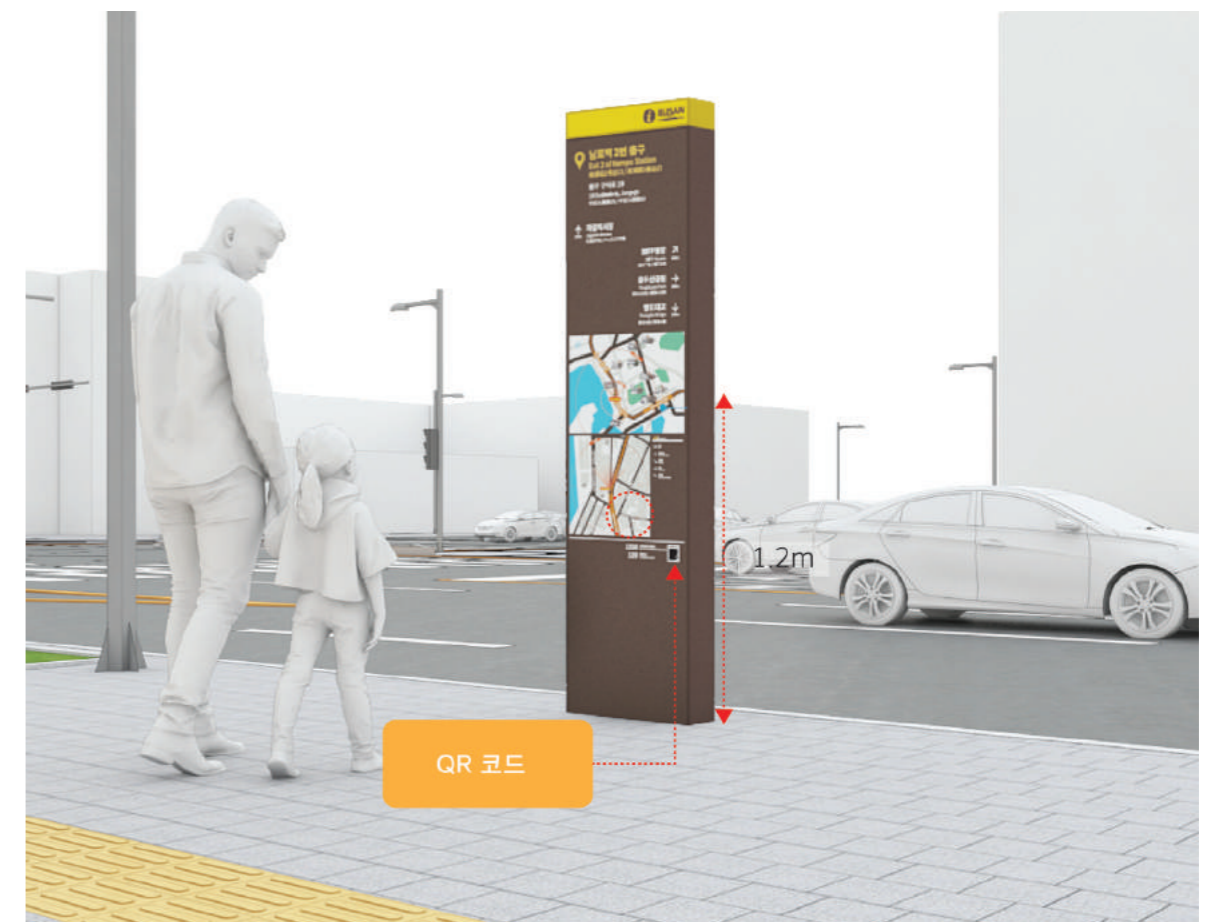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



촉각 및 음성안내를 통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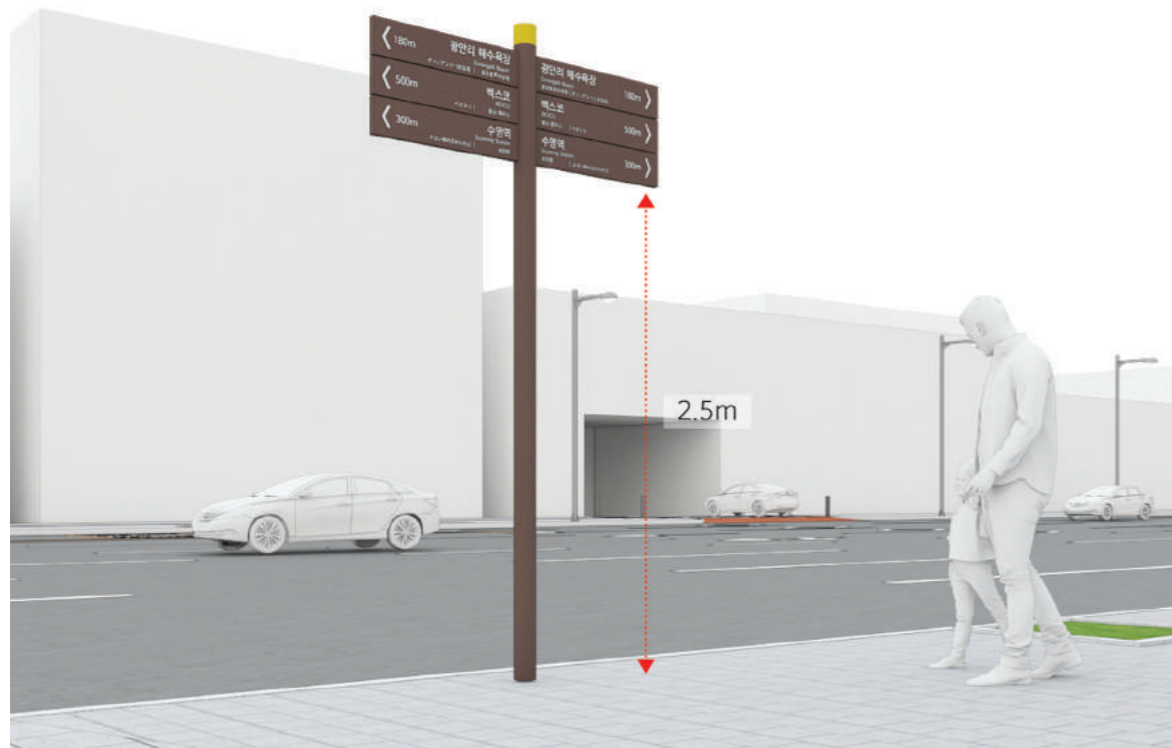
4.1.2 위치 정보 안내

- 종합안내시설 구역 안내도 등에 보행 정보, 위생 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을 포함한 보행 편의 정보를 표시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이 가능한 위치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안내 정보판의 중심부가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보행공간 경계 등에 독립형으로 설치 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하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촉지도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 QR코드 등을 설치한다.



4.1.3 방향 정보 안내

- 방향 안내시설은 방향과 소요 거리 정도를 표기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 3개 이상의 가로 구역의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4.1.4 우회 안내

- 가로 내 모든 통행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급격한 경사로,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길 등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사전 정보 제공과 함께 우회 정보를 제시한다.

5.1 보행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보행 공간	보도	1-01. 보도의 수평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한다.		
		1-02. 보도의 수직 유효폭은 2.1m 이상 확보한다.		
		1-03. 진행 방향으로 종·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4.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로 한다.		
		1-05. 진행 방향의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로 한다.		
		1-06. 블록 포장, 각종 덮개, 재료 분리 구간의 경계 및 바닥 마감 등은 무단차로 처리한다.		
		1-07.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1-08.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1-09. 안전 관련 주의 및 경고 목적의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를 4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한다.		
		1-10. 유도 및 안내 관련 배색의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를 3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한다.		
		1-11. 배수구 덮개 및 맨홀 등의 표면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구멍 또는 틈새가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횡단 보도	2-01.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한다.		
		2-02.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가 없게 한다.		
		2-03. 고원식 횡단보도의 면 전체가 주변 도로와 구분되도록 포장한다.		
		2-04.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하고 1.5m 이상의 보행자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차량 진출입구	3-01. 차량 진출입부 경사로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3-02. 진행 방향 횡단경사는 1/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03.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을 다르게 한다.		
		3-04. 차량 진출입구 경계에는 주의·경고 표시 시설과 차량 속도 저감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3-05. 차량 진출입부 경계에는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3-06. 차량 진출입부 경계 볼라드 설치시 볼라드 전면 0.3m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의견				

5.2 차량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차량 공간	속도 저감 시설	1-01.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지역은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1-02. 차량 속도 저감 유도를 위하여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지그재그 차선 등을 사용한다.		
		1-03. 과속방지턱은 차로 횡단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 형태로 설치한다.		
		1-04. 과속방지턱은 연속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		
		1-05. 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구역은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한다.		
	자전거 도로	2-01.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 폭은 1.5m로 설치한다.		
		2-02. 자전거 전용도로의 측면에는 0.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한다.		
		2-03.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 분리형의 경우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한다.		
		2-04. 물이 고이지 않도록 1.5%~2%의 횡단경사로 설치한다.		
		2-05.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는 100m 간격으로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2-0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측면에 0.2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한다.		
		2-0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차도측에 설치한다.		
		2-08.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은 보도부에 양측 편 방향으로 설치한다.		
		2-09. 자전거 전용차로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2-10.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면에 0.25m 이상의 측방여유(보도측)폭을 확보한다.		
		2-11. 자전거 전용차로 분리 공간은 제한속도 60km/h 이하 구간에는 백색 복선으로 표시한다.		
		2-12. 자전거 전용차로 분리 공간은 제한속도 50km/h 이하 구간에는 백색 단선으로 표시한다.		
		2-13. 자전거 전용차로 노면표시는 50m ~ 100m 간격으로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은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의견				

5.3 가로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가로 시설	승하차 시설	1-01. 승차대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고 인근의 보도 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한다.		
		1-02. 보도폭이 좁아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대기공간은 2m×2m 이상 확보한다.		
		1-03. 승강대에는 지붕 및 조명을 설치한다.		
		1-04. 경계 구간의 연석 높이는 0.25m 이하로 설치한다.		
		1-05. 저상버스의 승하차 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탑승 위치를 표시한다.		
		1-06. 승차대에 부착된 안내도는 중심 바닥에서 높이 1.5m 이하로 설치하고 외국어·점자 안내·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1-07. 정보 안내 단말기는 바닥에서 1.2m 이하로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설치한다.		
	점자 블록	2-01. 선형블록은 연결된 접근로에서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한다.		
		2-02. 점자블록은 높이가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2-03. 선형블록 좌우 0.6m 이내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2-0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05. 경고 및 주의 환기용 점형블록은 대상 시설 전면 0.3m에 설치한다.		
	의견			

5.4 안내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안내시설	위치 및 방향 안내	1-01. 종합안내시설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1-02. 안내 정보판의 중심부가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1-03. 종합안내시설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04. 보행 공간 경계 등 독립형으로 설치 시 충돌 방지나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1-05. 글자의 크기 및 색 대비 등이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1-06.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이나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여 안내한다.			
		1-07.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촉지도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QR코드 등을 설치한다.			
		1-08. 방향 안내시설은 방향과 소요거리 정도를 표기한다.			
		1-09.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은 사전 정보 제공과 우회 정보를 제시한다.			
의견					

공원공간 Park

1	접근 및 이동 공간	050
	1-1 진입 공간	052
	1-2 공원 보행로	056
2	위생 및 편의시설	058
	2-1 공중화장실	060
	2-2 편의시설	062
3	놀이터	066
	3-1 모두를 위한 놀이시설	068
4	안전시설	070
	4-1 경고 및 안전시설	072

공원 1 접근 및 이동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접근 및 이동 공간은 진입 공간, 공원 보행로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접근 및 이동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접근 및 이동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 진입 공간

1.1.1 기본지침

- 공원 진입 공간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가급적 최단 거리로 보행 동선을 연결하여 공원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공원 입구의 위치를 지정한다.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주출입구, 휴게공간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 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환경을 우선 고려한다.
- 공원 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한군데 이상을 어린이, 유아차, 임산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쉽게 동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는 계획 단계부터 동선을 완전히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가 공원 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권장사례



진입하기 쉬운 공원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효 폭,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1.1.2 보행 접근로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모든 보행 접근로는 어린이, 유아차, 임산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 주출입구의 보행 접근로 유효폭은 2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확보하며(법적 치수 1.2m 이상), 공원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상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cm 이하(법적 치수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한다.
- 접근로 상의 시각장애인 유도는 점자블록(점형/선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 안전 구역이 확보된 경우 유도용 재질을 사용한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한다.
- 동선 및 볼거리 등의 종합정보를 담은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확립한다.



1.1.3 주차장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이용 시설명과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공원 출입구의 보행 접근로까지 이르는 보행 안전 통로는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고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 노면색상 등 표시한다.
- 차량 이동통로, 주차 공간, 보행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 주차장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주차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주차구역에는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 도움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기준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한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권장사례



노약자 및 임산부를 배려한 주차장 계획



차량 구역과 분리된 보행 전용 구역 표기



1.2 공원 보행로

1.2.1 기본지침

-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원 시설의 접근 통로 중 적어도 한 곳은 장애인 등이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공원 내 보행자 동선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동선과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서비스 차량의通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두도록 한다.
- 보행로(산책로)의 주변에는 화초, 휴게공간,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 내부, 문화유적, 자연공원, 하천 등을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보행 안전 구역으로 계획하고, 유도 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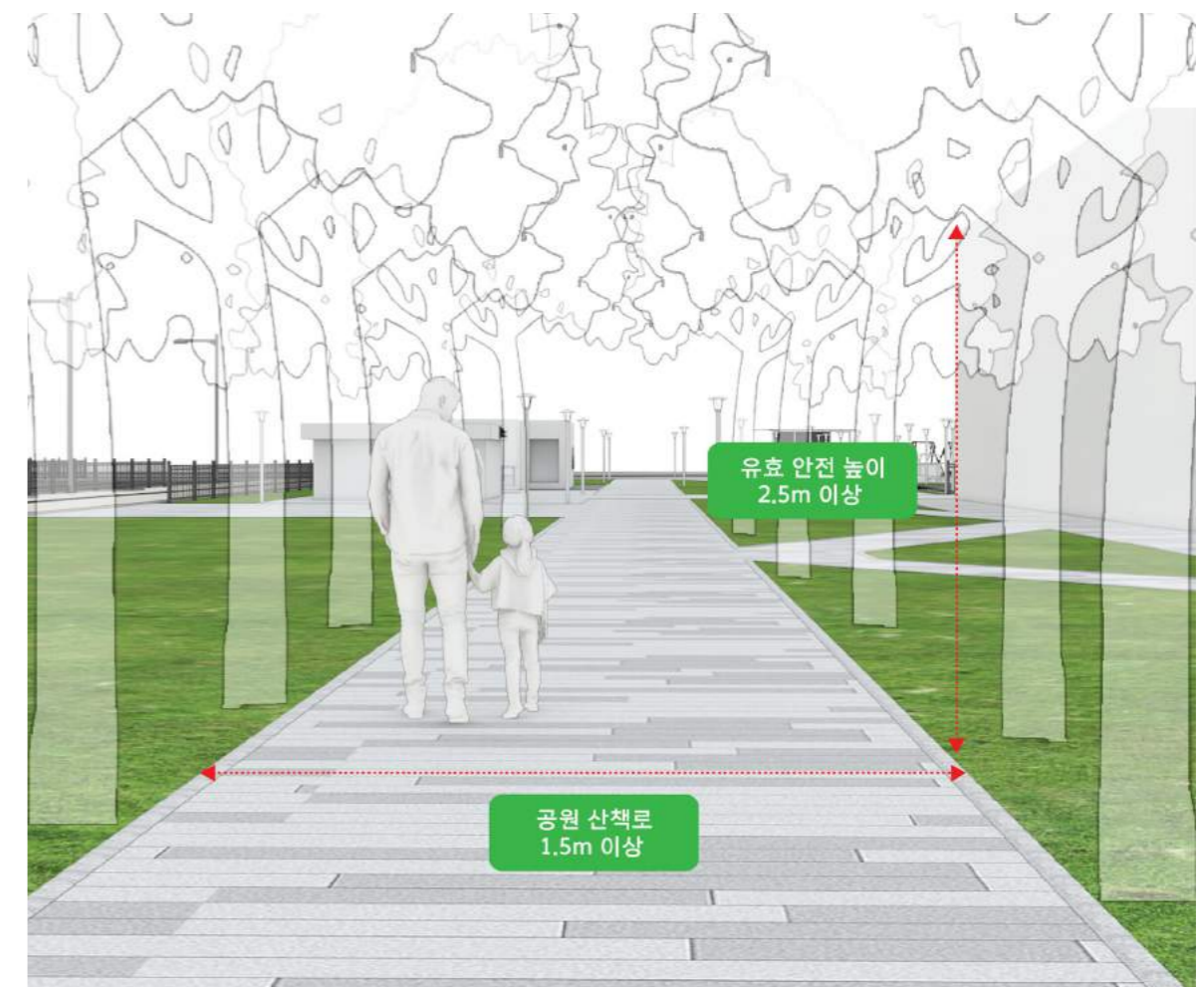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연속된 산책로



보행 안전 통로는 1.5m 이상 확보

1.2.2 설계지침

- 모든 이용자의通行을 고려한 주요 산책로에는 공원의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공원 산책로는 노인, 어린이, 장애 유무, 장애 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연속된 산책로 구조를 확보한다.
- 공원 내 산책로는 유효폭 1.5m 이상(법적 치수 1.2m 이상), 유효 안전높이 2.5m 이상(법적 치수 2.1m 이상)으로 하고 가로수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 보행 안전 통로는 최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인 자전거 등의通行과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공원 2 위생 및 편의시설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위생 및 편의시설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위생 및 편의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위생 및 편의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1 공중화장실

2.1.1 기본지침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위생시설의 위치를 안내·유도하는 표시를 하며, 공원 어디서나 접근하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위생시설을 설치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며, 24시간 방범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에게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며,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도심 미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 원활한 공기 순환으로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물이 되도록 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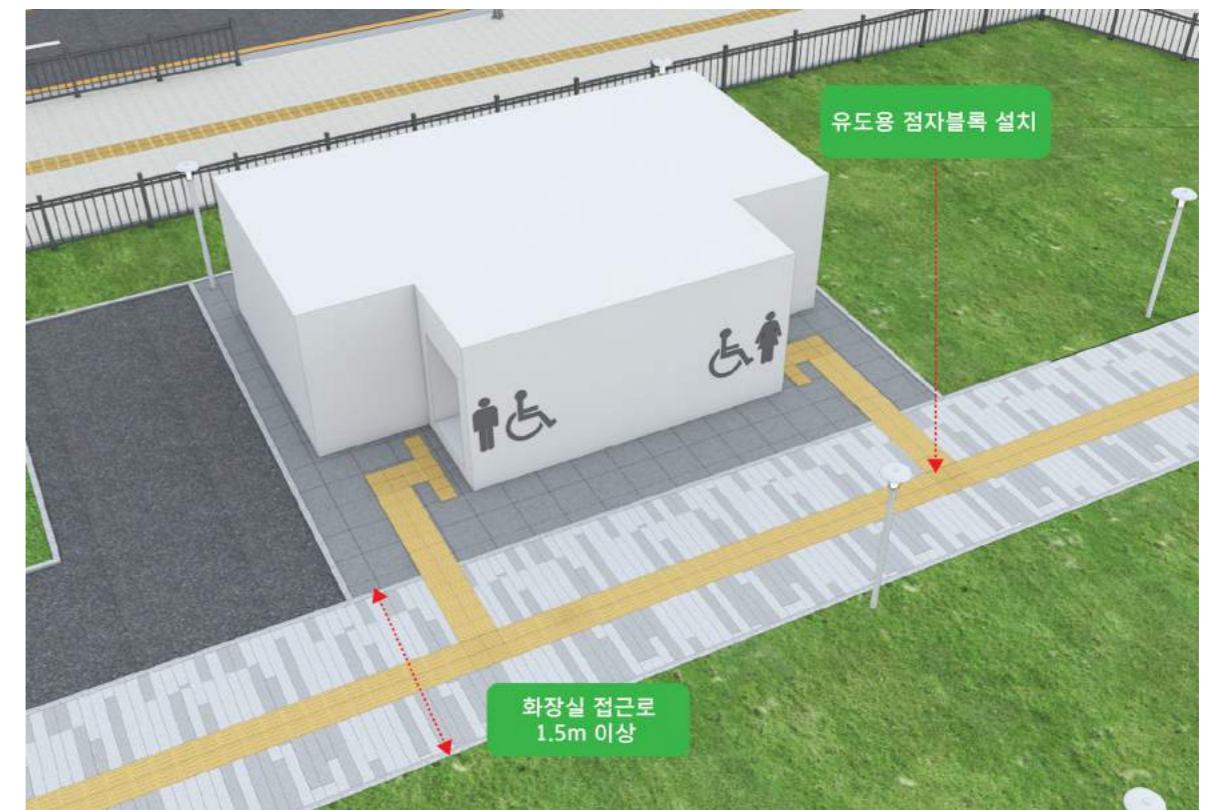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여 식별하기 쉬운 위생시설 설치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중화장실

2.1.2 설계지침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이용자가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의 간결하고 명료한 시각 정보 디자인을 적용한다.
- 내부장치는 1.2m 이하 눈높이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다목적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 옆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 손이 닿는 곳에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기, 세면대 옆 등 비상벨을 설치한다.
- 화장실 주변은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항상 밝게 유지하고, 화장실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와 안내 사인을 게시한다.
- 화장실 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의 타일을 사용한다.



2.2 편의시설

2.2.1 기본지침

-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방문자센터, 매점 등 이용객을 위한 공원 내 건축물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고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역 등을 지정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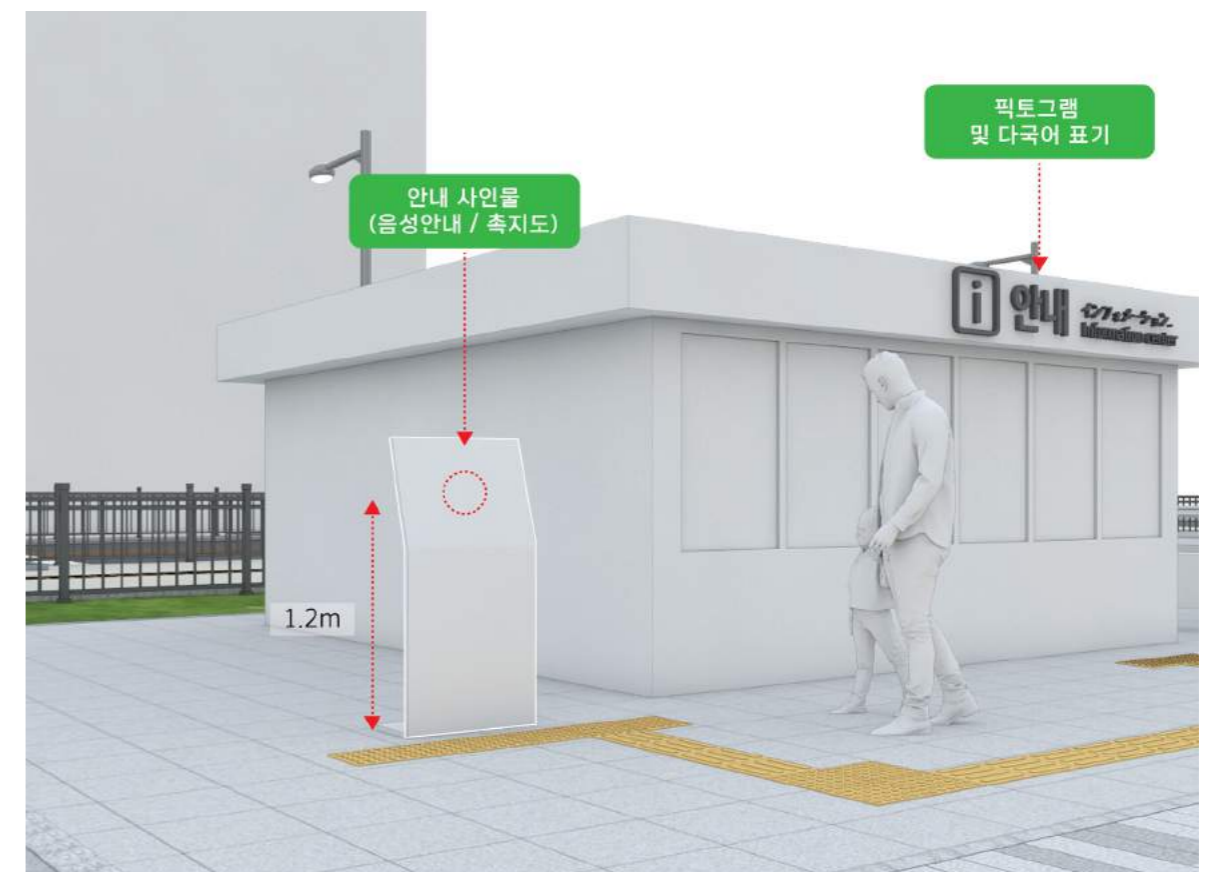
누구나 알기 쉬운 안내시설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픽토그램 및 다국어 병행 표기

2.2.2 안내시설

-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은 누구나 알기 쉬운 표기 내용과 방법 및 사용하기 쉬운 형상으로 설치한다.
- 안내 사인물은 인지성이 높은 구조로 공원 입구,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 2곳 이상 설치한다.
- 각 안내시설물은 목적별로 체계적이고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표지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선과 대면하는 방향에 설치하여 멈춰 서서 읽어도 다른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안내판은 성인은 물론 키가 작은 어린이도 표기 내용을 알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장치와 관리자 호출 및 통화 장치를 설치한다.
- 안내판에는 야간에도 문자 등 안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한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2.2.3 휴게시설

- 공원 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나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 등에 적절한 간격마다 쾌적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휴게공간은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키가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유아차를 두거나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야외 탁자는 상부면 높이를 0.7m 정도로 하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한다.
- 휴게소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권장사례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의 휴게시설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공원 3 놀이터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놀이터는 모두를 위한 놀이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놀이터를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놀이터 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1 모두를 위한 놀이시설

3.1.1 기본지침

-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놀이시설을 통합시설로 설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보행 안전 구역과 가까운 놀이터 일부 공간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운동 공간을 고려한다.
-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강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차양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놀이 후 식수 공급과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권장한다.
- 잔디, 고무블록 등 안전한 재료로 마감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바닥재와 딱딱한 바닥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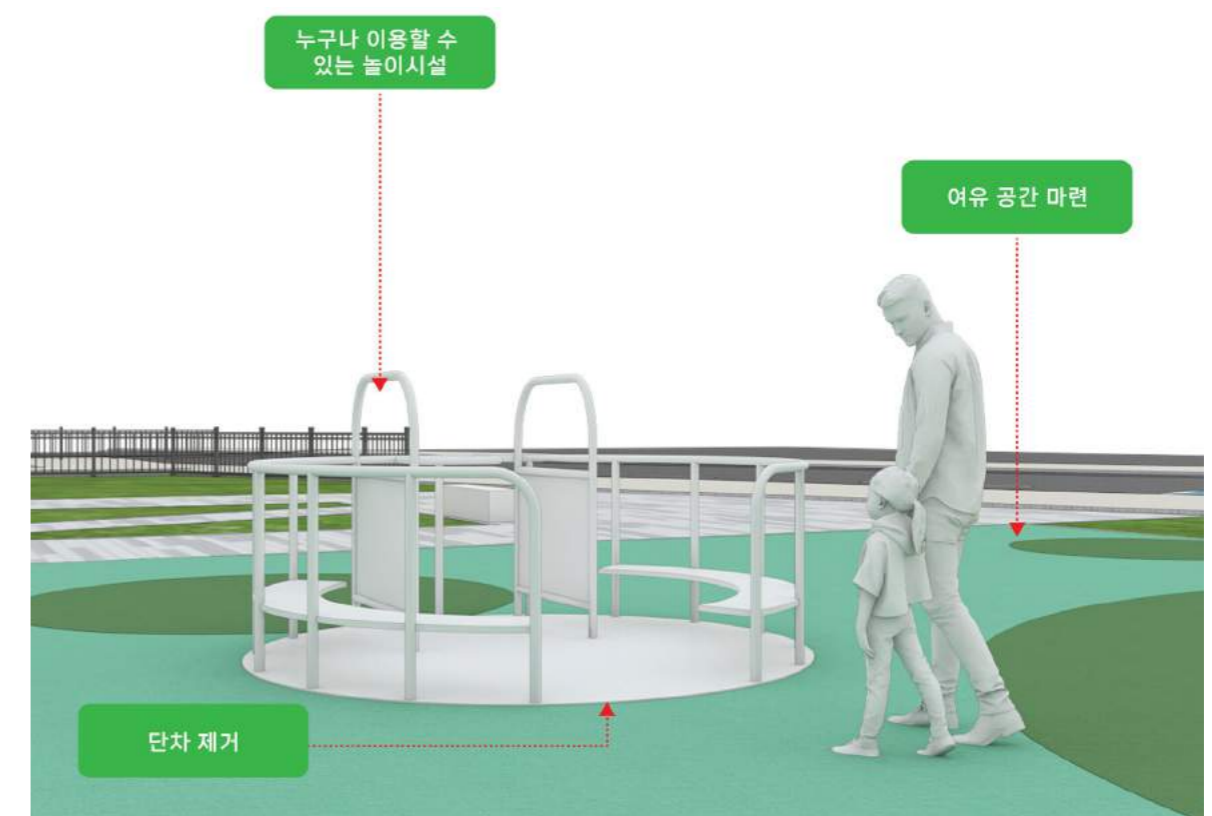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가 있는 놀이시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3.1.2 설계지침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단차를 제거한 시설물을 도입한다.
- 단순한 놀이보다는 촉각이나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 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 인위적 시설보다 흙과 물, 식물 등 자연소재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신체 발달의 촉진을 위한 어린이용 운동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은 휠체어 이용 어린이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
- 미끄럼틀은 나이 어린 어린이와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손잡이를 설치한다.
- 시각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위해 종, 북 등의 다양한 소리를 내는 놀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모든 놀이시설이 독성이 없는 재료와 마감을 사용하고, 안전을 위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한다.



공원 4 안전시설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안전시설은 경고 및 안전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안전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안전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1 경고 및 안전시설

4.1.1 기본지침

-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공원 내 주요 시설과 보행로에는 CPTED기법의 기준을 고려하여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며, 식재의 높이와 종류를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공원 내 추락위험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색상 및 질감이 확연히 다른 마감재 등을 이용하여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야간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보행로 및 휴게 공간에는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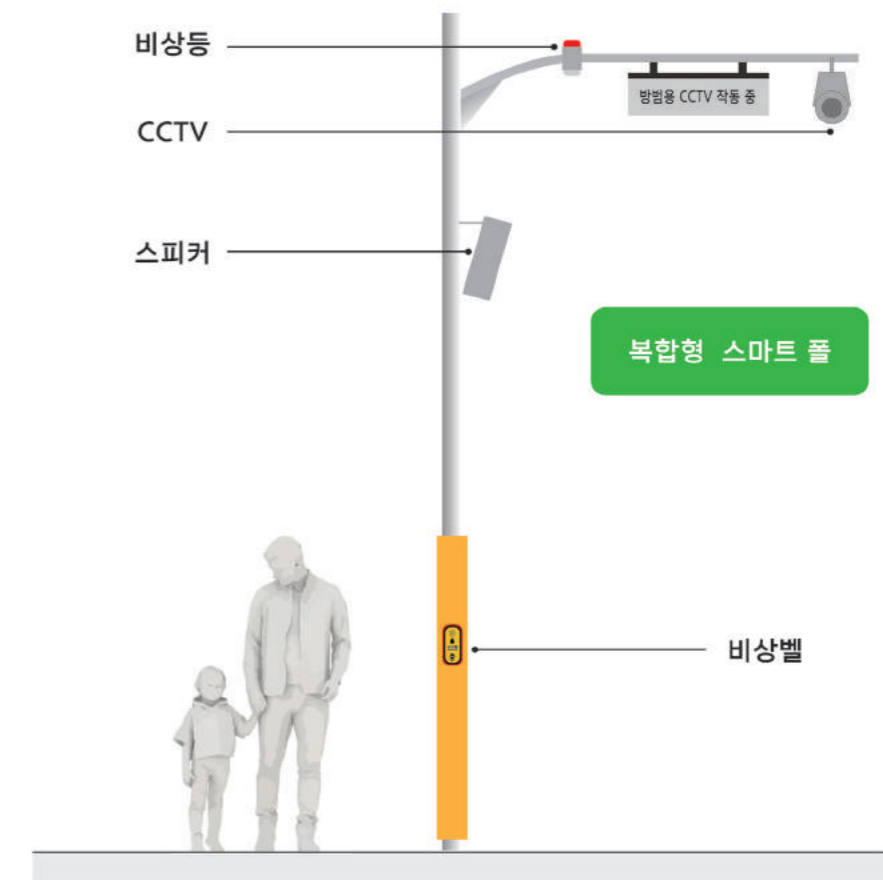
지진 대피소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야간시 적절한 조도 확보

4.1.2 설계지침

- 수변이 있는 공원 내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구역에는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추락 위험 구역 등에는 추락 방지턱, 경고존 등 색상과 바닥 재질 차이를 통한 경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안전 난간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추락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비상시 구호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구호 장비를 설치한다.
- 주요 산책로에는 양방 소통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 (통화, 비상호출 등 통합형)
- 통화, 비상호출은 인지하기 쉬운 형태이며, 직관적인 사용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화장실 내·외부에 감시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한다.
- 사각이 없는 산책로로 구성하며, 야간 개방을 하는 경우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5.1 접근 및 이동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접근 및 이동 공간 편의시설	진입공간	1-01. 공원 주출입구 보행 접근로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한다.		
		1-02. 주출입구 외 기타 출입구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한다.		
		1-03. 보행 접근로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1cm 이하)		
		1-04. 단차가 발생할 경우 모서리 처리한다.		
		1-05. 보행 접근로 상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1-06.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1-07. 장애인 주차구역과 보행 접근로까지 이르는 보행 안전 통로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1-08. 보행 안전 통로는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1-0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 공간은 1.2m 이상으로 표시한다.		
		1-10.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연결한다.		
		1-11. 주차구역의 바닥은 단차 없이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1-12. 주차구역에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출 도움 벨을 설치한다.		
	이동공간	2-01. 공원 내 산책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한다.		
		2-02. 공원 내 산책로는 유효 안전 높이를 2.5m 이상 확보한다.		
		2-03. 산책로 내 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의견				

5.2 위생 및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위생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1-01. 화장실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1-02.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픽토그램 등 간결하고 명료한 시각 정보 디자인을 적용한다.		
		1-03. 내부 장치는 1.2m 이하 높이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한다.		
		1-04.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한다.		
		1-05. 화장실 내 손이 닿는 곳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1-06. 화장실 주변은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밝게 유지한다.		
		1-07.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안내 사인을 게시한다.		
		1-08. 화장실 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의 타일을 사용한다.		
	안내시설	2-01. 안내 사인물은 인지성이 높은 구조로 공원 입구, 보행 통로 연결지점 등 2곳 이상 설치한다.		
		2-02. 안내 표지 등은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03. 안내 사인물은 성인, 어린이, 외국인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로 설치하고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한다.		
		2-04.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장치 등을 설치한다.		
	휴게시설	3-01. 유아차, 휠체어 접근과 사용을 고려하여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3-02.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야외탁자의 상부 높이는 0.7m, 하부 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 이상으로 한다.		
		3-03. 휴게시설 상부는 그늘 제공 등을 위해 지붕 등을 설치한다.		
		3-04.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한다.		
의견				

5.3 놀이터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놀이 터	모 두 를 위 한 놀 이 시 설	1-01.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단차를 제거한 시설물을 도입한다.			
		1-02. 놀이시설은 휠체어 이용 어린이가 조작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			
		1-03. 시각 장애 어린이를 위해 종, 북 등 소리를 내는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1-04. 독성이 없는 재료와 마감을 사용하고 안전을 위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한다.			
의견					

5.4 안전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안전 시설	경고 및 안전 시설	1-01. 추락 위험 구역 등에는 추락 방지턱, 경고존, 안전 난간,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1-02. 추락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비상 구호 장비를 설치한다.			
		1-03. 주요 산책로에는 양방 소통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			
		1-04.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는 내·외부에 감시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한다.			
		1-05. 사각이 없는 산책로로 구성한다.			
		1-06. 야간 개방을 하는 경우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의견					

건축공간 Architectural Space

1	접근 공간	080
	1-1 보행 접근로	082
	1-2 주차구역	087
	1-3 출입구	091
2	이동 공간	092
	2-1 복도(이동 통로)	094
	2-2 내부출입문	096
	2-3 경사로	100
	2-4 계단	102
	2-5 승강기	105
	2-6 에스컬레이터	108
	2-7 고정 손잡이	109
3	위생 및 편의 공간	110
	3-1 화장실	112
	3-2 수유실	118
4	안내시설	120
	4-1 안내데스크	122
	4-2 안내 사인물	123

건축 1 접근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접근 공간은 보행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접근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접근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 보행 접근로

1.1.1 기본지침

- 도로 및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만한 기울기로 하며, 손잡이, 주의 환기용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보행 접근로는 유아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 유효폭, 마감재의 재질,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을 설치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 조명을 적극 활용한다.
- 시·청각 또는 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시각, 음성(또는 음향) 유도장치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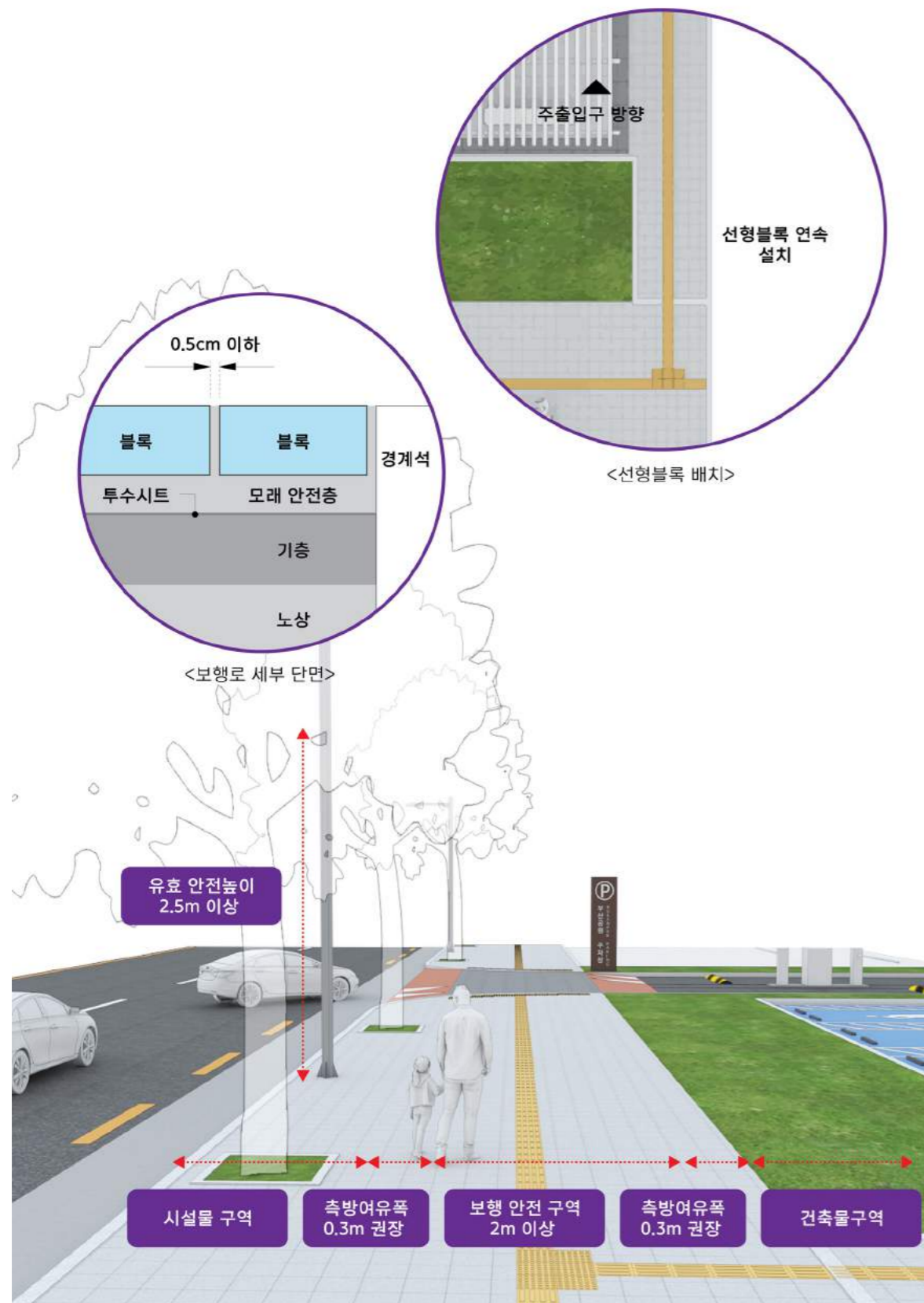
보행유효폭 내 단차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편의시설이 없는 접근공간

1.1.2 재질 마감

- 바닥은 우천시 등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블록 등으로 보행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 틈에 유아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아야 하며,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
- 줄눈간격은 0.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광장 등 넓은 공간의 바닥마감 및 재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침수 및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 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보행 접근로와 부지 내 차도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며,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재질이나 색채로 마감한다.
-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은 무채색으로 한다.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한다.
-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1.1.3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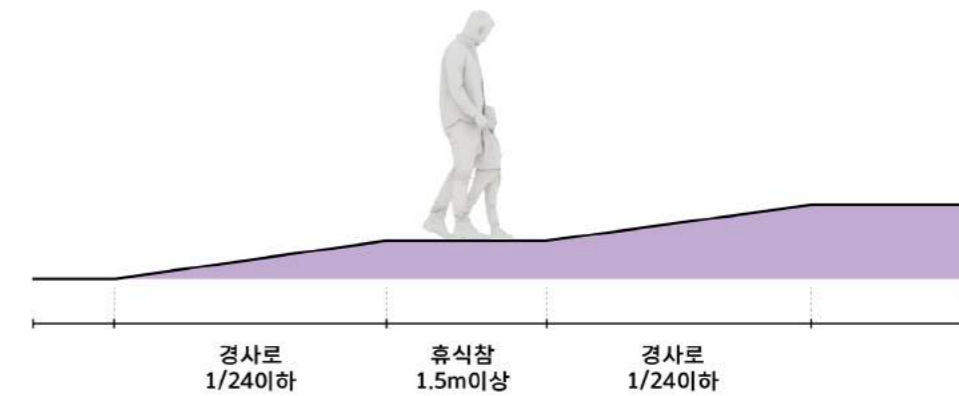
- 측방여유평폭은 0.3m 확보를 권장하며,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아차가 상호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m 이상을 확보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의 보행 장애물은 보행 접근로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면에서 높이 2.5m 이상(법적 치수 2.1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교행 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의 보행 장애물은 보행 접근로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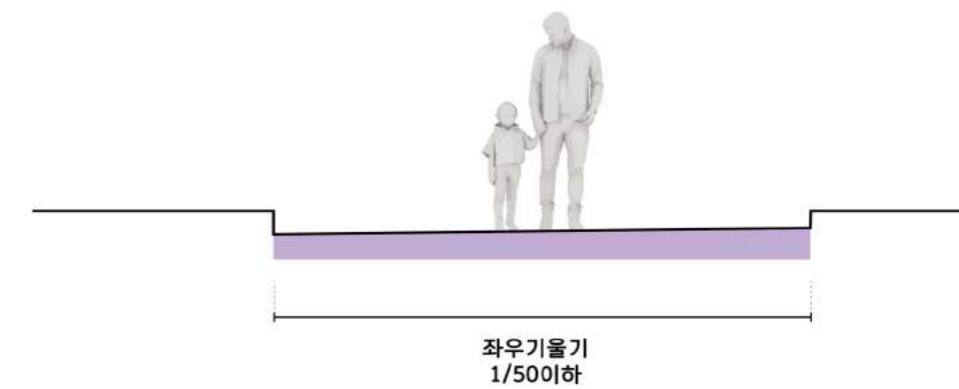
1.1.4 기울기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된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아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 접근로의 종단 기울기 확보가 어렵거나 1m 이상의 높이 차이 등 경사로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에는 대지 내 높이 차이 극복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우회 동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상하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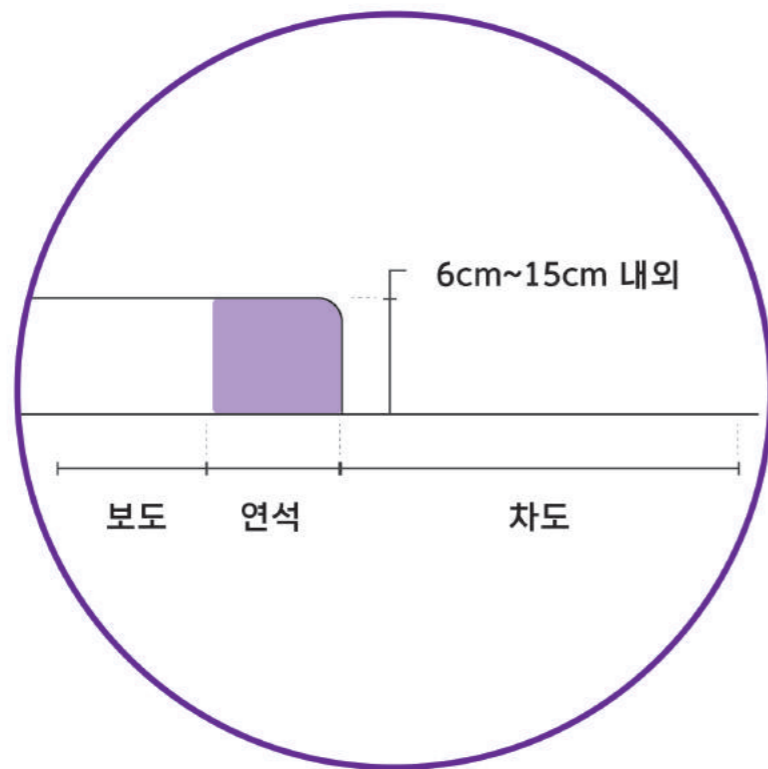


좌우 기울기



1.1.5 보차도 분리

- 보도에서 건축물 입구까지 모든 보행 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건축물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보행 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을 우선시 한 구조로 계획한다.
- 보행 접근로에 인접하여 대지 내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 부분에 연석, 안전난간, 시설물 구역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보도 연석(경계석)은 6cm~15cm 내외 높이로 설치하되, 이때 보도 높이는 연석(경계석)과 같도록 설치한다.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보차도 분리 상세>

1.2 주차구역

1.2.1 기본지침

- 차도와 분리된 보행 안전 통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외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노인 등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일반 주차구역 보다 여유있는 폭을 가진 주차구역을 가급적 별도로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며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승차 전·후에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 가능한 보행 안전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는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이나 캐노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평탄하여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를 바닥면과 전면 등에 식별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권장사례



노약자 및 임산부를 배려한 주차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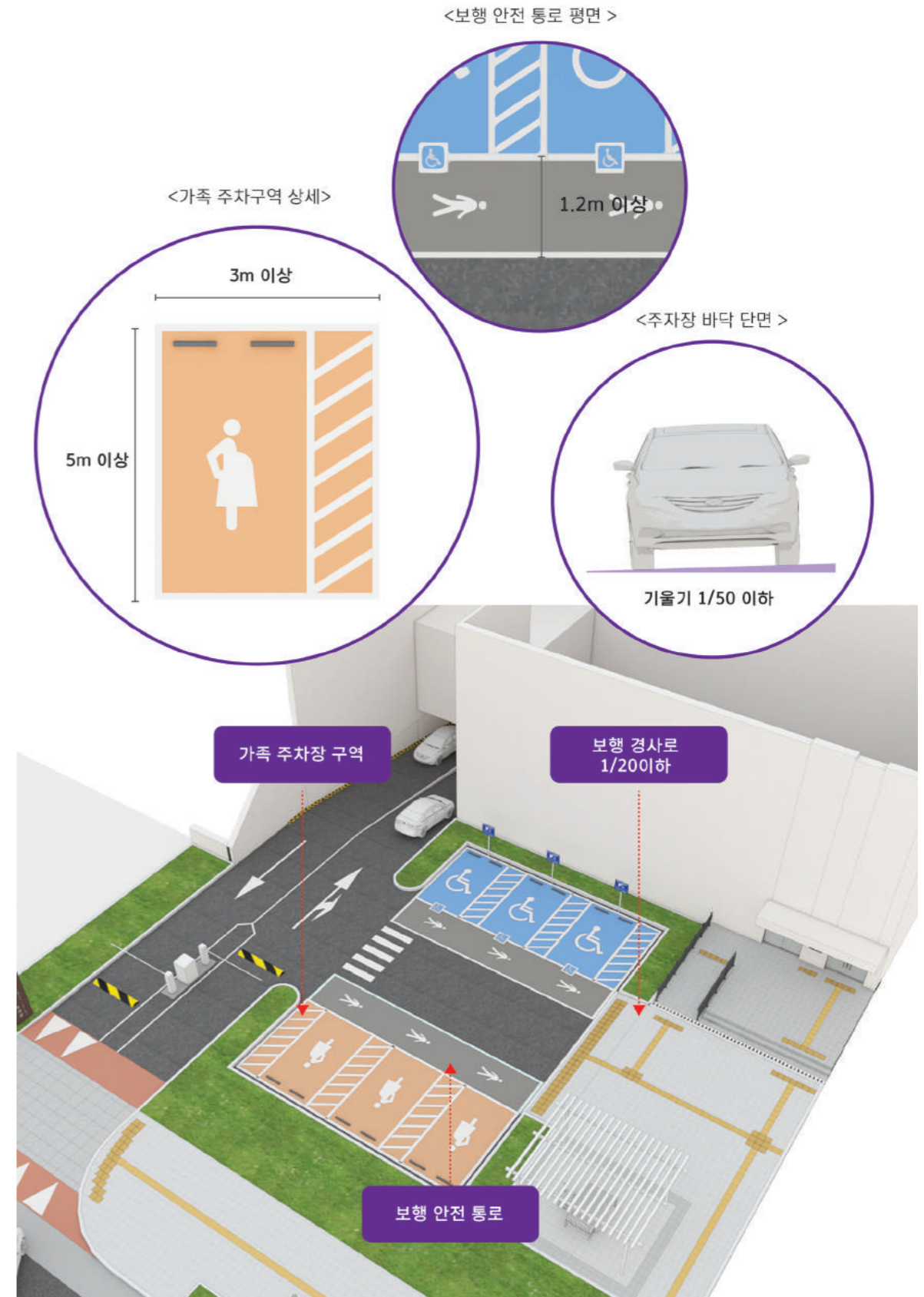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와 안내 사인물 설치

1.2.2 주차구역의 크기

- 가족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m 이상, 길이 5m 이상을 확보한다.
-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한다.
- 주차면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 수는 2면 이상의 복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규정비율 100%를 초과하여 확보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측면에는 휠체어의 통행과 승강을 위해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언제나 주차할 수 있도록 복수로 설치하며, 좌·우측 어느 방향에서도 승강할 수 있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가족 주차장 구역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지팡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폭 3m, 길이 5m 이상을 확보한다.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건축물 내 보행 안전 공간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안전 통로로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연결한다.
- 바닥과 입식 안내를 활용하여 주차구역에 대한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1.2.3 보행 안전 통로

-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효폭 1.2m 이상의 보행 안전 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 안전 통로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 짐 운반 등을 고려해 바닥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 동선에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통행 표시가 된 보행 안전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 안전 통로에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1/20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며, 경사구간 전·후면에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보행 안전 통로에는 바닥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한다.



1.2.4 유도 및 안내시설

- 안내표지는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연속으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한다.
- 공동주거, 복지관 등 우선 주차구역 등의 지정 주차자일 경우에는 입식 표지판과 해당 차량에 지정 주차자의 차량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안내는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각 면마다 벽 부착형 또는 입식의 형태 등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성 확인이 가능한 입구 표시, 만차 등을 설치하며, 층별로 분산 설치된 경우 층별로 안내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안내표지 입면>



1.3 출입구

1.3.1 설계지침

- 주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유아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 문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0.8m~0.9m 이내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부착하며, 문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자동문 등 전면이 투명 유리로 된 출입문은 충돌 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이도록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하고 수평 활동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 자동문은 비상시 및 문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행 설치하고, 시설 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호출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2 이동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이동 공간은 복도(이동 통로), 내부 출입문, 경사로,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고정 손잡이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이동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이동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1 복도(이동 통로)

2.1.1 기본지침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나 동작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복도는 실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 공간이므로 이용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적절한 여유 폭을 확보해야 한다.
- 이용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고, 설비기구나 기둥 등의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누구나 공간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적고 복잡하게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 층별 또는 구역별로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나 색상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축물 내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단차가 없고 통행하기 쉬운 바닥마감재를 선정한다.

권장사례



복도 내 손잡이



단차가 없고 돌출물이 없는 복도

2.1.2 설계지침

- 유아차 이동이나 휠체어의 방향 전환 등을 고려해 유효폭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도록 1.8m 이상을 확보한다.
- 통로 상부는 2.1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15m~0.35m의 높이로 킥플레이트를 설치 할 수 있다.
- 원활한 이동을 위해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각 벽면 0.3m 이상을 사선 방향으로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호실 안내판은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벽면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 통로는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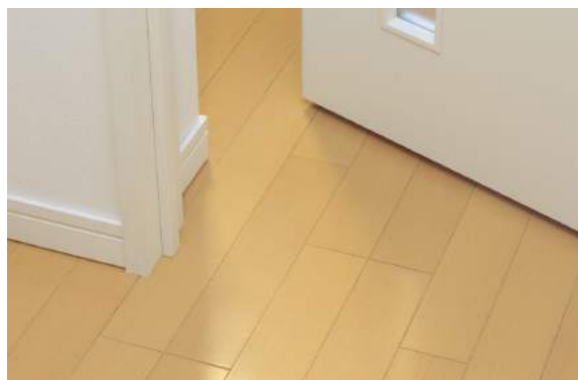


2.2 내부출입문

2.2.1 기본지침

- 어린이, 임산부, 유아차, 노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며, 문턱 등에 단차가 없도록 한다.
-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의 형태 및 구조가 되도록 한다.
- 손잡이가 달린 쪽에 일정한 여유 공간을 주어 손잡이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열린 출입문으로 인해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공중 이용을 위한 실의 출입문은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며, 점자 및 다국어 표기, 픽토그램 등을 통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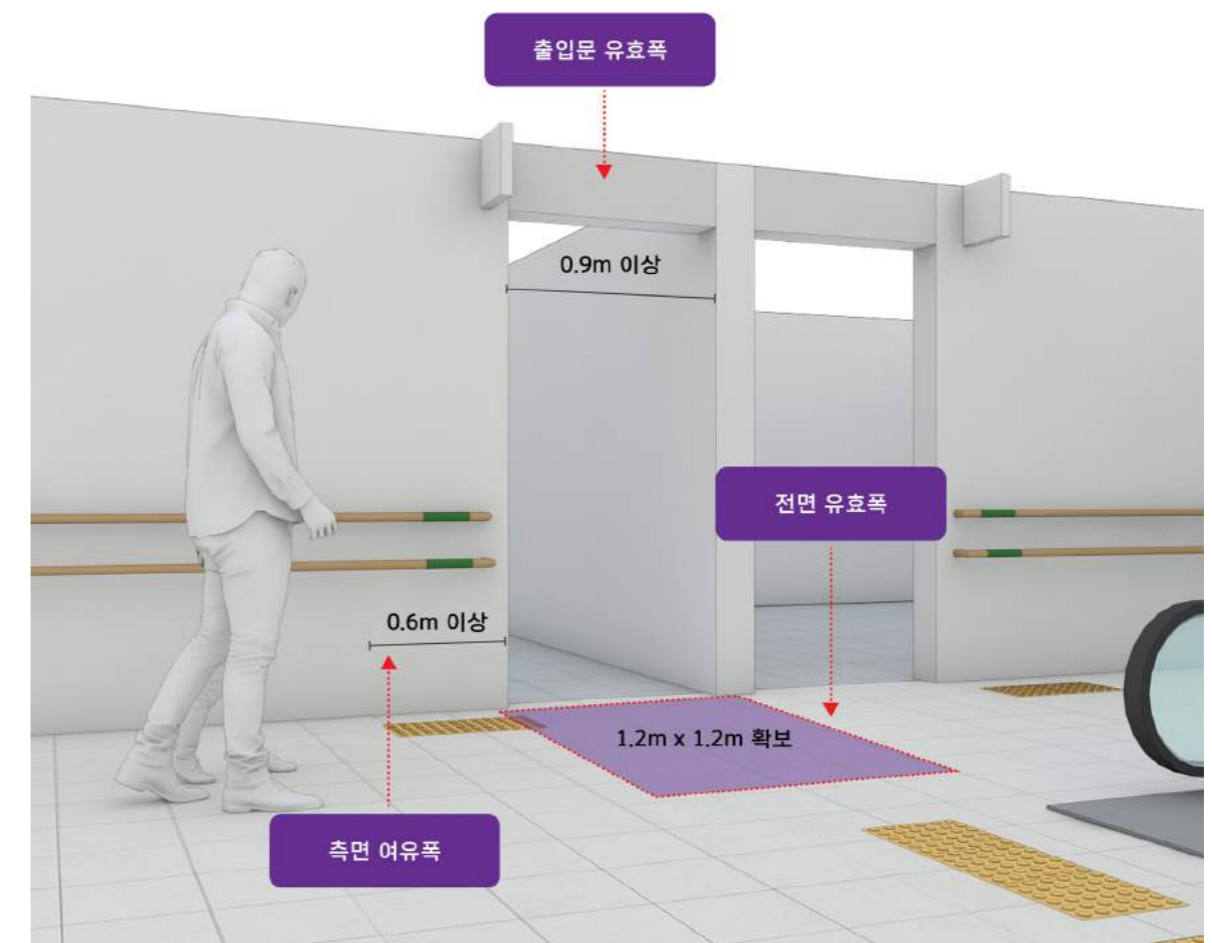
문턱 등의 단차가 없는 구조



출입문 사이에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2.2.2 유효폭

- 유효폭은 유아차나 큰 물건의 운반을 고려하여 0.9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개폐를 위해 문의 전면에는 1.2m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한다.(출입문 개폐 소요 공간 제외)
-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 손잡이와 터치 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측면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큰 폭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커지므로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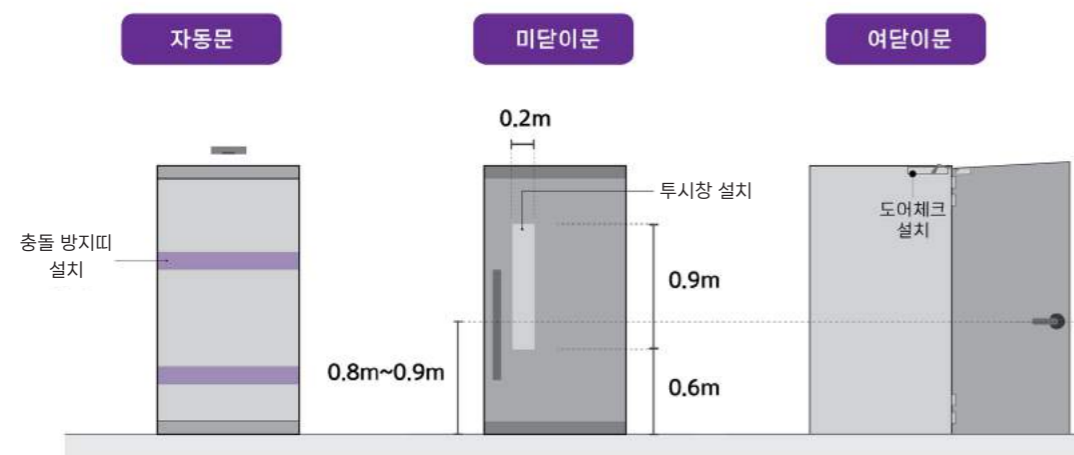


2.2.3 구조 및 형태

- 내부출입문은 회전문 설치를 지양하고,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가급적 자동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고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린 출입문이 동선을 차단하거나 통로로 돌출되어 보행자의 통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전면 유리 출입문이 아닌 경우, 바닥에서부터 높이 0.6m 되는 지점에 폭 0.2m, 높이 0.9m의 투시창 설치를 권장한다.
- 전면 유리 출입문의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해 주의 환기용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인다.

2.2.4 문 손잡이

- 문 손잡이는 손잡이 조작부 중심에서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문 손잡이의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하고, 색상은 문과 대비되게 한다.



2.2.5 유도 및 안내

- 출입구 벽면 1.5m의 높이에 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다국어,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실내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의 복도 손잡이에 실명을 점자표기하고, 하부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돌출형 실명표지판은 바닥에서 높이 2.1m 이상에 설치한다.

안내사인 유효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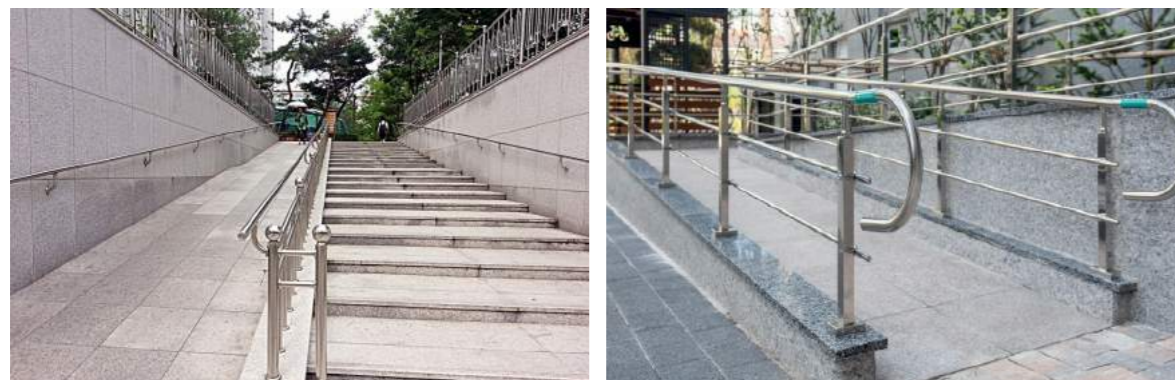


2.3 경사로

2.3.1 기본지침

- 보행자, 유아차, 휠체어 사용자, 짐수레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폭으로 계획한다.
-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한다.
- 수평 이동 경로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축물 구조상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평 이동 동선 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건축물 외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에 햇볕,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차양 시설을 설치한다.
- 실내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대피로로 사용하기에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 대책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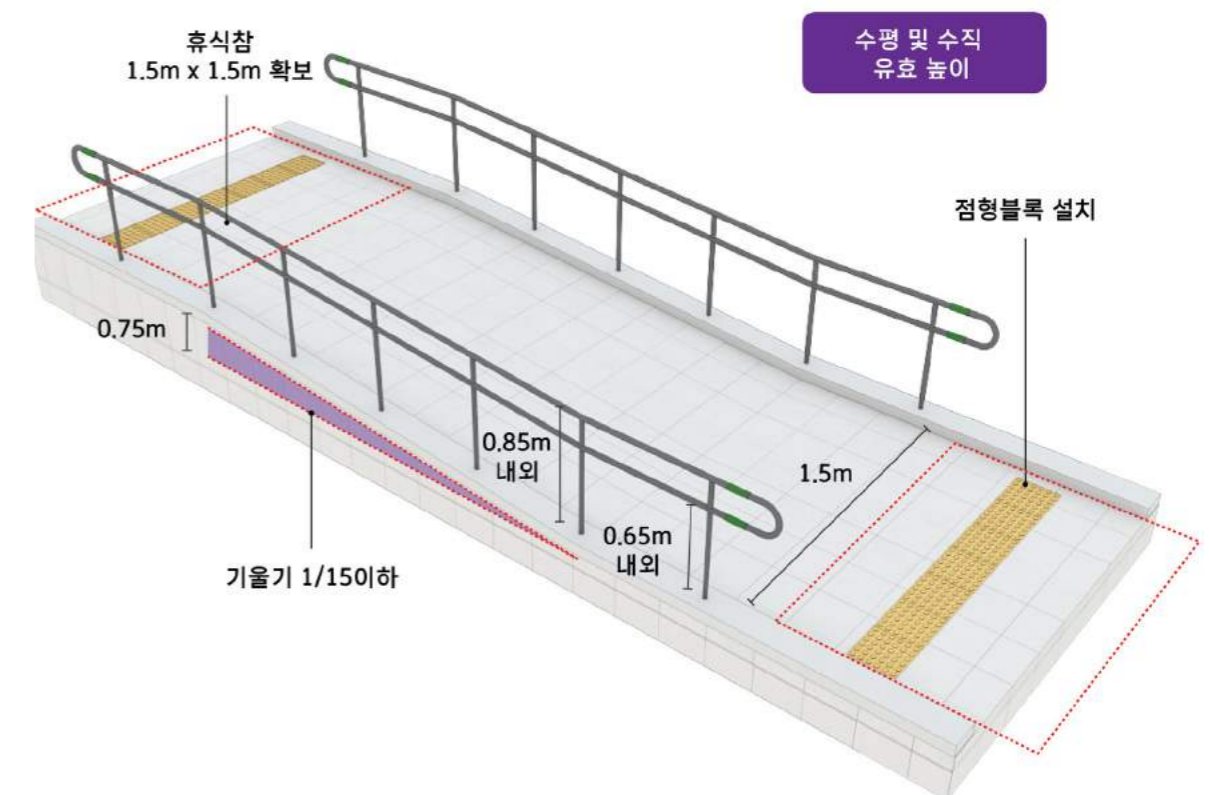
권장사례



상황에 맞게 경사로와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수요를 고려한 여유 있는 폭으로 계획 설치

2.3.2 설계지침

- 경사로의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한 1.5m 이상으로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적 최소 기준인 1.2m까지 적용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휴식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1/15 이하(법적 치수 1/12 이하)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는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손잡이는 2단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 수평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2.4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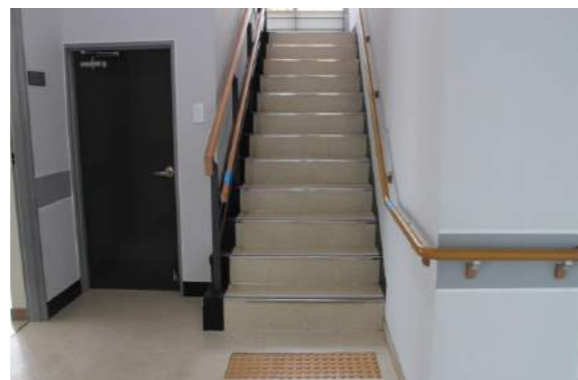
2.4.1 기본지침

-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
- 계단은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불규칙한 첩면의 높이 차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첩면의 치수가 도중에 바뀌지 않게 동일하도록 설치한다.
- 디딤판이나 계단코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계단 손잡이는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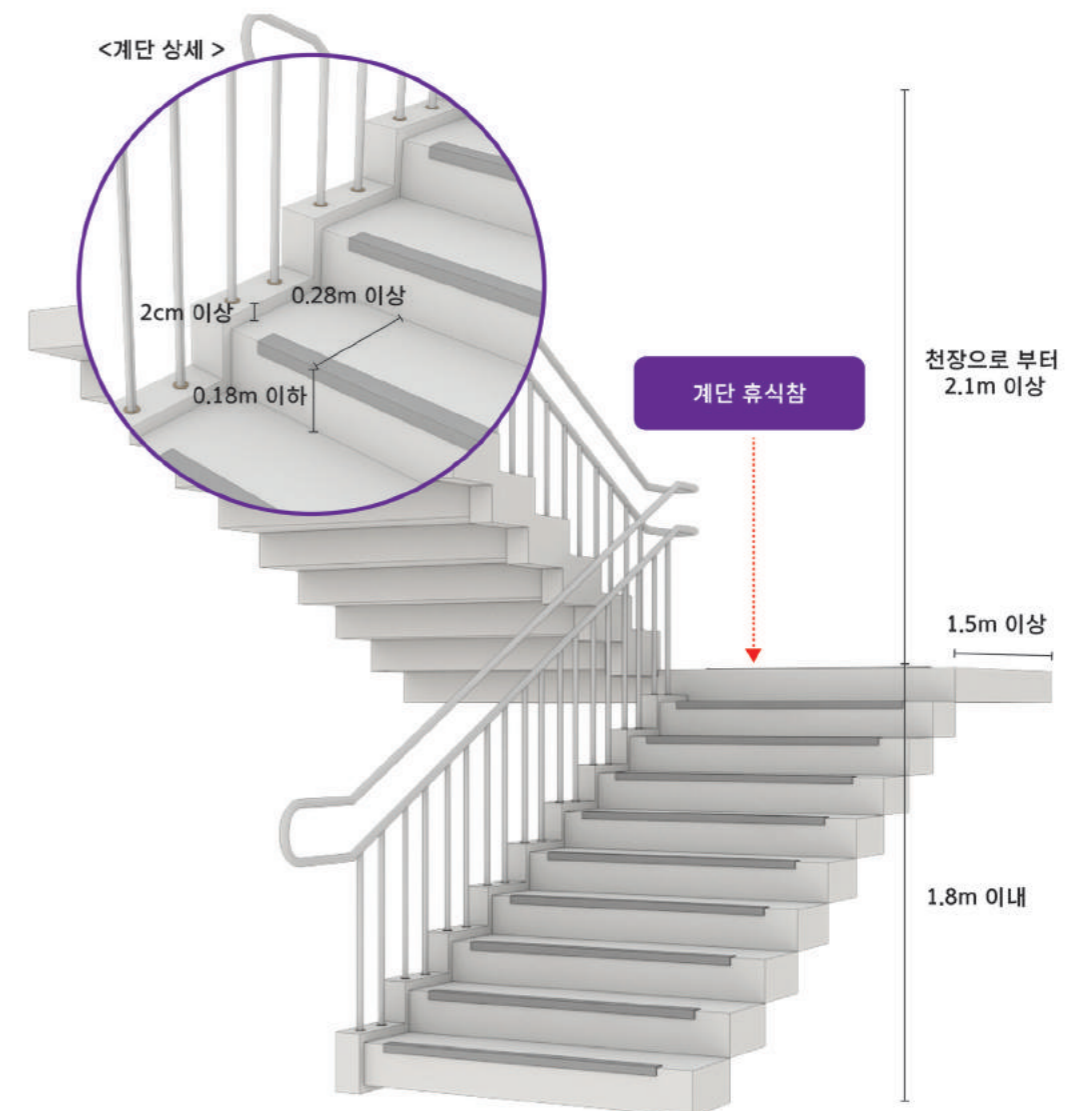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꺾임형 계단



디딤판과 첩면의 치수가 균일하고 인지하기 쉬운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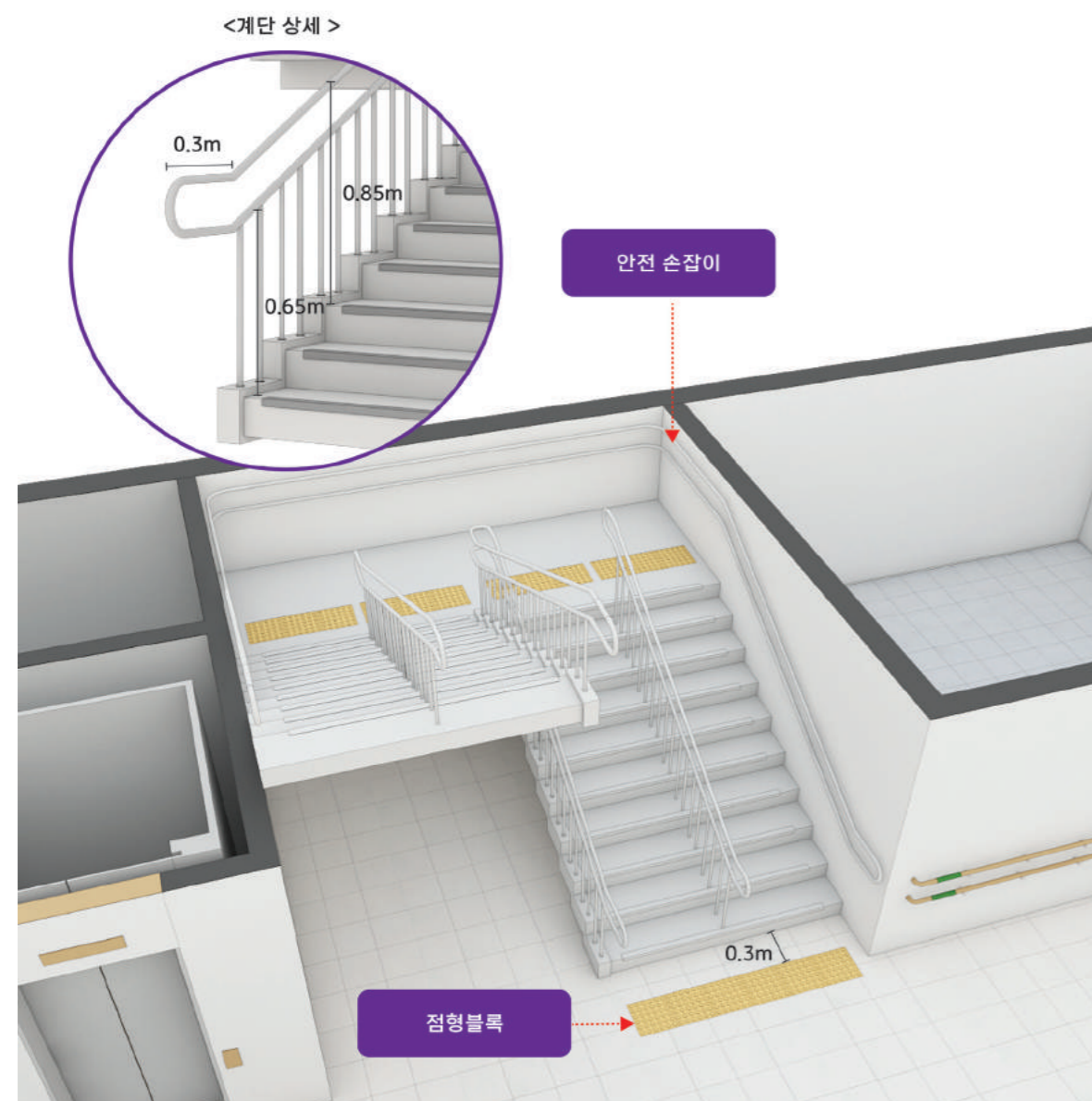
2.4.2 형태 및 유효폭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 휴식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계단 상부는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한다.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한다.
- 계단 및 휴식참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디딤판은 0.28m 이상으로 하고 첩면 높이는 0.18m 이하로 한다.
- 디딤판의 끝부분 첩면의 기울기를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2.4.3 손잡이 및 바닥마감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손잡이는 2단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해야 한다.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5 승강기

2.5.1 기본지침

- 승강기는 상하층의 이동 수단으로서 이용 빈도가 높은 설비이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한다.
- 주출입구 가까운 위치에 접근 가능한 통로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인지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승강기 조작 설비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설치한다.
- 승강기 출입문의 전면공간, 내부공간은 이용객 수를 고려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승강 로비 및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도착 여부,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운행정보 안내를 제공한다.

권장사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위치의 조작 설비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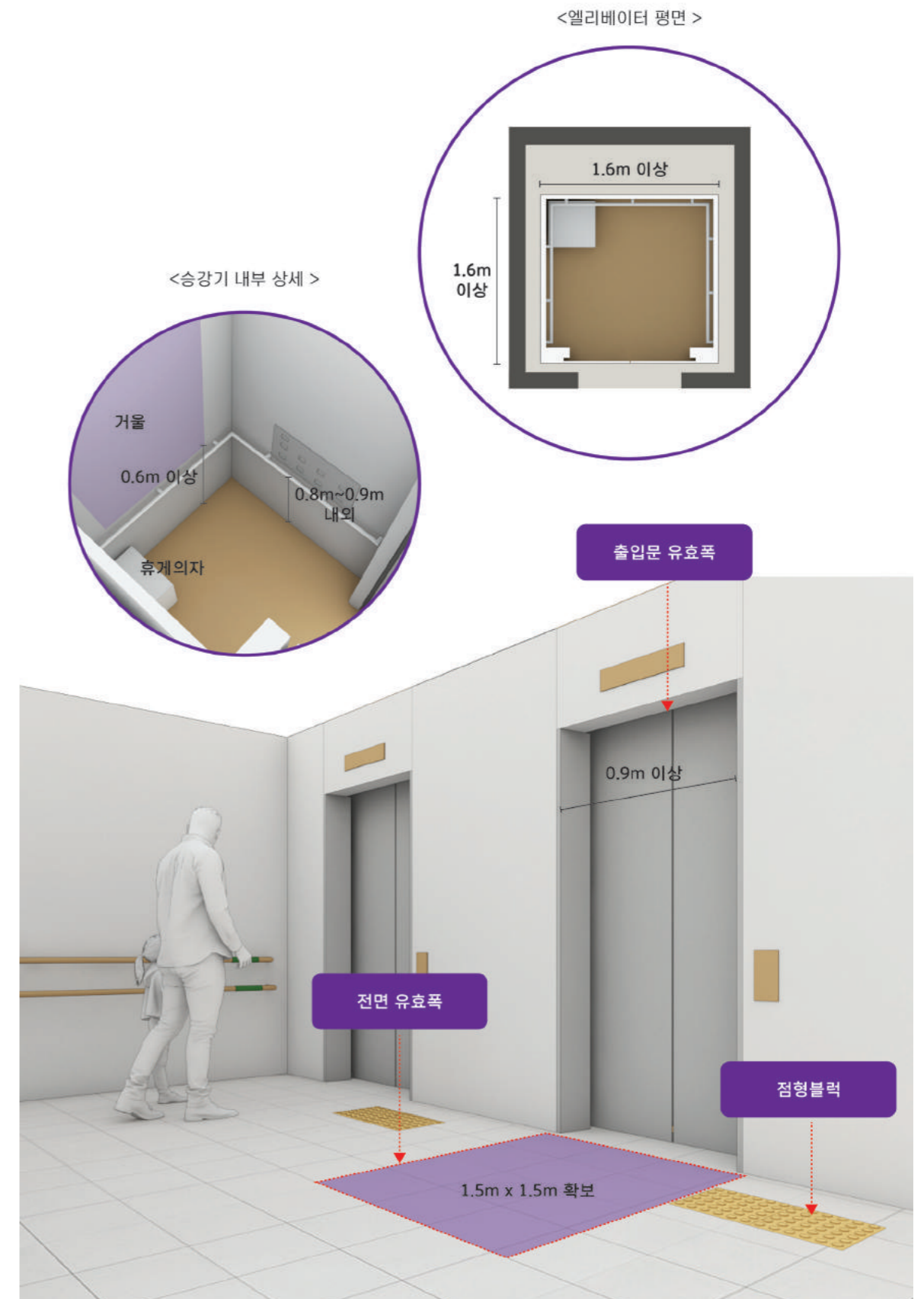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보조 의자

2.5.2 활동공간 및 출입구

- 승강 로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이용자, 특히 유아차나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노인, 임산부 등이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틈새 간격은 휠체어, 목발, 지팡이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2cm 이하로 한다.
-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 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하로 한다.
- 출입문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되열림 장치를 설치한다.
- 각 층 승강기 조작 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5.3 내부 및 안전 시설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폭은 1.6m 이상으로 한다.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수평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m~0.9m 내외, 직경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이격 거리는 5cm 내외로 설치한다.
-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 0.6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한다.
- 이용자들이 층간 이동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휴게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내외부 조도를 150lx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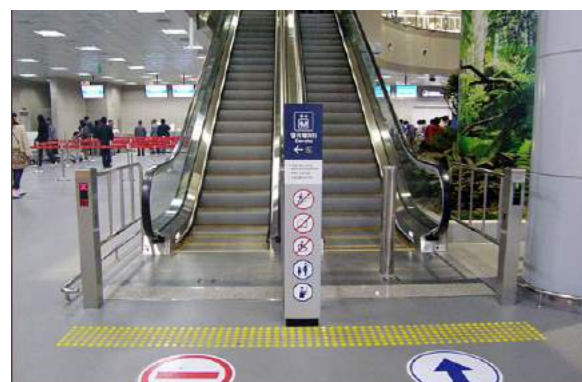


2.6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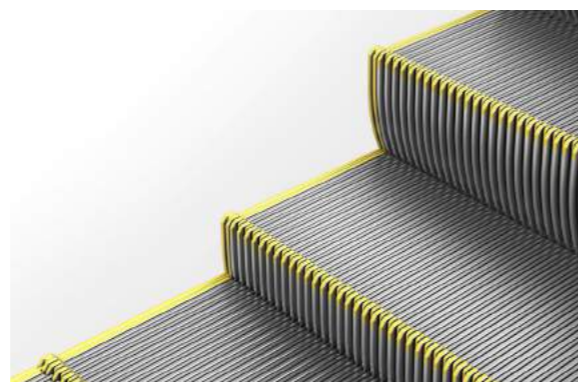
2.6.1 기본지침

- 에스컬레이터는 수직 이동수단으로서 유용한 시설이지만, 일부 사용자(어린이, 시각 장애인, 보행 장애인 등)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병행 설치하여 이용자가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디딤판 폭과 끝부분 처리, 손잡이 형태, 이동속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다르게 설치한다.

권장사례



진입 방향 및 경고 사인물 부착



디딤판 계단코 끝지점 색상 구분

2.7 고정 손잡이

2.7.1 기본지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조건 및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2단 손잡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손잡이는 몸의 균형유지 및 추락방지를 위해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7.2 설계지침

- 2단의 위쪽 손잡이는 바닥에서부터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로 한다.
- 손잡이와 벽, 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래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 손잡이의 단면 형태는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cm~3.8cm로 한다.
- 손잡이의 양쪽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바깥쪽 상부면에는 문자 정보를 병기한다.



건축 3 위생 및 편의 공간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위생 및 편의 공간은 화장실, 수유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위생 및 편의 공간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위생 및 편의 공간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1 화장실

3.1.1 기본지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람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 층마다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구분 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일반화장실 내에 일반 대변기 부스 중 하나를 장애인용 부스로 설치한다.
-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조건으로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배수가 용이하며 항상 청결하고 보행에 안전한 화장실 바닥을 유지해야 한다.
-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고 원활한 공기 순환과 밝기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

권장사례



화장실 출입구 및 다목적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3.1.2 출입구

- 출입문 전면은 문의 개폐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및 회전에 필요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기존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입구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을 설치한다.
- 화장실 내·외부 상호간은 물론,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3 바닥마감

- 화장실의 출입구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 눈으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화장실의 물청소 등 배수를 위한 바닥 구배는 1/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3.1.4 대변기

- 대변기의 좌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범위 내로 한다.
-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성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남녀공용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화장실 내에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 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세정 장치는 손, 팔꿈치 등으로도 작동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점자표기를 병기한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0.7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 쪽 손잡이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며, 손잡이 간격은 0.7m 이내로 한다.
-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래 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0.7m 이내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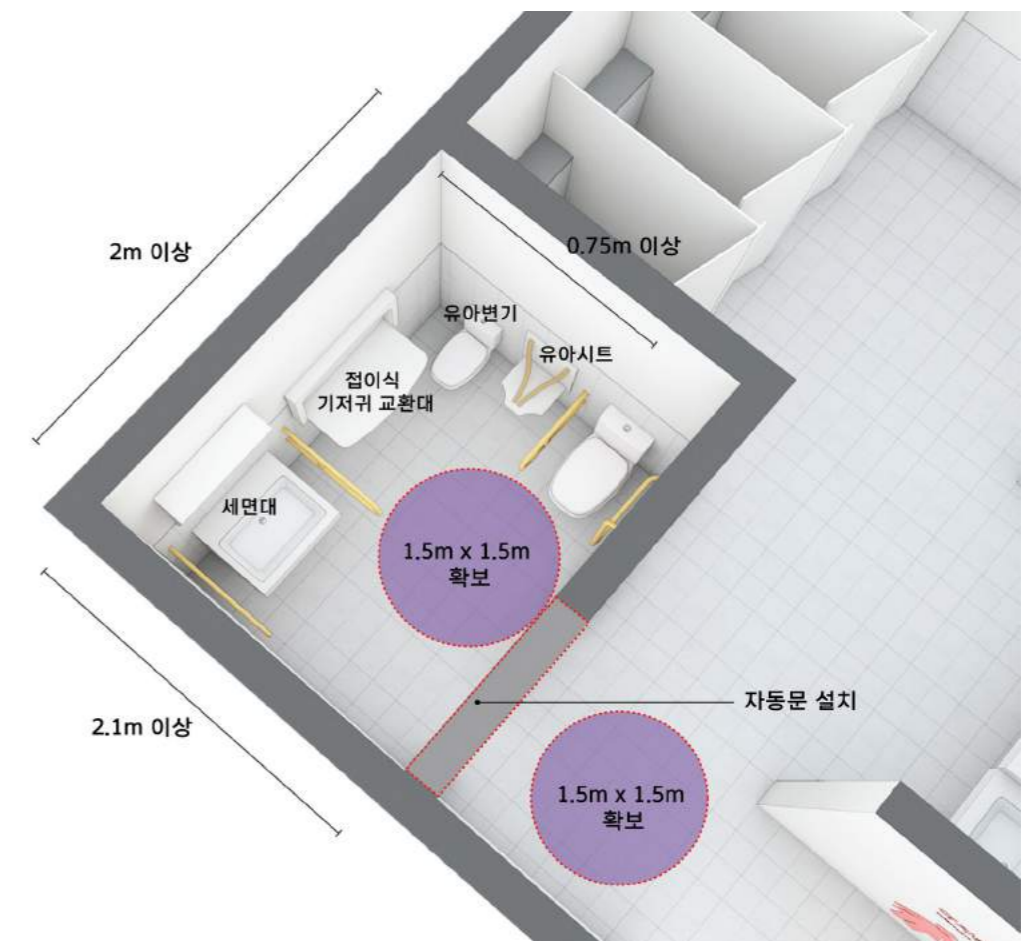
3.1.5 소변기

-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한다.
-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한다.
-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3.1.6 다목적 화장실

- 다목적 화장실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 다목적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형 시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 다목적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다목적 화장실의 출입문 형태는 가급적 자동문을 권장한다.
-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폭 1.5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에는 사용을 삼가라는 안내표시를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3.2 수유실

3.2.1 기본지침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유아차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2.2 설계지침

- 접근로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하고 최소 유효폭은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하거나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는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수유실은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를 주는 공간은 독립된 실 또는 커튼 등을 설치한다.
-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권장사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 공예박물관 수유실



건축 4 안내시설

기본지침

- 본 가이드라인의 안내시설은 안내데스크, 안내 사인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안내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안내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1 안내데스크

4.1.1 기본지침

- 안내데스크는 주출입문에 잘 보이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하여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4.1.2 설계지침

- 안내데스크 상단까지의 높이는 0.7m~0.9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안내데스크의 하부는 휠체어의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시설 용도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이 의자에 앉아 기록 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 0.8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 음성 유도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 사인과 문자 안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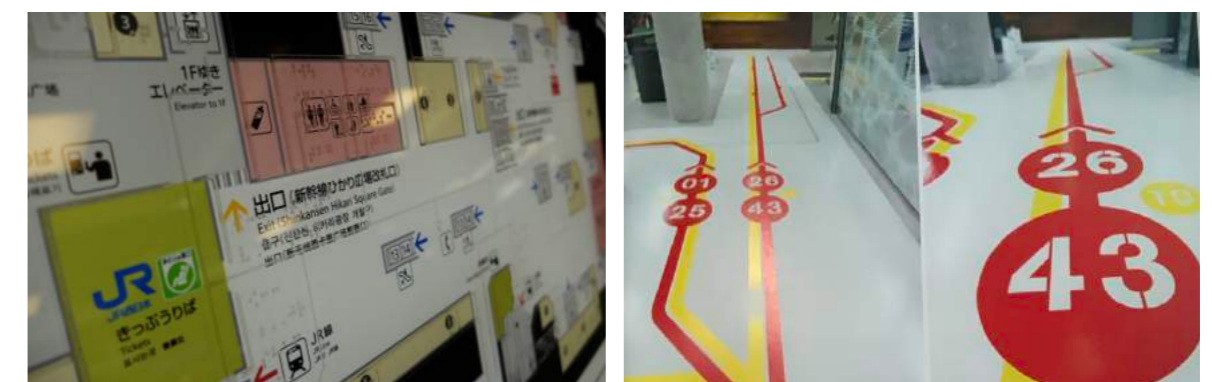


4.2 안내 사인물

4.2.1 기본지침

-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목적지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시설을 안내하는 주요 사인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영어 우선)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는 물론 청각,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문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안내 등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 신호 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요 안내 표지들은 주출입구에서 눈에 잘 띄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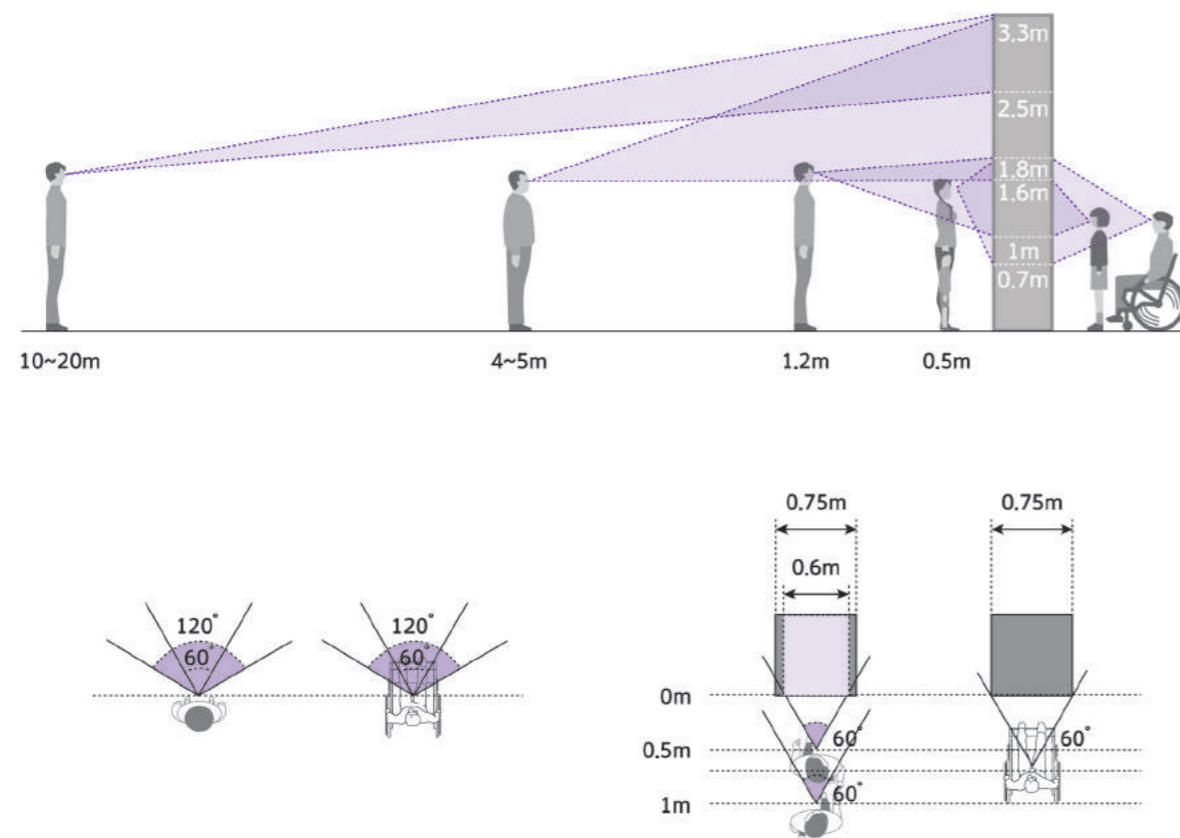
점자를 겹쳐 시각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

안내 정보를 바닥에 표기하여 목표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지

4.2.2 종합 및 방향 안내

- 안내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입구와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에 설치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 안전 공간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글자의 크기 1.5cm 이상 및 색 대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하며, 안내시설까지 보행 유도를 위한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
- 읽기 좋은 글자체, 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서체를 적용한다.

<가독 가능 거리> 설명하는 Legend



4.2.3 점자, 촉지도 안내

-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표시한다.
-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1.2m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곳, 비나 눈,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차양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며 가급적 음성안내 장치와 연계 설치한다.
-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을 추가적으로 병설한다.
-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한다.
-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 실명 등은 반드시 표기한다.
-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한다.

적용 이미지

<촉지도 상세>



5.1 접근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접근공간	보행접근면	1-01. 바닥은 우천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1-02.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 틈에 유아차 등이 빠지지 않아야 하며, 평탄하게 설치한다.		
		1-03. 줄눈 간격은 0.5cm 이하로 한다.		
		1-04. 광장 등 넓은 공간의 바닥 마감 및 재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고려한다.		
		1-05. 측방 여유폭은 0.3m를 확보하고 보행 유효폭 2.0m 이상 확보한다.		
		1-06. 보행 접근로의 수직 유효폭은 지면에서 높이 2.5m 이상 확보한다.		
		1-07.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1-08.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교행 구역을 설치한다.		
		1-09.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된 경우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한다.		
		1-10. 경사로는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1-11. 보행 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도록 한다.		
		1-12. 보차도 분리를 위해 보도 연석(경계석)은 6cm~15cm 내외 높이로 설치한다.		
		1-13. 보도와 연석(경계석)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한다.		
	주차구역	2-0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한다.		
		2-02.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확보한다.		
		2-03. 주차면의 바닥면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한다.		
		2-0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2면 이상 복수로 설치한다.		
		2-05.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2-06. 가족 주차장 구역은 폭 3.0m, 길이 5.0m 이상을 확보한다.		
		2-07. 보행 안전 통로는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연결한다.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접근공간	주차구역	2-08. 보행 안전 통로는 유효폭 1.2m 이상 확보한다.		
		2-09. 보행 안전 통로의 경사로는 1/20 이하로 설치한다.		
		2-10. 보행 안전 통로 경사로 전·후면에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2-11. 안내표지는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연속으로 설치한다.		
		2-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설치한다.		
		2-1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표지의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1.5m로 설치한다.		
	출입구	3-01. 주출입문은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한다.		
		3-02. 자동문이 아닌 경우 문손잡이 높이는 0.8m~0.9m 이내에 설치한다.		
		3-03. 문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3-04. 전면이 투명유리로 된 출입문은 충돌 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부착한다.		
		3-05. 자동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3-06. 자동문과 함께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행 설치한다.		
		3-07. 시설 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호출 벨을 설치한다.		
	의견			

5.2 이동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이동공간	내부	1-01. 복도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1-02.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한다.		
		1-03. 복도 상부는 2.1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한다.		
		1-04. 휠체어 사용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은 바닥면으로부터 0.15m~0.35m의 높이로 킥플레이트를 설치한다.		
		1-05.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각 벽면 0.3m 이상을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한다.		
		1-06.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설치한다.		
		1-07. 호실 안내판은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벽면 상부에 설치한다.		
		1-08. 바닥은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내부 출입문	2-01. 내부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2-02. 출입문의 전면에는 1.2m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한다.		
		2-03. 출입문의 측면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2-04.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2-05.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2-06.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고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한다.		
		2-07. 유리 출입문이 아닌 경우, 바닥에서부터 높이 0.6m 되는 지점에 폭 0.2m, 높이 0.9m의 투시창을 설치한다.		
		2-08. 전면 유리 출입문의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 환기용 표식을 보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2-09. 문 손잡이는 손잡이 조작부 중심에서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설치한다.		
		2-10. 문잡이의 형태는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한다.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이동공간	내부 출입문	2-11. 출입구 벽면 1.5m의 높이에 실명 표지판을 설치한다.		
		2-12. 실명 표지판은 점자, 다국어,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13. 실내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의 복도 손잡이에 실명을 점자 표기한다.		
		2-14. 실내 출입문 하부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15. 돌출형 실명표지판은 바닥에서 높이 2.1m 이상에 설치한다.		
	경사로	3-01. 경사로의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한 1.5m 이상으로 확보한다.		
		3-0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3-03.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휴식참에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3-04. 경사로의 기울기는 1/15 이하로 설치한다.		
		3-05.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3-06.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3-07.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경사로 손잡이는 2단으로 설치한다.		
		3-08. 2단 손잡이는 위쪽은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3-09. 수평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계단	4-01.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4-02. 계단 상부는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한다.		
		4-03. 계단의 측면 난간 하부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4-04. 계단 및 휴식참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5.2 이동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이동공간	계단	4-05. 디딤판의 끝부분 철평의 기울기는 60°이상으로 한다.		
		4-06.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되지 않게 한다.		
		4-07.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경사로 손잡이는 2단으로 설치한다.		
		4-08. 2단 손잡이는 위쪽은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4-09.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4-10.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한다.		
		4-11.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승강기	5-01.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접근 가능한 통로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5-02. 승강 로비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5-03. 노인, 임산부 등이 잠시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04.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5-05.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도록 한다.		
		5-06. 승강기 바닥 틈새 간격은 휠체어, 목발 등 이용자를 고려하여 2cm 이하로 한다.		
		5-07. 개폐 장치의 감지 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하로 한다.		
		5-08. 승강기 조작 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5-09.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 폭은 1.6m 이상으로 한다.		
		5-10.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5-11. 수평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m~0.9m 내외로 한다.		
		5-12. 손잡이 직경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이격 거리는 5cm 내외로 한다.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이동공간	승강기	5-13.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승강기 후면 0.6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한다.		
		5-14. 승강기 내부에 휴게 의자 등을 설치한다.		
		5-15. 내외부 조도를 150lx 이상 확보한다.		
		5-16.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에스컬레이터	6-1. 에스컬레이터는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6-2. 에스컬레이터 가까운 거리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병행 설치한다.		
		6-3. 에스컬레이터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고정손잡이	7-1.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고정 손잡이는 2단으로 설치한다.		
		7-2. 2단 손잡이는 위쪽은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한다.		
		7-3.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로 한다.		
		7-4. 손잡이와 벽, 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래 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7-5. 손잡이의 단면 형태는 원형이고, 직경은 3.2cm~3.8cm로 한다.		
		7-6. 손잡이의 양쪽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의견			

5.3 위생 및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위생 및 편의공간	화장실	1-01. 출입문 전면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1-02. 화장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입구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1-03.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한다.		
		1-04. 화장실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을 설치한다.		
		1-05.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6.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도록 한다.		
		1-07.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 0.5cm 이하의 줄 눈으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1-08. 배수를 위한 바닥 구배는 1/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1-09.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범위내로 한다.		
		1-10. 화장실 내에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1-11. 수평 및 수직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0.7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한다.		
		1-12. 수평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한다.		
		1-13.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1-14.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1-15.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1-16.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내로 한다.		
		1-17. 수평 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한다.		
		1-18. 수평 손잡이의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한다.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위생 및 편의공간	화장실	1-19.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이내로 한다.		
		1-20. 수직 손잡이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한다.		
		1-21. 다목적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한다.		
		1-22.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자형 시각 설비를 설치한다.		
		1-23. 다목적 화장실 내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1-24. 다목적 화장실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1-25.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의 전면 공간은 폭 1.5m 이상 확보한다.		
		1-26. 대변기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1-27.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수유실	2-01. 수유실의 접근로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한다.		
		2-02. 수유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나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2-03.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2-04.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는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한다.		
		2-05. 수유실은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를 주는 공간은 독립된 실 또는 커튼 등을 설치한다.		
		2-06.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은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의견			

5.4 안내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음
안내시설	안내데스크	1-01. 안내데스크 상단까지의 높이는 0.7m~0.9m 이내로 한다.			
		1-02. 안내 데스크의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한다.			
		1-03. 어린이와 노인이 앉아 기록 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 0.8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1-04.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 음성 유도 장치도 함께 설치한다.			
		1-05.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 사인과 문자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사인물	2-01. 종합안내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02. 안내판 중심부가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2-03. 글자의 크기를 1.5cm 이상으로 하고 색 대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04.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2-05.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2-06. 시각장애인 이용을 고려하여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2-07.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은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08.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2-09.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을 설치한다.			
		2-10.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한다.			
		2-11.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 실명 등을 표기한다.			
		2-12.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한다.			
의견					

친수공간 Waterfront Space

1 관광시설 138

1-1 수변 보행로	140
1-2 전망대	142
1-3 기념품 판매소	144

2 방파제 146

2-1 추락 방지 시설	148
2-2 대피시설	151
2-3 구난 시설	152

3 여객터미널 154

3-1 로비 공간	156
3-2 연결 램프	159

친수 1 관광시설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의 관광시설은 수변 보행로, 전망대 기념품 판매소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관광시설을 개설하거나 정비를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관광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 수변 보행로

1.1.1 기본지침

- 주요 관광지에 인접한 수변 보행로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로의 출입구부터 주요 시설물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휴게시설까지 하나의 연속된 보행 안전 구역으로써, 단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가급적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급격한 경사로,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길 등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사전 정보 제공과 함께 우회 정보를 제시 하여야 한다.
- 보행로에는 단차를 제거하여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광지인 만큼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안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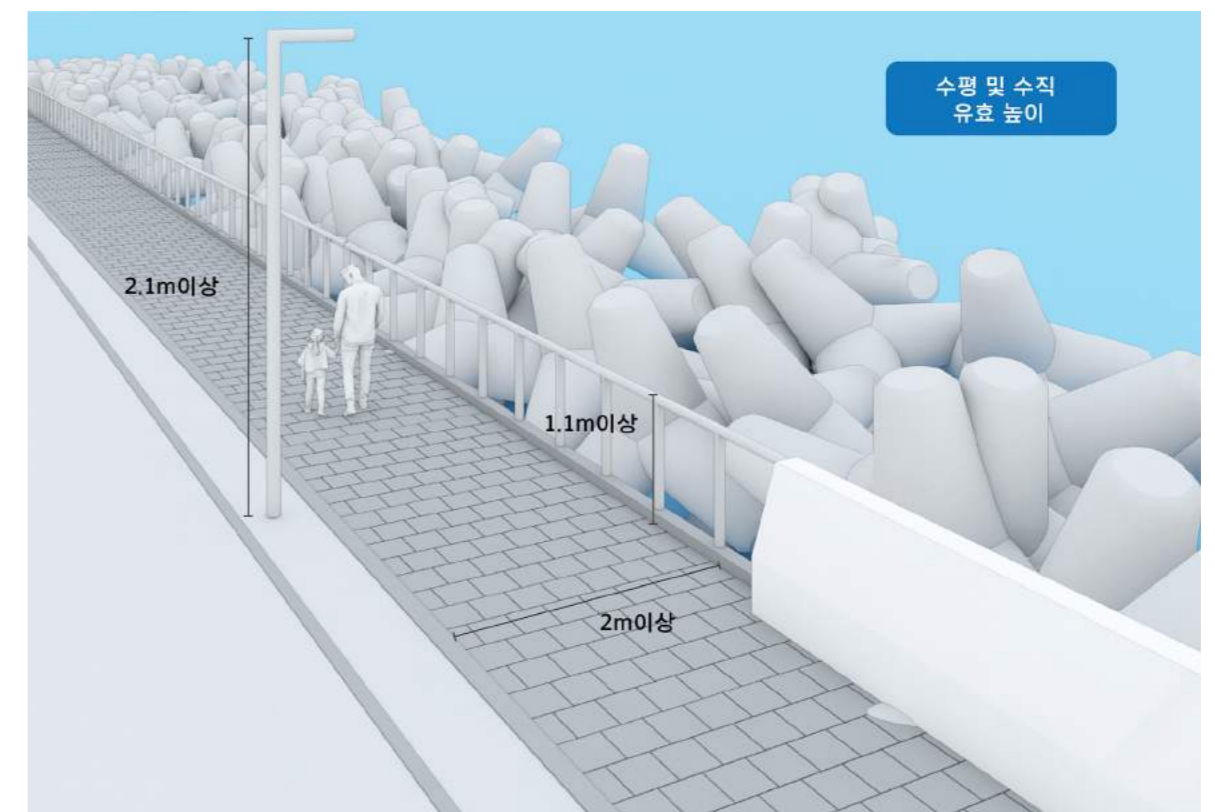
누구나 불편함이 없는 수변 보행로



보행로 단차를 제거한 디자인 계획

1.1.2 설계지침

- 침수를 고려하여 보행로 주변으로 비고정형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전기 관련 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 보행로에 시설물 설치시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수상 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 수변 보행로 내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 구역에는 추락 방지 시설(안전 난간)을 1.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재료나 마감 방법을 적용한다.
- 휠체어 또는 유아차 사용자 상호간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 마다 폭 1.5m 이상, 길이 2.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아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 보행 구간에는 2.1m 이상의 유효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1.2 전망대

1.2.1 기본지침

- 장해 유무에 관계없이 관광 향유권을 강화하여 모든 관광객에게 차별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전망대 시설은 특히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고 동행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하되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한다.
- 전망대 시설은 접근로의 바닥 노면은 단차가 없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기존의 주요 관광지 전망대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이 참여 가능한 형태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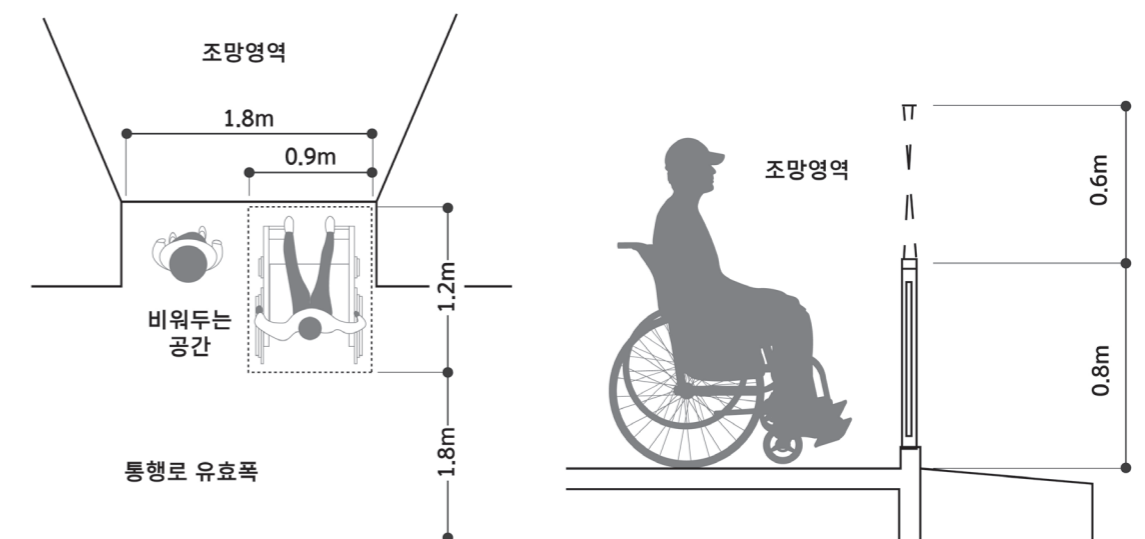
모든 관광객들이 차별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1.2.2 설계지침

- 관광지 내 전망대 시설은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노면은 단차가 없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전망대 주변 공간은 안전하고, 유아차를 두거나 휠체어의 접근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1.5m 이상의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망 공간이 보행로에 인접한 경우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전망대는 눈높이가 낮은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망대 난간이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할 경우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망 가능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 주요 전망대 지점의 난간 일부를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 낮은 눈높이에서 전망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시야가 가려지는 형태의 난간은 바닥에서 0.8m로 설치하고 최소 조망 영역 0.6m를 유리 난간 등으로 설치하여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1.3 기념품 판매소

1.3.1 기본지침

- 기념품 판매 공간의 구성은 이용자가 출입구로 입장하여 이동과 접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 공간 시설의 확대, 다국어 표기, 음성 지원과 점자 서비스 등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 등의 신체적 특징이나 이동환경을 고려하여 공간구조, 시설물 배치, 크기, 형태 등을 결정한다.
- 바닥의 마감 재료는 미끄럽지 않고, 요철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장사례



자동문 설치와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



신체적 특징이나 이동환경을 고려하여 구조 결정

1.3.2 설계지침

- 출입문은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를 배려하여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걸음이 느린 보행 약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출입구 바닥은 단차 없이 조성하여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가 차별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행 유효폭은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4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수동 출입문의 0.3m 전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판매공간 내 이동동선은 휠체어 및 유모차의 이동, 교행, 회전을 고려하여 유효폭 1.2m~1.5m 이상을 확보한다.
-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를 배려하여 카운터 높이는 2단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카운터 전면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소 1.4x1.4m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상품진열대는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근거리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열대의 높이와 하부 공간 폭을 계획한다.
- 벽부형 진열대는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눈높이 및 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높이 0.4m~1.2m 이내에 상품을 진열한다



친수 2 방파제

기본지침

- 본 가이드라인의 방파제는 추락 방지 시설, 대피시설, 구난 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방파제를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방파제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1 추락 방지 시설

2.1.1 기본지침

- 방파제 이용자에게 안전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로의 추락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 방파제의 항 외측과 항 내측의 양쪽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방파제 이용자를 위한 난간, 경사로 등 안전시설을 배치한다.
- 추락 방지 시설은 항만시설물 인근지역에서 주위를 볼 때의 경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만시설물 및 주위 배경과 조화되는 높이, 형상, 색상을 갖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권장사례



이용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로 설치



혼합형 추락 방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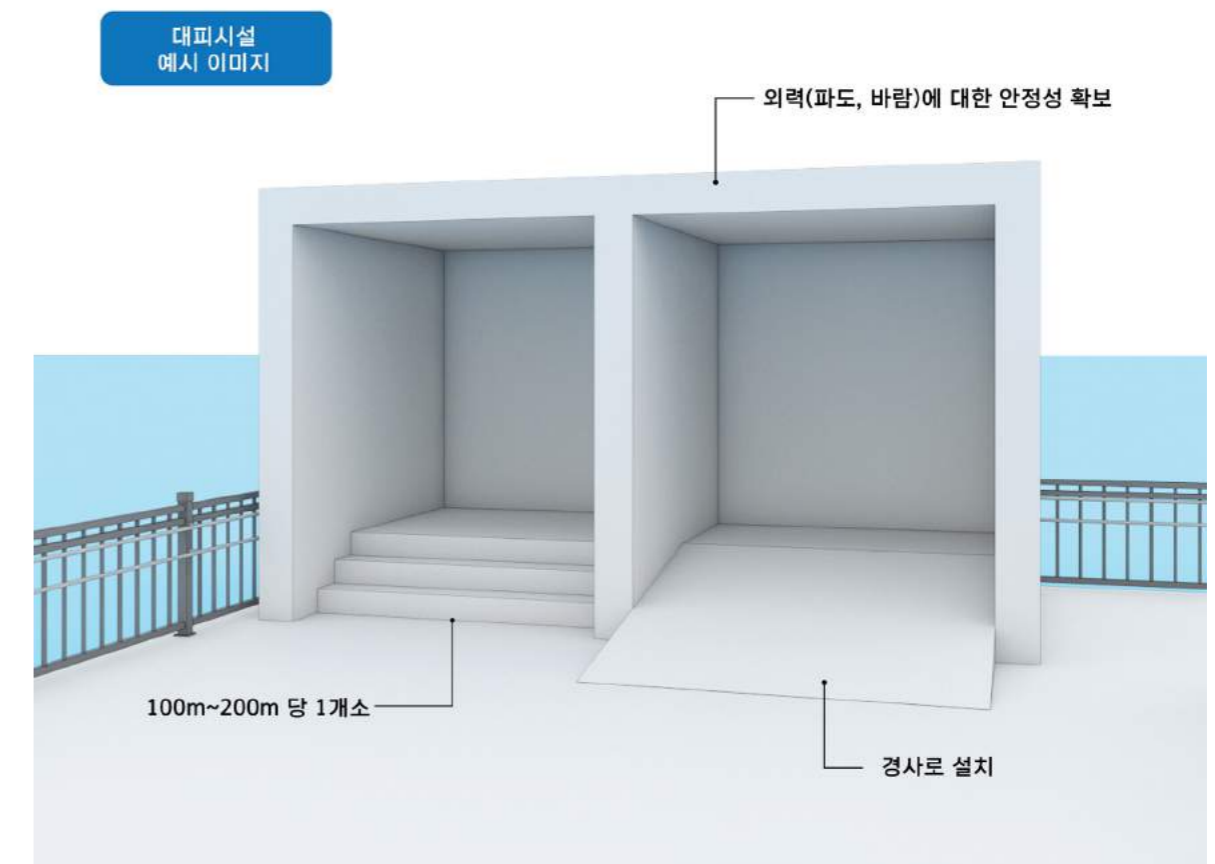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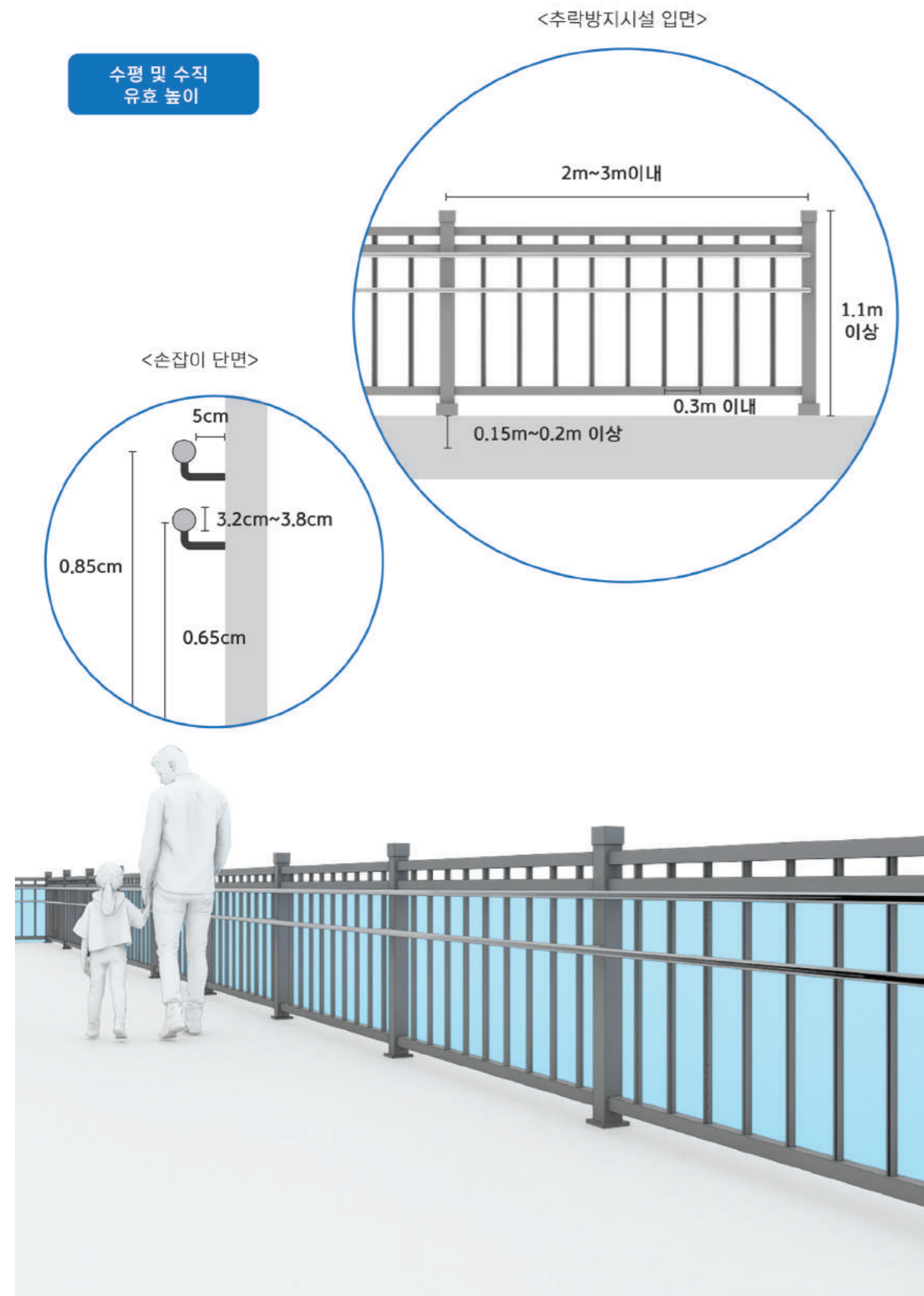
2.1.2 설계지침

- 추락 방지 시설의 종류로는 벽형, 울타리형, 혼합형 등이 있다.
- 난간 형태는 지역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로 설치한다.
- 추락 방지 시설로 사용하는 난간의 높이는 1.1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난간 기둥의 중심 간격은 2~3m 이내로 설치한다.
- 난간의 중간 가로대 또는 세로대의 내부간격(중심간격)은 이용자의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0.3m로 설치한다.
- 난간의 매설 깊이는 자연조건, 이용자층,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0.15~0.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2단의 위쪽 손잡이는 바닥에서부터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하고 손잡이의 직경은 3.2cm~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0m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외부의 힘을 과도하게 받는 디자인은 지양 하도록 한다.

2.2 대피시설

2.2.1 설계지침

- 돌풍이나 고파랑이 급하게 내습하는 경우에 육지로의 긴급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긴급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연장이 긴 방파제의 경우 100m~200m에 1개소를 설치한다.
- 피난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대피하고 있는 사람이 파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함과 동시에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3 구난 시설

2.3.1 기본지침

- 구난시설의 종류에는 구명환(튜브), 사다리, 로프, 구명보트와 구명용 계단 등이 있다.
- 방파제에서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사다리, 구명환 등 구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구명 사다리의 배치는 추락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 구명 로프는 사고자가 로프를 잡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 낙시터 등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는 사고시에 원활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환을 배치할 수 있다.

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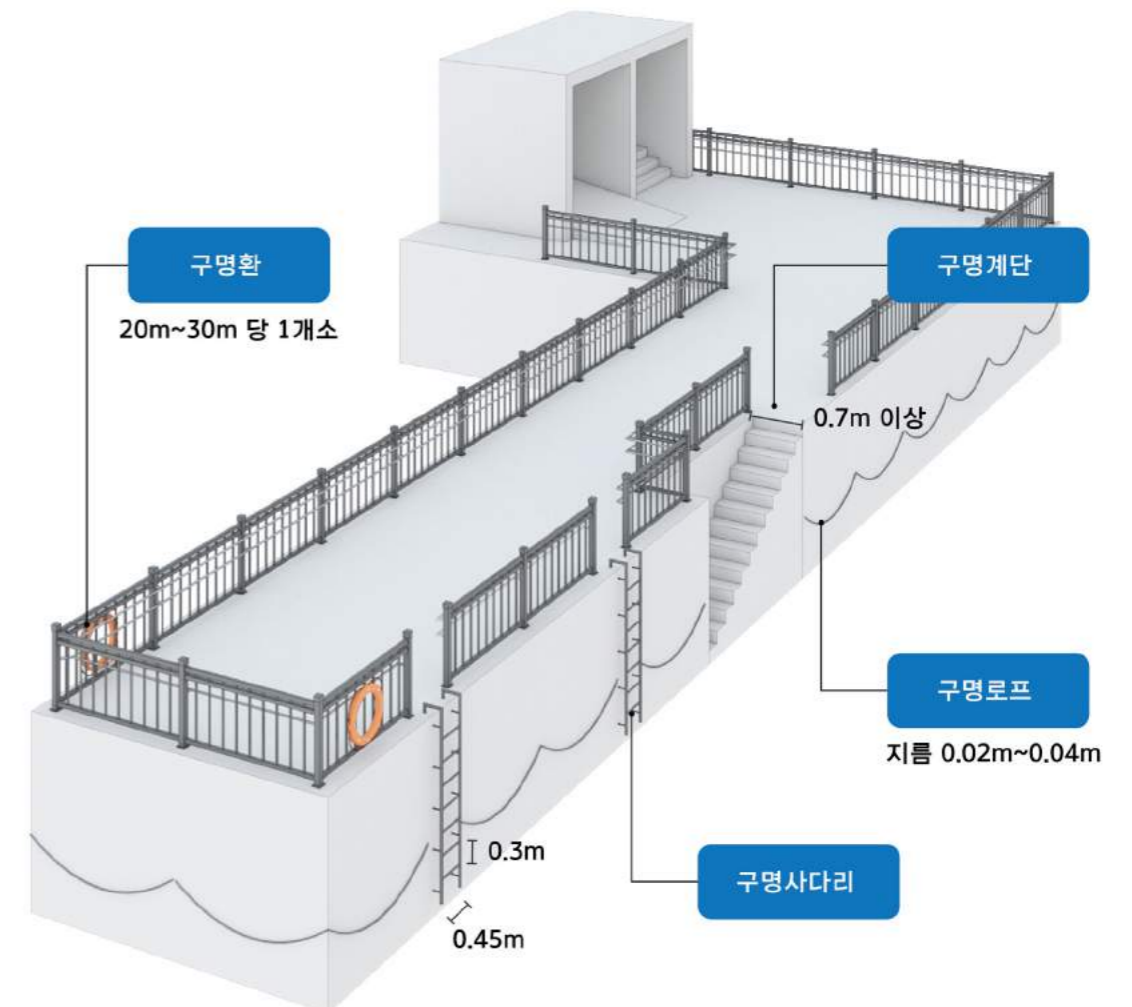
사고를 대비하여 구명 시설을 설치



구명 장비 보관함

2.3.2 설계지침

- 구명 사다리의 형태는 폭 0.45m, 간격 0.3m로 설치한다.
- 구명 계단은 수면 아래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하단의 높이를 0.2m, 길이는 0.3m를 표준으로 하고 폭은 0.7m 이상으로 한다.
- 구명 사다리와 구명 계단 둘 중 한가지 이상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한다.
- 구명 로프의 지름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0.02m~0.04m로 하고 구조물 주위에 길게 배치하도록 한다.
- 구명 로프는 수면 부근의 손이 닿는 범위 내로 설치 한다.
- 친수시설이나 낙시터 등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는 사고시에 원활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환을 배치할 수 있다.
- 구명환의 배치 간격은 20m~30m에 1개소를 설치한다.



친수 3 여객터미널

기본지침

- 본 가이드라인의 여객터미널은 로비 공간, 연결 램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신규로 여객터미널을 개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의 기존 여객터미널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1 로비 공간

3.1.1 기본지침

- 로비 공간은 모든 유형의 이용자 동선이 모이는 중심 공간으로서 이용자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얻을 수 있고, 목적지까지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 등의 위치는 출입구에서 쉽게 인지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로비 공간은 부피가 크거나 높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모든 공간이 조망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여객터미널을 방문한 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으로서 안내 및 매표, 대기, 이동 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 누구나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장사례



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소

3.1.2 설계지침

- 로비 공간의 바닥 마감재는 이용자가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흡음성이 낮아 발소리나 소음이 확산되거나 반사도가 높은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 등 모든 유형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카운터 높이를 2단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를 위한 카운터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 이하로 계획하고, 하부공간은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소 1.5×1.5m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정보안내기는 키오스크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수어 안내,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화면 확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는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방향 안내 사인은 이동 공간 내의 주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기둥과 바닥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적지 정보 및 화살표를 이용한 안내 사인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2 연결 램프

3.2.1 설계지침

- 연결 램프는 휠체어 이용자 등을 배려하여 연결 브릿지 혹은 탑승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상시 인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결 램프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양측에 난간과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 연결 램프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시설물을 설치한다.
- 연결 램프의 마감재는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은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재료나 마감 방법을 적용하고 연결부 사이에 단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권장사례



연결부 사이에 단차가 최소화된 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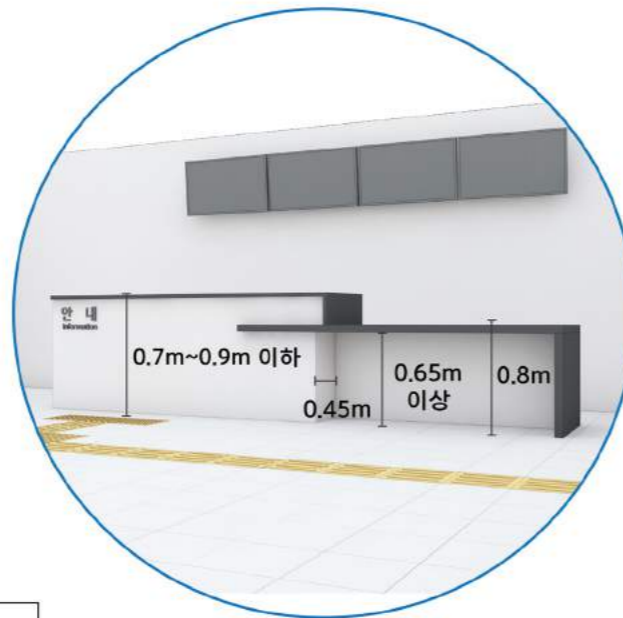


연결 램프 상부에 지붕 시설물을 설치

<정보안내기 상세>



<안내데스크 상세>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

2단 안내데스크



4.1 관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관광시설	수변보행로	1-01. 침수를 고려 비고정형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 하고, 전기 관련 설비의 노출이 없도록 한다.		
		1-02. 보행로 시설물 설치 시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1-03. 수상 사고를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1-04. 추락 및 낙상 사고 발생 위험 구역에 추락방지시설을 1.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1-05.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나 마감 방법을 적용한다.		
		1-06. 수변 보행로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한다.		
		1-07.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 30m 이내마다 폭 1.5m 이상, 길이 2.5m 이상인 수평 교행 구역을 설치한다.		
		1-08. 경사로는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1-09. 보행 구간에는 2.1m 이상의 유효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전망대	2-01. 관광지 내 전망대 시설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2-02. 접근로의 노면은 단차가 없고 평탄하게 한다.		
		2-03. 전망대 주변 공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2-04. 전망 공간이 보행로에 인접한 경우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격한다.		
		2-05. 전망대는 눈높이가 낮은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2-06. 시야가 가려지는 형태의 난간은 바닥에서 0.8m로 설치하고 최소 조망 영역 0.6m를 유리 난간 등으로 설치하여 조망권을 확보한다.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관광시설	기념품판매소	3-01.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3-02. 출입구 바닥은 단차 없이 조성한다.		
		3-03. 출입구의 통행 유효폭은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4m 이상 확보한다.		
		3-04. 출입문의 0.3m 전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3-05. 판매공간 내 이동 동선은 유효폭 1.2m~1.5m 이상을 확보한다.		
		3-06.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카운터 높이는 2단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3-07. 카운터 전면에는 최소 1.4m×1.4m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3-08. 상품진열대는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하부 공간 폭을 계획한다.		
		3-09. 벽부형 진열대는 바닥에서 높이 0.4m~1.2m 이내에 상품을 진열한다.		
	의견			

4.2 방파제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항만 시설	추락 방지 시설	1-01. 추락 방지 시설로 사용하는 난간의 높이는 1.1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1-02. 난간 기둥의 중심 간격은 2.0m~3.0m 이내로 설치한다.		
		1-03. 난간의 중간 가로대 또는 세로대의 내부 간격(중심간격)은 0.3m로 설치한다.		
		1-04. 사고 발생의 위험 구역에는 추락 방지 시설을 1.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1-05. 난간의 매설 깊이는 0.15m~0.2m 이상으로 설치한다.		
		1-06.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연속으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1-07. 난간의 2단 손잡이는 위쪽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 아래쪽은 0.65m로 설치하고 손잡이 직경은 3.2cm~3.8cm 이하로 한다.		
		1-08.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대피 시설	2-01. 연장이 긴 방파제의 경우 100m~200m에 1개소를 설치한다.		
		2-02. 사람이 파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2-03.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구난 시설	3-01. 구명 사다리의 형태는 폭 0.45m, 간격 0.3m로 설치한다.		
		3-02. 구명 계단은 수면 아래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폭은 0.7m 이상으로 설치한다.		
		3-03. 구명 사다리와 구명 계단 둘 중 한가지 이상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3-04. 구명 로프의 지름은 0.02m~0.04m로 하고 구조물 주위로 길게 배치한다.		
		3-05. 구명 로프는 수면 부근의 손이 닿는 범위 내로 설치한다.		
		3-06. 구명환의 배치 간격은 20m~30m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의견				

4.3 여객터미널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여객터미널	로비 공간	1-01. 안내 데스크는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카운터 높이를 2단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1-02. 카운터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 이하로 계획한다.		
		1-03. 카운터의 하부 공간은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1-04.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최소 1.5×1.5m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1-05. 정보안내기는 키오스크형으로 점자 키패드와 음성 안내, 수어 안내, 화면 확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06.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연결 램프	2-01. 연결 램프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한다.		
		2-02. 연결 램프 양측에 난간과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2-03. 연결 램프 상부에는 그늘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붕 시설물을 설치한다.		
		2-04. 마감재는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2-05. 바닥은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재료나 마감 방법을 적용 한다.		
		2-06. 바닥 연결부 사이에 단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의견			

UNIVERSAL DESIGN MASTER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고
어디든 이어지는 부산

CONTENTS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008
1.2	계획의 목적 및 방향	009
1.3	계획의 내용 및 수행	011

2.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018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031
2.3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현황	034

3. 현황 및 조사 분석

3.1	부산광역시 일반 현황	058
3.2	관련 법규 현황	068
3.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072
3.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074
3.5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084
3.6	종합분석	098

4.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4.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102
4.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106
4.3	유니버설디자인 육성종합계획	109
4.4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110

5. 유니버설디자인 전략별 실행방안

5.1	단계별 추진 계획	114
5.2	UD 기반 환경 조성	116
5.3	UD 공간 환경 조성	129
5.4	UD 이동 환경 조성	137
5.5	UD 서비스 환경 조성	145

6. 시범사업 추진계획

6.1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150
6.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52

7. 결론

7.1	정책적 시사점	1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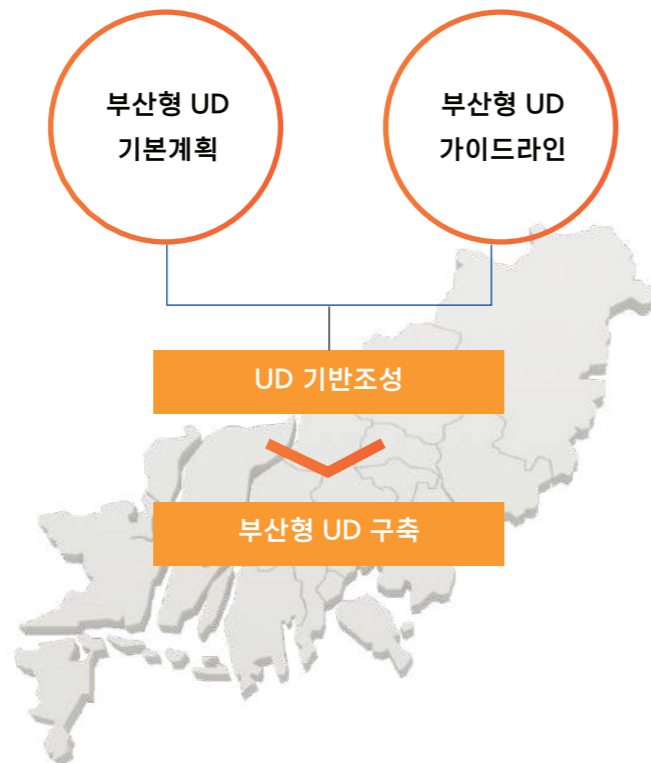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008
1.2	계획의 목적 및 방향	009
1.3	계획의 내용 및 수행	011

1.1 계획의 배경

1.1.1 계획수립의 근거

- 2020년 6월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시행하여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함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가이드라인의 수립)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16개 구·군)

② 시간적 범위 : 2024 ~ 2028

③ 내용적 범위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기본 방향 정립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및 관리방안 제시

1.2 계획의 목적 및 방향

1.2.1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가이드라인의 수립)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계획의 목적

- 부산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지속가능한 표준 모델 마련, 장·단기 종합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
-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 조성

01

체계적인 계획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02

접근성과 유용성 높은 사용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03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04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1.2.2 계획의 기본방향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

- 공공환경과 공공공간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을 제시
- 상위법령을 지키면서 모두가 접근이 유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 누구나 이용하고 참여하여 만족감을 높여주는 사회복지를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과 역할 정립

- 부산시 각 부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현황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산발적이고 상이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현황 조사
- 법령 및 주무부서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립하고 범위를 규정
- 정부 부처 및 기초자치단체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과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관리되는 현황을 비교·분석
- 부산광역시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을 사전 진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체제 개선안 마련

- 신규시설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 충족 정도 파악 및 적용 방안 검토
- 수집 및 분석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 관리방안 제시
- 협력적 행정 운영체제의 구축방안 및 효율적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와 수행 주체별 역할 제시
- 시군구 간의 체계적인 상호 법령 검토 및 운영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체제의 협업 시스템 개편 제안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행정의 효율화와 지역별 다양성 등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유도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의 개발 및 유형화

- 관련 제도(인·허가 등) 연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개선방안 등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실행방안 제안 : 관광시설(숙박시설, 음식점, 쇼핑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 등) 및 교통시설(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

■ 유니버설디자인의 질적 향상 및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단·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 방안 수립
-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민간 확산을 위한 시책(문화적 접근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에 대한 홍보 계획 및 사후 활용방안을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회의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확산 프로그램

1.3 계획의 내용 및 수행

1.3.1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15개 구 / 1개 군)



	구·군	면적(km ²)	인구수	인구수 구성	세대수	읍·면·동
1	중구	2.83	42,609	1.3	23,925	9
2	서구	13.95	107,143	3.2	52,960	13
3	동구	9.86	89,712	2.6	46,362	12
4	영도구	14.20	112,451	3.3	54,659	11
5	부산진구	29.67	355,902	10.5	173,353	20
6	동래구	16.63	268,004	7.9	115,718	13
7	남구	26.82	267,422	7.9	117,821	17
8	북구	39.37	285,390	8.4	123,316	13
9	해운대구	51.54	401,131	11.8	172,397	18
10	사하구	41.77	310,195	9.1	139,604	16
11	금정구	65.28	231,996	6.8	108,070	16
12	강서구	181.50	147,347	4.3	61,502	8
13	연제구	12.10	208,050	6.1	93,606	12
14	수영구	10.22	176,812	5.2	85,896	10
15	사상구	36.10	212,771	6.3	98,621	12
16	기장군	218.32	179,174	5.3	76,853	5
	합계	770.16	3,396,109	100	1,544,663	205

1.3.2 계획의 세부내용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민의식 개선 방안 마련

-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 방안
-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민간 확산을 위한 시책(문화적 접근방안) 제안
- 홍보 계획 및 사후 활용방안 제시

■ 부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부산시 내 구·군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추진 현황 수집·분석
- 구·군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필요사항(제도, 사업 등) 정리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계획수립

- 시범사업 대상 : 우수디자인 사례를 만들어 상징성 높은 지역의 시범사업 추진 필요
 -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과 연계하여 사업장소 및 시기 선정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지원 공모사업 추진할 사업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분야별 공모사업 중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
 -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단계의 대상지별 공간, 시설, 매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 사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료마련 및 프로그램 사업 제시
 - 마중물사업 및 부처 협업사업 등 국가 공모 지원안 수준으로 수립 (마중물사업 : 어떤 일을 개시하기 전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기 위한 스타트 전략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예산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 내역별 규모 등의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할 것
 -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
- 사업비 확보
 -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체계화된 재정계획을 수립, 현실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
 - 재정계획에는 자원 별 사용 가능 예산계획, 공공·민간의 자원구분,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사업별 집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
 - 시범사업과 관련 있는 타 사업의 예산 집행과의 연계 방안 검토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부산도시철도 연산역)

■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수립
- 관련 법령, 계획, 사업 등과 연계된 통합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정책·문화·기술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공공성과 이용 편리성을 기반한 가이드라인 수립
- 권장 및 지양 사례(사진, 시뮬레이션 등)의 제시 및 일러스트, 도표 등을 활용한 이해하기 쉬운 지침 마련
- 표준디자인 관련 부서의견 수렴 및 표준디자인 분석, 문제점, 개선방향 및 관련사업 추진 및 디자인 심의·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시
-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정체성이 반영된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방향 검토
- 시설 별 기능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도시경관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심미성을 고려
- 적용이 광범위하고 여건 변화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물간의 통합이미지 제시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시
-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을 고려하고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융합되어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설정



생활 속 UD 시설물 예시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정 제도 및 정책 운영 전략 제시
- 유지, 보수, 발주, 실행 및 유지관리 등에 적용되는 제도 개선
-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과 기준 제시
- 관련 법령의 위계 설정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항목 예시

부문	영역	세부항목	주요내용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 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공간, 안전시설, 이용편의 시설
		시설물 구역	보도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폭에 따른 포장 기준,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횡단보도	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속도저감 방안	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공원 · 광장	진입공간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산책로	
	위생공간	화장실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휴게구역, 놀이터	
공공건축	접근공간	대지 출입구	위치, 안내
		보행 접근로	유효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도 분리, 유도 및 안내
		주차장	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공간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공간, 주출입문, 유도 및 안전
		로비	접수 · 안내데스크 및 유도 · 안내
	이동공간	복도	유효폭 및 보행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계단	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에스컬레이터	구조, 승강장
		방재 및 피난시설	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공간	화장실	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 부스, 위생 기구, 영유아 설비
		다목적 화장실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 샤워실, 탈의실	일반사향, 욕실, 샤워실, 탈의실

1.3.3

계획의 수행

■ 계획의 수행방법

- 중앙정부 및 각 구·군에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사업)을 분석·연계하여 반영
- 유니버설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
- 운영수행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
-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의 반영을 통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

■ 계획의 수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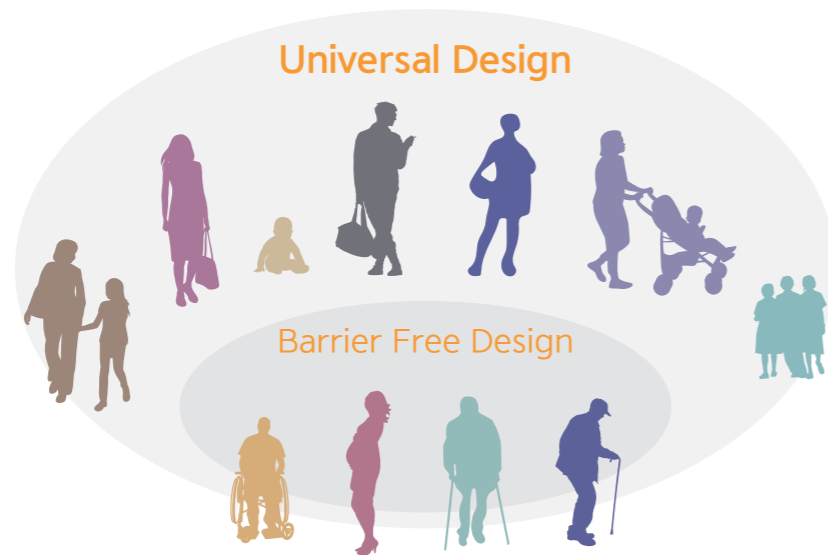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018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031
2.3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현황	034

2

2.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약자 혹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전환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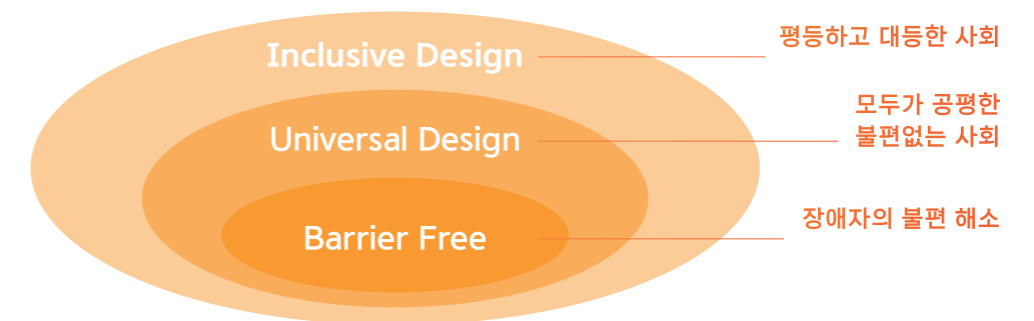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창자인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라고 정의
-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요구'라는 라벨을 없애주었다는 것
-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
- 다양한 사용자의 다원적 요구(Needs)를 수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Wants)를 반영하여 좋은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Design Process)을 의미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을 위한다'는 휴머니즘 철학을 새롭게 부흥시킨 디자인 개념
- 더 많은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는 것으로 더 넓은 범위를 가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념을 포함

■ 부산의 다양한 사람들

- 부산은 인구 330만명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명실상부한 제1의 항구도시임. 산업화, 공업화 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도시 변화를 맞이하며 관광객과 외국인이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받아 들이고 있으며, 해마다 등록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평등과 배려를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철학이자 구체적 방법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포괄적 개념

- 포괄적 디자인에 중요한 개념으로 장애를 사회의 다양한 속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장애인들을 평등한 인권으로 대등하게 대하는 사회를 지향함.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공간 등의 일탈적 환경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정상화된 가치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 배리어프리(무장애 : Barrier Free)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함.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지칭하며,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 중심의 접근법임

■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공간, 정보,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과 접근법을 지칭함. 유니버설디자인과 유사 개념으로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포괄적 디자인' 등이 있음

■ 포괄적 디자인 (Inclusive Design)

- 포괄적 디자인은 과도한 노력과 분리를 유발하는 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함. 포괄적 디자인은 모든 이들이 일상 활동에 동등하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배리어프리(무장애)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무장애(Barrier free design)와 구별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을 포함)

구 분	무장애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	·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조성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철학이자 접근방법 ·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대상	· 주로 장애, 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 (시설, 설비, 정보)의 장애물 제거	· 성별·연령·국적·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법적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제정)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2006)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규칙 제정 (2010)	·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016)
탄생 배경	·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없는 건축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 90년대에 관련 이론이 정립되며 건축을 중심으로 Barrier-Free(무장애) 명명 ·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미국의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간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해 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 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은 BF의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 1997년 North Carolina 주립대학 Ronald L. Mace가 현재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완성하고 원칙을 설정 · 법적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의 필요에서 출발 ·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익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선택성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특성	· 주로 장애를 제거한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	·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심미성, 친환경성까지 고려
예시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전용 화장실 · 건축물 주출입구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넓은 보도 폭 및 유도블록의 설치	·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경사로 등 단차를 만들지 않는 계획 · 여행 가방을 가진 사람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도
추세	· 무장애(Barrier-Free)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확장됨 ·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제품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발전	

■ 배리어프리(무장애)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차이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철학을 가지는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은 접근 방법과 적용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음. 배리어프리는 신체적인 장애로 보행이 곤란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공간에 접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거나 기존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춤
- 배리어프리가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공공 건물과 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적, 소극적 접근의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일상의 공간, 시설, 정보 등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적극적인 접근 방법임
-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 디자인 보다 한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개념

<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

구분	배리어프리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설계 접근	기존의 장벽 제거/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이용하기 쉬움
이용 대상	사회적 약자 / 장애인 (휠체어) / 고령자	성별, 연령,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디자인 핵심원리	접근성, 안전성	접근성, 안전성, 지원성, 공평성, 융통성, 심미성
지향점	물리적 환경의 장애 제거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공평한 사회 구현
적용 범위	건축, 환경의 접근 경로 중심	공간, 시설, 정보 등 생활환경
적용 사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분리된 화장실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1)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원칙
-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 / 왼손, 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제공
-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제공 / 사용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제공

2)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원칙
-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 방법을 제공
- 가능한 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어떤 사용자든 분리하거나 비난을 방지
-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
- 디자인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해되도록 제공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사용 시 피드백에 대한 원칙 준수
-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 /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 / 광범위한 문자, 언어 기술에 부합
-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
- 작업이 완료된 이후나 진행중이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

4)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ve Information)

-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한가에 대한 원칙
-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언어, 촉감 등을 사용
-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
-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
-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

5) 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에 대한 원칙
-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 배열 : 대부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이미 사용된 적 있는 요소를 사용하며, 위험한 요소는 제거
-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
- 안전성이 실패할 것을 대비 /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고려

6)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원칙
-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
-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
- 되풀이되는 동작을 최소화 /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인 사용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원칙
-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유지
- 모든 물건이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제공
-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
-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기존 디자인의 평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방향 선정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좋은 환경, 제품 등의 특성을 디자이너와 사용자에게 교육시키는데 활용

<p>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p>	<p>모든 사용자가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p>
<p>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p>	<p>사람들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p>
<p>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p>	<p>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p>
<p>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p>	<p>주위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p>
<p>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p>	<p>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p>
<p>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p>	<p>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p>
<p>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p>	<p>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으로 디자인</p>

■ 유니버설디자인 4원칙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 초기의 4원칙인 기능적 지원성(Supportive Design), 수용성(Adaptable Design), 접근성(Accessible Design), 안정성(Safe Design)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가 7원칙으로 확장

1)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 디자인은 예술과 달라서 실용성을 추구함. 따라서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기능을 최소의 노력으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사용자 환경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불편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만족은 여전히 남음

2) 적응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 기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
- 문제 해결을 통해 사용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사용자 만족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도 또한 만족을 제공
- 사용자 환경과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면,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 만족을 충족

3)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환경을 제거하는 디자인, 장애물이 없는 사용자 환경을 만들고 제공한다는 것이 원칙
-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 구현되지 않으면 사용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
-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 적용되면 환경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마케팅 차원에서는 시장(Market)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

4) 안전한 디자인 (Safe Design)

- 사용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심리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으로 평상시에는 잘 드러 나지 않지만 손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원칙

■ 물리적·인적 범위의 의미와 변화

-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정보, 서비스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까지 포함
- 사람이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며, 나아가 사용자(주민)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용자 참여형의 시스템 구축도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

기존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사회적 약자 배려	공정과 포용
이윤 극대화 / 공급자 중심	지속가능성 / 사용자 중심
공간 / 시설 / 제품	교육 / 복지 / 정보 / 서비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부산 시민 및 방문객



장벽을 없애기보다 처음부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의 전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고려하는
'모두를 위한 부산'으로의 전환

■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용자 유형

- 장애 분류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사용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사용자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사용자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는 정서적·정신적 기능의 이상으로 환경 및 시설 등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

휠체어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휠체어는 자력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보조인이 도와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력 이동을 염두에 둔 계획이 요구·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조작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등 사용자의 대상범위는 보다 넓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문턱이나 단차 제거· 복도와 출입문 등의 폭을 넓게 확장·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이나 휠체어 회전을 위해서는 문 주위에 충분한 회전 공간이 필요· 접수대나 선반 등은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 가능한 높이로 하고, 하부는 휠체어 발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지체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이 닿는 범위가 좁아져 물건을 잡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조작이 곤란·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2cm의 단차를 넘는 것도 힘들. 또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특성· 상지장애인은 악력이 저하하고 손이 닿는 범위가 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단차는 만들지 않아야 하며, 평평한 바닥면 일지라도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므로 바닥면의 마감에 유의·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이나 복도 등의 폭을 넓게 하고, 이동보조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 물건을 잡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조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문 손잡이 등의 크기 및 형태, 조작방법에 배려가 필요· 이해하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스위치를 설치

자폐성 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 판독, 방향, 시력 등의 장애도 있어 안내판 등은 알기 쉬운 문자나 픽토그램, 음성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일되게 디자인하도록 배려·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가 매우 어렵고, 소리지르기, 부딪치기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함으로,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제거

내부신체 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등의 내부장기에 질병이나 장애를 포함· 장시간의 보행 및 서있는 것이 곤란· 인공배설기를 사용하는 오스트메이트(Ostmate)나 장애에 의해 산소 호흡기 등을 휴대· 간질 장애 등의 발작증세· 외견상으로는 장애를 확인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피곤해지므로 휴게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계단이나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거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배려· 인공장기에 의한 배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배설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화장실 설비(오스트메이트)를 제공

시각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에 장애가 있어 현재 위치나 장애물의 인지, 방향 등 여러 가지의 정보가 부족하게 되어 보행이 곤란함· 약시와 색각장애인은 명암이나 색을 식별하는데 있어 개인차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음성유도, 점자블록, 향기(냄새) 등과 같이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려· 보행할 때 발밑 외에도 상부에 돌출물을 제거· 보조견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보조견의 배설공간, 출입구의 폭 등을 배려· 안내사인 등의 문자를 크게 하며 명도, 색채, 휘도 차이에 유의하여 계획· 유도블럭 설치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와 상반된 요구를 가지므로, 이들의 동선과 행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

■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용자 유형

청각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은 청각 경로의 이상으로 듣고 이해하는 기능이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결여되는 것으로, 이들은 정보의 인지나 이해에 큰 차이가 발생·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언어와 발성에도 문제가 발생· 청각장애인 중 많은 사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 진동 등 복수의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설비는 연속성이 있도록 설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팩스, 시각정보 장치, 화이트보드 등을 설치· 문자, 영상통화 등의 통신기술을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고, 사람에 의한 통번역 시스템 (문자, 음성 ↔ 수화)도 기본적으로 제공

지적장애 사용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장애인은 뇌 장애로 인해 인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언어나 공간 인지가 떨어지고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건물 내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나 행동은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 판독, 방향, 시력 등의 장애도 있어 안내판 등은 알기 쉬운 문자나 픽토그램, 음성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일되게 디자인하도록 배려· 신체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으므로 보행공간에는 단차를 제거· 기구나 설비 등은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도록 배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이트보드 등을 비치하고, 긴급 상황을 위해 인적 대응도 검토

임산부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을 의미· 임신부는 멀미 등을 느끼기 때문에 장시간 서있기 곤란하고, 쉽게 피곤을 느낌· 보통 다른 사용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려해도 충분하지만, 행동 등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재해나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 대응 배려 필요· 출산 후에는 수유실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부는 발밀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로나 복도에 단차를 만들지 않도록 설정· 적은 힘으로도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돌출물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 임산부를 위한 휴게장소를 설치하며, 기저귀 교환과 수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

어린이 (영유아)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는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및 정도가 연령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신체치수, 시선의 높이, 도달 범위 등을 고려· 환경의 변화나 상황, 위험물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곤란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시야가 성인에 비해 매우 협소·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행동을 촉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대부분 유모차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며, 동반한 영유아의 자녀를 항상 긴장한 상태로 관찰·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은 때로는 영유아를 안거나 업어야 함에 쉽게 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의 신체 치수 등을 고려해 시설물 등의 높이나 깊이의 치수 등에 유의· 긴급 상황의 판단과 대응이 느린 영유아를 위해 돌출물이나 단차를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 기저귀 교환 및 어린이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공간,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 등이 요구·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

고령자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무뎈지며 시야가 좁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낌· 장거리의 연속 이동 및 장시간 서있는 것이 어려움·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 자력으로 보행이 곤란하거나 관절염,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지체장애인과 동일하게 배려·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저하되므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동일하게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에는 100m 간격으로 잠시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의자, 휴게 장소 등을 설치·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보행로나 문 등의 폭을 여유 있게 제공· 안내사인의 문자 크기나 명도차를 크게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횡단보도는 노인의 통행을 고려하여 횡단 가능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

외국인 및 관광객	
기본사항	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어 외의 다른 언어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양손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사인에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이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국제통용의 픽토그램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영어나 일본어, 한자 등 다국어 문자를 표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역 등의 시설 및 관광지에는 그림과 다국어로 표기된 안내도를 설치· 무거운 여행 가방이나 짐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열기 쉬운 문의 폭과 구조로 하며, 통로나 복도에 단차를 제거· 이동 중 걸터앉아 쉴 수 있는 휴게장소 등을 적절하게 설치

2.1.2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회적 인식의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틀 확립 및 분위기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이 특성들이 일상생활 속에 수용되면 유사한 상품과 환경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사람간의 유사성도 더 확대
-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의 내용적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우리 현실에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양과 질을 높여가는 기회이자 과정

■ 도시 아젠다의 환경적 변화

- 현대 도시건축 생활환경을 이끄는 새로운 가치개념으로 ‘녹색환경·저탄소, 메타버스, 유니버설 디자인’ 등이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
-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도시 시민의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
-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틀 확립 및 분위기 조성

■ 전략적 프레임의 확립

- 5개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 부산광역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에서 포함하는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사업 방안 제시가 필요
- 도시인구의 변화로 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델 창출 및 단계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딩

-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보완 및 재구성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
- 공공디자인의 외연과 실천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전략으로 브랜딩 계획이 필요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2.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시행 2021.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
경기도 (시행 2020.7)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광주광역시 (시행 2021.2)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2021.12)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필요한 사항 및 도민, 사업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시행 2019.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부산광역시 (시행 2020.6)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

- 2008년 경기도 화성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 제정 후,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 규정
- 2022년 5월 총 27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 지방자치 단체 도단위 3개, 시단위 14개, 구단위 9개, 교육청 1개

2.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현황

■ 각 정부 부처 국내법 현황

보건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국토 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건축기본법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주거약자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행정 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문화 체육 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체육시설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6조2항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
	관광진흥법	·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8조의5 장애인을 위한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 국내법 현황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서 거주시설에서의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에 대해 조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에서 그 최저 기준으로 서비스 안내 및 상담과 환경에 대한 기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도로, 교통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은 교통약자법에서 규정
- 이동편의라는 점에서 정보, 안내가 중요한 법규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정보제공 의무와 정보 제공 시 문자 및 기호, 굵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 사용에 대해 의무화
- 교통약자법 제15조 운항에 관한 정보, 타는 곳, 나가는 곳 등의 유도 안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안내,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어 통역,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의 비치

4) 건축기본법

- 건축기본법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건축물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지향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법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에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지향
- 공공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지향

6)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을 설정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 제시

2.3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현황

2.3.1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1) 추진배경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용역)수립('18.12.) 등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6.05.),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17.03.), 기본계획 수립('18.12.) 등 사업추진 제도적 기반 완료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은 2018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 각 담당부서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요구
- 시정 전면 확산을 위해 서울시 각종 심의 및 제도 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실행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2) 비전 및 추진방향

- 비전 체계

비전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정책 목표	UD 전담기구 설치·운영	공공부문 UD 적용 의무화	성공모델 개발 사례 축적	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주요 사업	1. 전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 확립 2. 공공건축물 등 설계부터 준공까지 UD 적용 강화 3. UD 적용의 실제적 수단, UD 가이드라인 재정비 4. 인증제를 통한 실무 중심 UD 확산 5.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산업 활성화 6. 도시재생과 연계한 UD 테스트베드 우수모델 확산 7.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8. 주요사업 UD 적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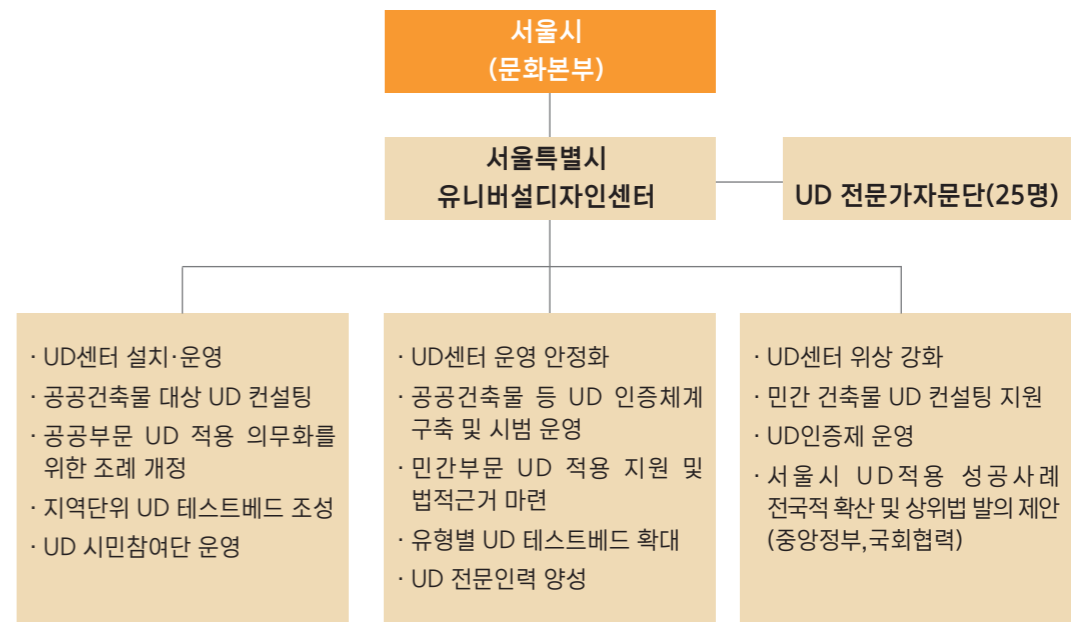
-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비전으로 첫째, UD 전담기구 설치 운영. 둘째, 공공부문 UD 적용 의무화. 셋째, 성공모델 개발 사례 축적. 넷째, 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이렇게 4가지 정책 목표로 주요 사업들을 진행

3) 단계별 추진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 조성 (2020~2021년)	보편적 확산 (2022~2023년)	디자인 복지 실현 (2024년~)
· UD센터 설치·운영 · 공공건축물 대상 UD 컨설팅 · 공공부문 UD 적용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 · 지역단위 UD 테스트베드 조성 · UD 시민참여단 운영	· UD센터 운영 안정화 · 공공건축물 등 UD 인증체계 구축 및 시범 운영 · 민간부문 UD 적용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 유형별 UD 테스트베드 확대 · UD 전문인력 양성	· UD센터 위상 강화 · 민간건축물 UD 컨설팅 지원 · UD인증제 운영 · 서울시 UD적용 성공 사례 전국적 확산 및 상위법 발의 제안 (중앙정부, 국회 협력)

4)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20.6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UD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 센터장 포함 공공디자인·건축 등 전문인력(5명)으로 구성·운영 :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추진, 건축·도시·공간디자인 등 분야의 전문가(교수, 디자이너 등) 자문·평가단 운영



- 서울시 : 정책수립 및 조례 등 제도 개선, 협의회 총괄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정책 실행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자문단, 시민참여단 운영
- 디자인재단 :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는 없는 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규는 다양하게 제정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9.06.07. 시행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례 수립
- 시대적·행정적 여건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경상남도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개념의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및 유관 사업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 접근과 필요성 대두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필요
-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 계획 필요

2) 비전 및 추진방향

- 비전 체계

비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삶터"
정책 목표	1.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보편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와 디자인 마련
	2. 경남 지역 내 모든 시/군의 자연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조화로운 유니버설디자인 도출
	3.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경관/도시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4.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
주요 사업	1.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의식 계몽 ① 경상남도민, 행정관계자, 사업자 및 개개인의 역할 도모 ②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의식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경상남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추진 체계 확립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①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 ②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 건축물 정비 ③ 쾌적한 공원 정비 3.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 환경 구축 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② 세심한 배려를 통한 서비스 제공

3) 단계별 추진사업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상남도 경관계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경상남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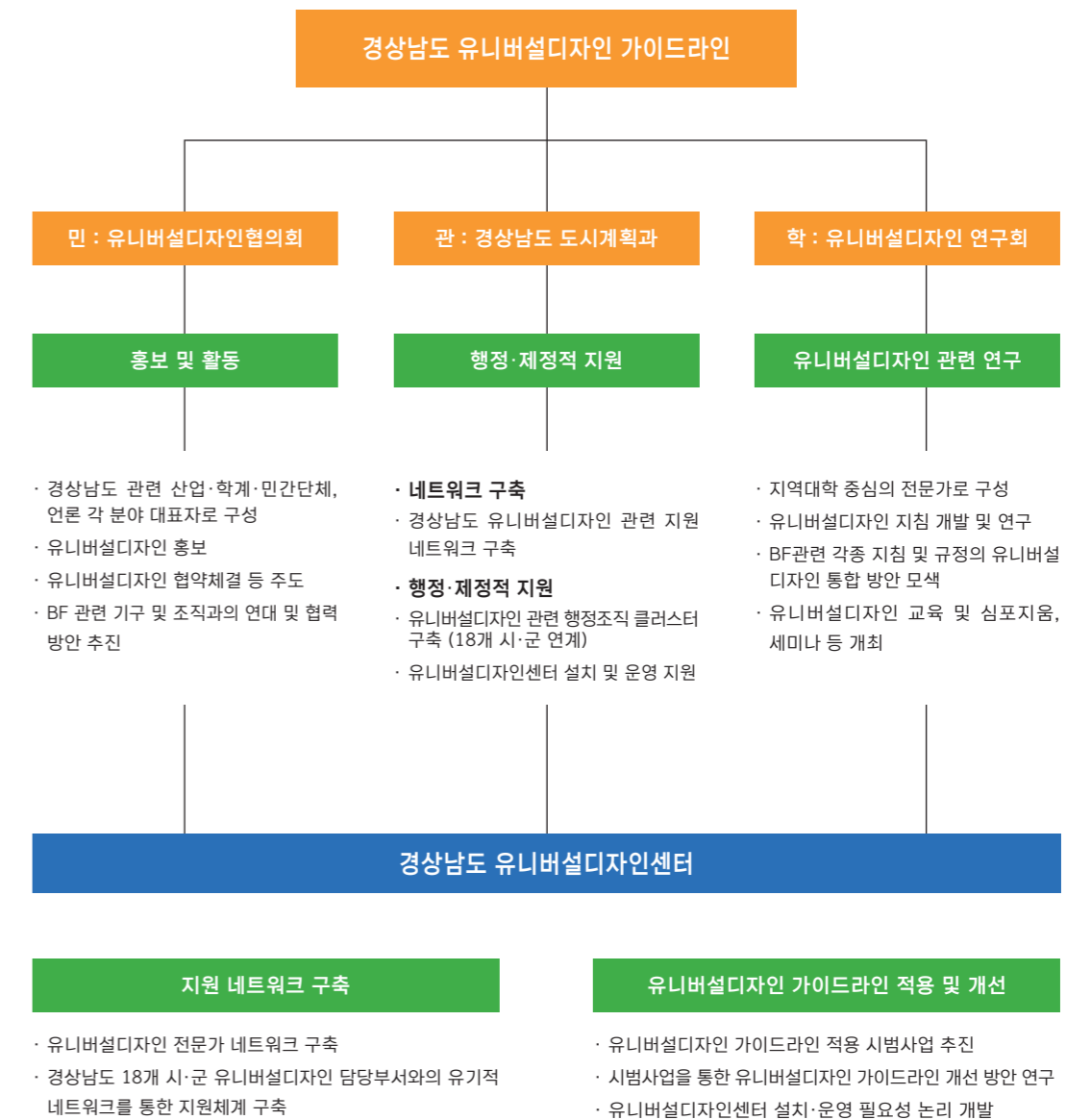
- 2022년 2월, 밀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로 기초조사를 실시, 안전통학로 구축이 절실했던 밀양초등학교와 미리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5)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협의체 구성



■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최근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흐름과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비 계획 필요
- 기존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과 연계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 수립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적 범위와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른 추가 계획 마련
- 일차적으로, 기존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 검토 및 새로운 비전 추가 모색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을 1차 대상으로 삼아, 그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질적(각론적)인 활성화 방안 제시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문화적 특성화 및 실용화와 연관된 질적 수준 향상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시기와 지역을 넘어선, 입체적 대안과 방향성 모색

2)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인간적) 권리(사회적) 고리(공동체적) 공존(문화적) 가치
정책 목표	1. 제주UD 비전 검토 및 뉴비전 모색
	2. 지속 가능한 제주 UD 활성화 방안(기본 및 실천전략) 수립
	3. 제1기 UD계획에 대한 점검과 분석/평가를 통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탐구
주요 사업	1. 홍보 및 교육 ① 인식(재인식)의 개선과 확대 ② 시민 계몽 효과 증진 ③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국내·외 인지도 강화 2. 정책 및 제도 개선 ① 기존법·제도의 문제점 검토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및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② 사회변화와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의 다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신규 정책 개발 3. 사회적 서비스 확대 ① 유니버설디자인 복지실현의 일환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 ② 유니버설디자인 생활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이 절실한 주민에 대한 유·무료 지원사업 시행 4. 계획 및 디자인 기법 향상 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내를 포함과 더불어 제주의 지역적 특색(지역성 추구, 지역 문화적 정서와 감성 반영)에 적합한 계획 기법과 장소(현장)에 적합한 실질적 디자인 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통해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화(차별화) 모색 시도 ② 유니버설디자인 기법(내용)의 다양화 모색 ③ 현장성과 가시성이 높은 디자인 방안 제시 5. 정보화 역량 강화 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②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 6. 산업생태계 조성 ① 지속가능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화 방안 모색 ② 제주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경제활동 다변화 및 활성화 도모

3) 단계별 추진사업

비전	추진사업	단기 2021	중기 2022~ 2023		장기 2024~ 2025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	-	○	-	○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민아카데미 운영	○	○	○	○	○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	○	○	○	○
	공모전 기획·운영	-	○	○	○	○
	특성화거리 조성	-	-	○	○	○
	매뉴얼 제작	○	-	○	-	○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증제도 운영	-	-	-	○	○
	평가환류체계 수립	-	-	○	-	-
	기획추진단 운영	-	○	○	○	○
사회적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	-	-	○	○
	스마트 버스정류소 구비	-	○	-	○	-
	스마트 쉼터 조성	-	-	○	-	○
	가로환경 개선	-	○	-	○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	○	○	○
계획 및 디자인 향상	디자인 지침 및 기법 개발	-	○	-	○	-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	○	○	○
정보화 역량 강화	통합정보 자료실 운영	-	○	○	○	○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	○	○	○
활성화 특화사업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	-	-	○	○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	○	○	○	○	○
민간 확산 활성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	○	○	○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	○	-	-
	친환경재료 개발 지원	-	-	-	○	-
미래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획	디지털(스마트) 환경 조성방안 연구	-	-	○	-	○
	재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	○	-	○	-

4)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2018년 11월, 송산동 서귀포초등학교 주변에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도 정비, 안전헨스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및 차량 속도 측정을 위한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노상 주차장 설치 및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해 시범사업을 완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후 사업평가 분석과 함께 향후 사업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 개선
- 2019년 8월,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알리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탐동 제2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시행

5)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 제주시 탐동 제2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 서귀포초등학교 일대 안전 펜스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지



2.3.2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경로당 진출입 개선



■ 경기도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국민행복민원실 개선



■ 충남 홍성군 충남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장애인 리프트 및 지정석, 독서 확대기)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로비 및 촉지안내도 개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복지회관 진출입 램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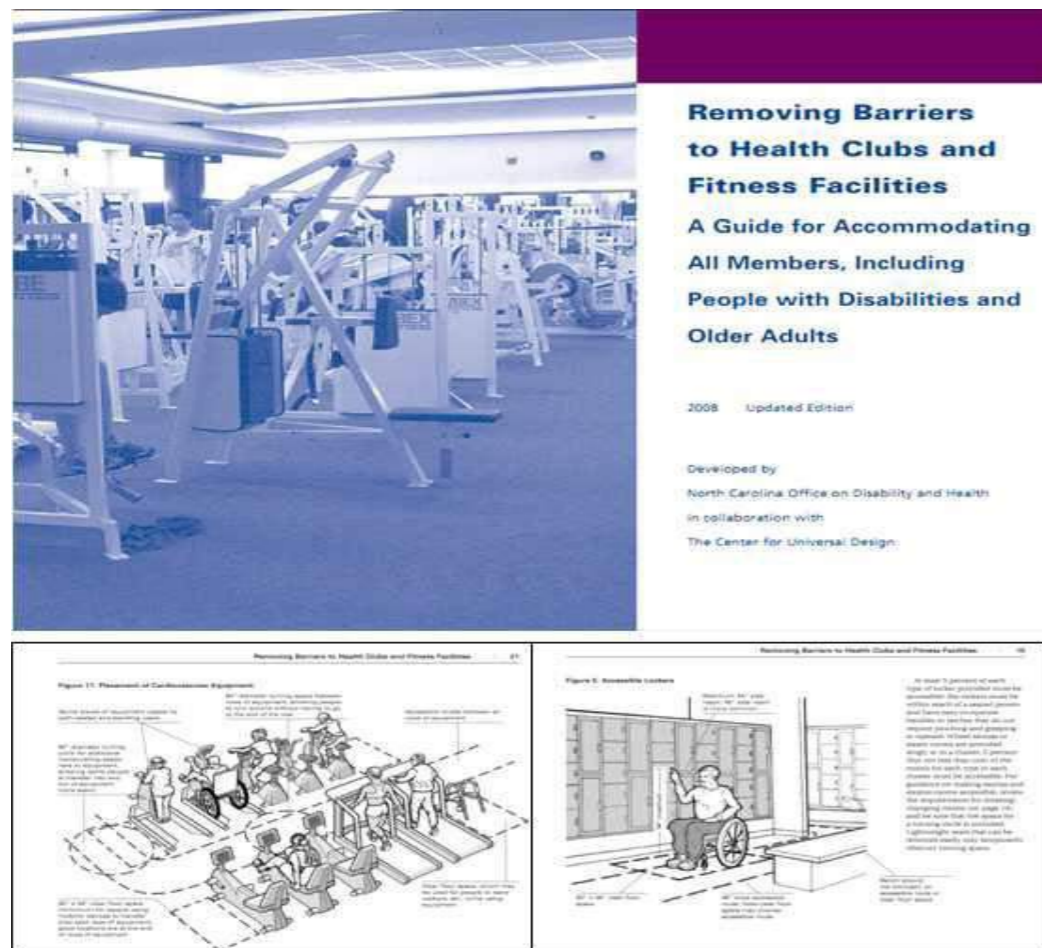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장애인 지정석 설치 및 안내표지판 개선



2.3.3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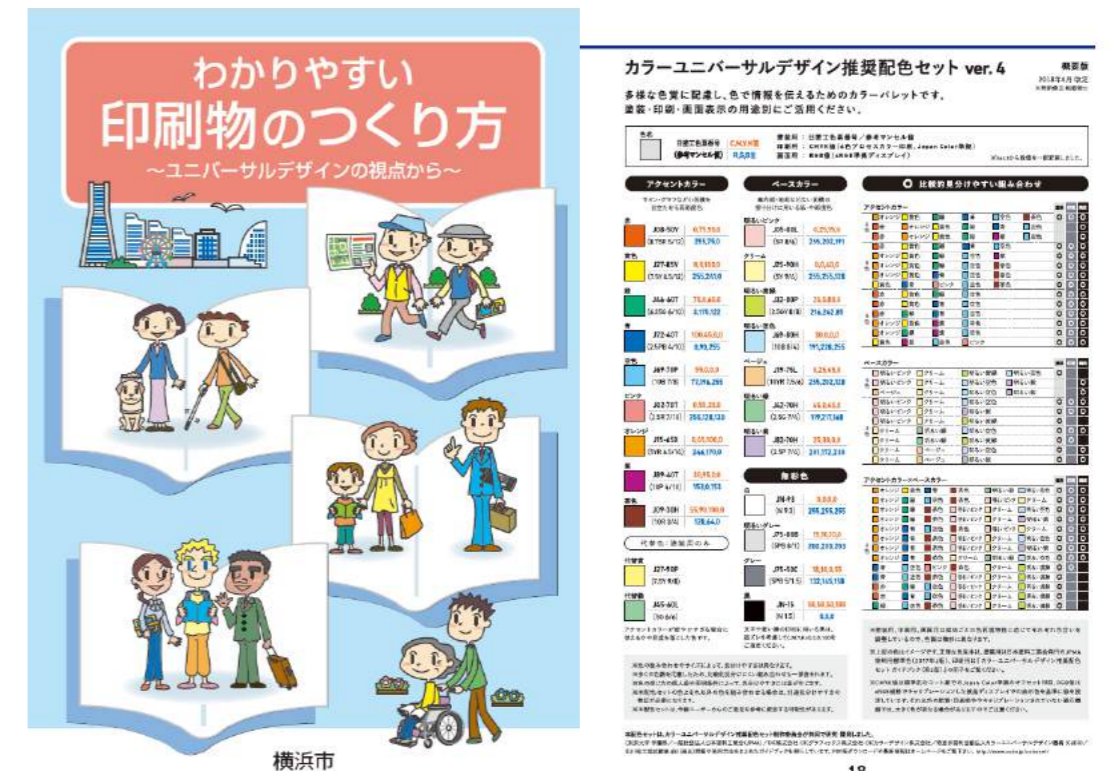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정부가 건축법에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
-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고용, 공공서비스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 사회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는 인간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
- 2010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법률의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
-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미국의 특성상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는 재활 공학 등의 장애인을 위한 연구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 노스캐롤라이나 장애 및 보건사무소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협력하여 제작한 ADA 지침에는 낮은 높이의 안내데스크, 편의점의 낮은 카운터, 휠체어가 이동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공간, 휠체어 이용자가 움직이기 쉬운 화장실, 접근이 용이한 로커와 탈의실, 의자를 갖춘 샤워실, 접근하기 쉬운 사우나, 접근이 용이한 수영장 입구, 청각 및 시각 경보시스템, 점자 표시가 된 안내사인, 접근이 용이한 전화기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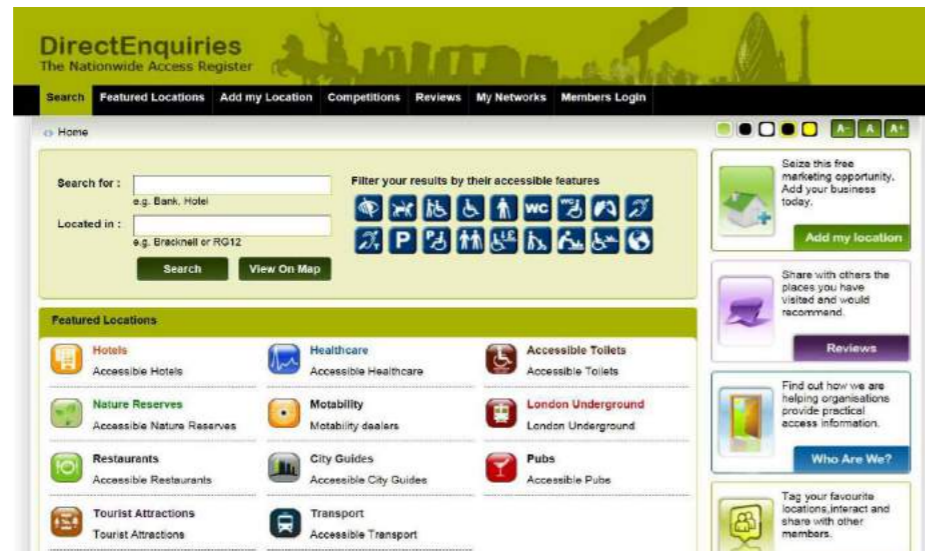
■ 일본 (Japan)

- 일본에서는 1981년의 국제 장애인해 이후, 공공건축물, 교통기관, 주택 및 그 요소인 설비·비품 등에 대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관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 하트빌딩법(Heart Building method) : 정식명칭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94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 신법으로 통합
- 교통 배리어프리법 : 정식명칭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공공 교통기관 이용 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00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신법으로 통합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2005년 7월에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편리한」이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생활환경과 연속적인 이동 환경을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5가지의 기본 개념과 10가지의 정책을 제시
- 배리어프리 신법 : 정식 명칭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트빌딩법과 교통 배리어프리법을 통합하고 내용을 확충하는 형태로 2006년 12월에 시행
- 사용자 중심의 시책 전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서 마음으로 전환, 점적·선적 정비에서 면적 정비로 변화, 사회 전체에 의한 추진을 중심으로 방침을 수립
- 마음의 무장해와 추진, 생활환경(주택,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 교육·문화, 고용·취업, 제품, 정보 등 분야 별로 기본방침을 수립
- 59개의 지방단체 중 44곳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 ‘복지주택·마을추진조례’를 폐지한 후 ‘세타가야구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를 제정, 미에현 하마마쓰시, 동경 히노시, 교토시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
- 치바현의 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실현을 위한 개념과 실현을 위한 힌트 사례집 : 여행자가 여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 도착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여행자의 요구사항, 힌트가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함



■ 영국 (The United Kingdom)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디자인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클루시브(Inclusive) 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실행
- 북미에서 제품디자인이나 건물 등에 좀 더 치중한다면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용어에 담아 사용
- 다이렉트 인쿼리어리스(2003)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청각·시각 장애인, 유모차 사용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접근성 있는 호텔, 헬스케어(병원), 화장실, 런던 지하철, 식당, 시티 가이드, 주점, 관광 명소, 교통수단 정보를 제공



■ 노르웨이 (Norway)

- 노르웨이는 몇몇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 실행
-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계획안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노르웨이 국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Accessible)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가 수록됨



- 이를 위해 노르웨이 아동평등부가 주체가 되어 16개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걸쳐 건축, 교통, 야외 공간계획,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
- 향후 국가 및 지방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관리 및 신규 시설 건립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함
- 대학, 직업학교의 교육 관련 몇몇 행동학에 이미 적용한 바 있듯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
-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건축 및 계획을 위한 법률에 포함

■ 유럽 (Europe)

1)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 계획

- 건축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접근함으로써 커뮤니티라이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 계획 2006-2015(the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이 수립됨
- 전반적 행동 계획부터 정치적 공공 생활의 참여, 문화생활의 참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고용, 건축환경, 교통 등 15개의 행동 방침으로 구성
-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완전한 참여의 실현(Achieving full participation through Universal Design) : 보고서로 출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15개의 방침과 행동 방침에 부합되는 사례들을 수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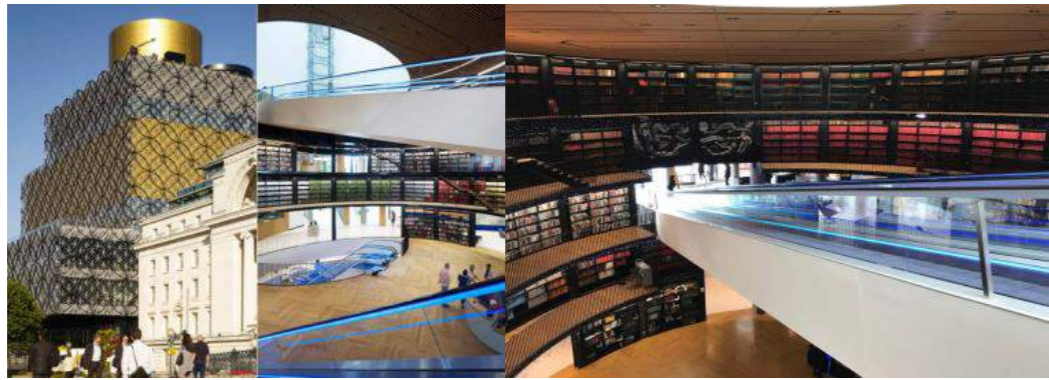
2) 접근이 용이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 유럽 지역에서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네트워크인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는 관광에 대한 접근성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장된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간주하여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력
- 야영지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계자, 접근성 관련 자문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장애인·노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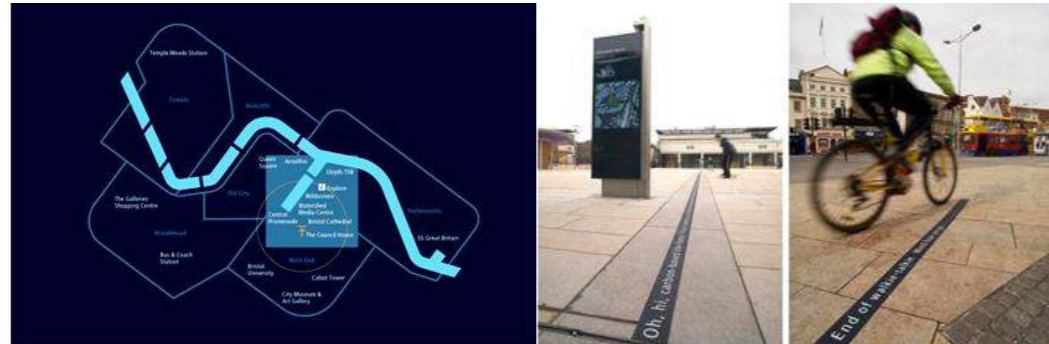


2.3.4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 영국 버밍엄도서관 무빙워크 설치



■ 영국 브리스톨 안내정보체계 개선



■ 일본 시즈오카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 일본 오사카 오이즈미 녹지공원 환경 개선



■ 일본 후쿠오카 나나쿠마선 잘 보이는 외부 사인을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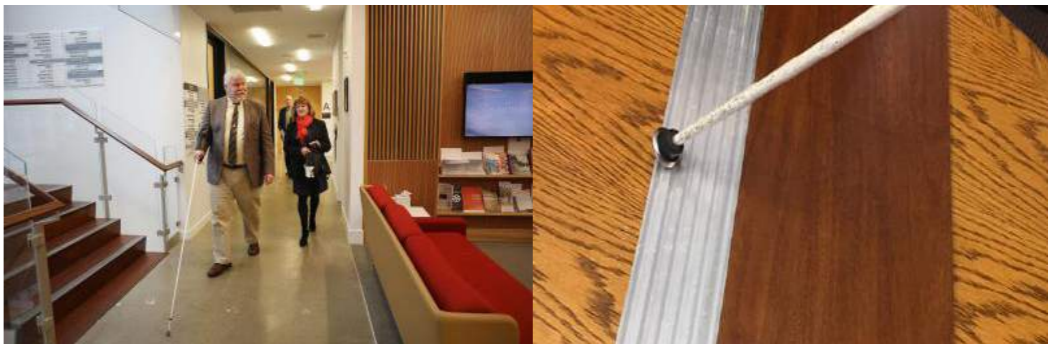
■ 미국 시카고 리버워크 보행로



■ 미국 포틀랜드 보차도 복합보행로



■ 미국 캘리포니아 라이트하우스 계단 (미끄럼방지)



■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자전거도로 설치



■ 미국 텍사스 오리건 교차로



2.3.5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종합분석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분석

구분	서울시 (사용자 중심)	경상남도 (시민 참여)	제주도 (지역현황 중심)	경기도
전담기구	●	●	●	
적용 의무화	●			●
인증제	●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	●
가이드라인 구축	●	●	●	●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		●

1)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전담 체계를 요구

- 유니버설디자인 실행을 위한 전담 기구, 민간 확산을 위한 선도적 서비스 제공
-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강화를 요구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을 통한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 가이드라인 의무 준수 시행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 사전 컨설팅 의무화

3) 인증제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요구

- 무장애(Barrier Free)와 차별화된 인증제 구축으로 디자인 복지 사각지대 방지
-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 대한 인증제도 개발, 민간참여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 개발

4)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요구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을 주도할 실무 전문 인력 양성
-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축·디자인 융합형 전문가 양성
- 전문가·공무원·초등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비를 요구

- 통합 가이드라인의 법령, 매뉴얼, 지침 현행화
- 다양한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6)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 및 민간 확산을 요구

- 시민 대상 홍보,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각 주체별 수행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 논의
- 시민 참여를 통한 수요자 형태 요구 분석

7) 지자체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대상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가로	· 보도, 차도	공간요소별 가이드라인 수립
	공원 · 광장	·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편의공간, 휴게공간	
	공공건축물	·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가로(보도, 차도), 공원, 광장 및 부속 건축물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건축물	· 공통공간 : 접근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 개별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	· 대중교통 시설물, 보행 안전 시설물, 편의 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 등	
	공공서비스	· 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요금소 등 · 교통수단 : 택시, 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 환경방재시설 : 상하수도 및 음식물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공공정보매체	· 안내표지, 정보표지 (시각·청각·촉각·후각 정보시설)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공간	· 보도, 광장, 공원	
	공공교통	· 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건축	· 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복지시설(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관), 문화시설(전시, 공연), 체육시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광시설	· 해수욕장, 올레길, 관광지(테마파크형, 공원형)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정보시설	· 안내시설, 유도 사인, 공원안내시설	
	공공공간	·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 공통공간 : 접근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 개별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가로시설물	·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공공정보매체	· 시각·청각·촉각·후각 정보	

■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분석

강력한 법규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정부가 건축법에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고용, 공공서비스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 사회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는 인간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2010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법률의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미국의 특성상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는 재활 공학 등의 장애인을 위한 연구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UD사회 보편화	· 사용자 중심의 시책 전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서 마음으로 전환, 점적·선적 정비에서 면적 정비로 변화, 사회 전체에 의한 추진을 중심으로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본	· 마음의 무장애화 추진, 생활환경(주택,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 교육·문화, 고용·취업, 제품, 정보 등 분야별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 59개의 지방단체 중 44곳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 ‘복지 주택·마을 추진조례’를 폐지한 후 ‘세타가야구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에현 하마마쓰시, 동경 히노시, 교토시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비스 중심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디자인 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클루시브(Inclusive) 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 북미에서 제품 디자인이나 건물 등에 좀 더 치중한다면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용어에 담아 사용하고 있다.
	· 노르웨이는 몇몇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법/규제 중심	·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계획안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노르웨이 국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Accessible)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 이를 위해 노르웨이 아동평등부가 주체가 되어 16개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걸쳐 건축, 교통, 야외공간계획,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향후 국가 및 지방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관리 및 신규 시설 건립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참여 중심	·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접근함으로써 커뮤니티 라이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 계획 2006-2015(the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 수립하였다.
유럽	· 전반적 행동계획부터 정치적 공공생활의 참여, 문화생활의 참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고용, 건축환경, 교통 등 15개의 행동 방침으로 구성하였다.

1)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은 1990년 통과된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들의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등의 개선을 추진

2) 일본 (Japan)

-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2005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게」를 테마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 정비를 추진

3) 영국 (The United Kingdom)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실행

4) 노르웨이 (Norway)

-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수립하여 국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5) 유럽 (Europe)

- 유럽통합의 영향으로 인한 범유럽 차원의 정책과 회원국 전체를 포괄하는 장애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추진
- 접근이 용이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구축
- 유럽지역에서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네트워크인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는 관광에 대한 접근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간주하여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력
- 야영지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계자, 접근성 관련 자문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장애인·노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



현황 및 조사 분석

3.1 부산광역시 일반 현황	058
3.2 관련 법규 현황	068
3.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072
3.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074
3.5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084
3.6 종합분석	098

3.1 부산광역시 일반 현황

3.1.1 부산광역시 일반 현황

■ 일반현황

1) 위치

- 부산은 한반도의 남동단에 자리잡고 있고, 바다에 면한 남쪽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대한해협에 면해 있고, 북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동면과 물금읍, 서로는 김해시의 대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관문적 위치로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국제공항을 갖고 있어 가까운 일본은 물론 멀리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항로는 세계를 총망라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중국과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 부산의 지형은 크게 동부의 구릉성 지대와 서부의 평야 지대로 대별할 수 있다. 동부는 대부분 해발 300~700m의 구릉으로 부산항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며, 해안평야가 발달하지 않아 평탄면이 협소하다.

2) 면적

- 부산은 15개 구, 1개 군을 가진 광역시로서 그 면적은 총 769.89㎢에 달한다. 기장군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여 전체의 28.36%이고, 다음으로 강서구 23.58%, 금정구 8.51% 순이다. 부산의 도심지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는 각각 0.37%와 1.28%에 그치고 있어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3) 인구

- 현재 부산의 총 인구수는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이며, (전년 대비 117,547명 감소) 연령별로 50대가 555천명(16.5%)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의 인구 수가 전년 대비 28천명(6.6%)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 전년대비 연령별 인구 변화를 보면 10세 미만의 인구는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60대 인구수는 32천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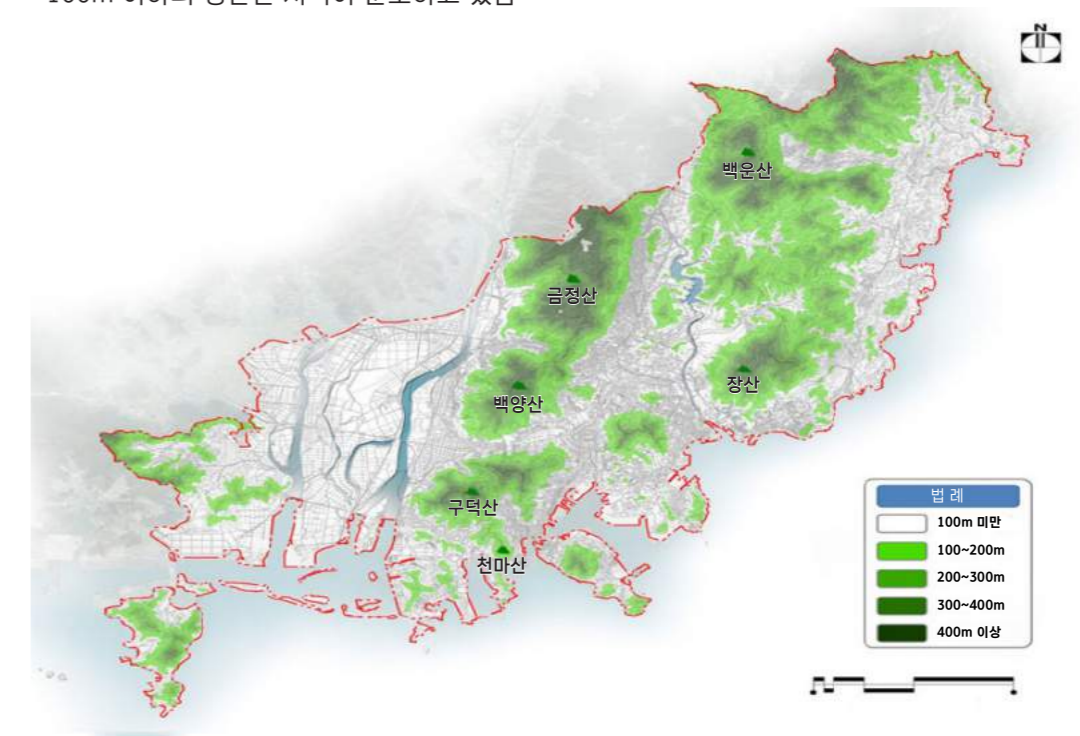
■ 지형적 특성

1) 지형 및 지세

-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부 구릉성 산지와 서부 평야 지대로 구분되며, 동부 구릉성 산지는 수영강을 중심으로 다시 동서로 양분
- 낙동강과 그 지류인 서부지역은 충적평야인 삼각주가 발달하여 대저 · 명지 주변에 농토를 제공함
- 시가지는 금정산에서 북병산을 지나 용두산에 이르는 구릉에 의해 동서로 양분됨
- 남동해안으로부터 남쪽으로 적기 · 우암 · 장군 · 다대 등 반도가 돌출하여 그 사이에 해운대만, 수영만, 부산만, 감천만, 다대만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부산만은 우암반도와 영도가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만내 수역이 넓으며 수심이 깊어 천혜의 양항을 이루고 있으며 부산항은 영도대교를 경계로 북항과 남항으로 나뉘는데 북항은 무역항, 남항은 어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 기장군 일원은 소반도와 도서 만입이 발달된 리아스식 해안구조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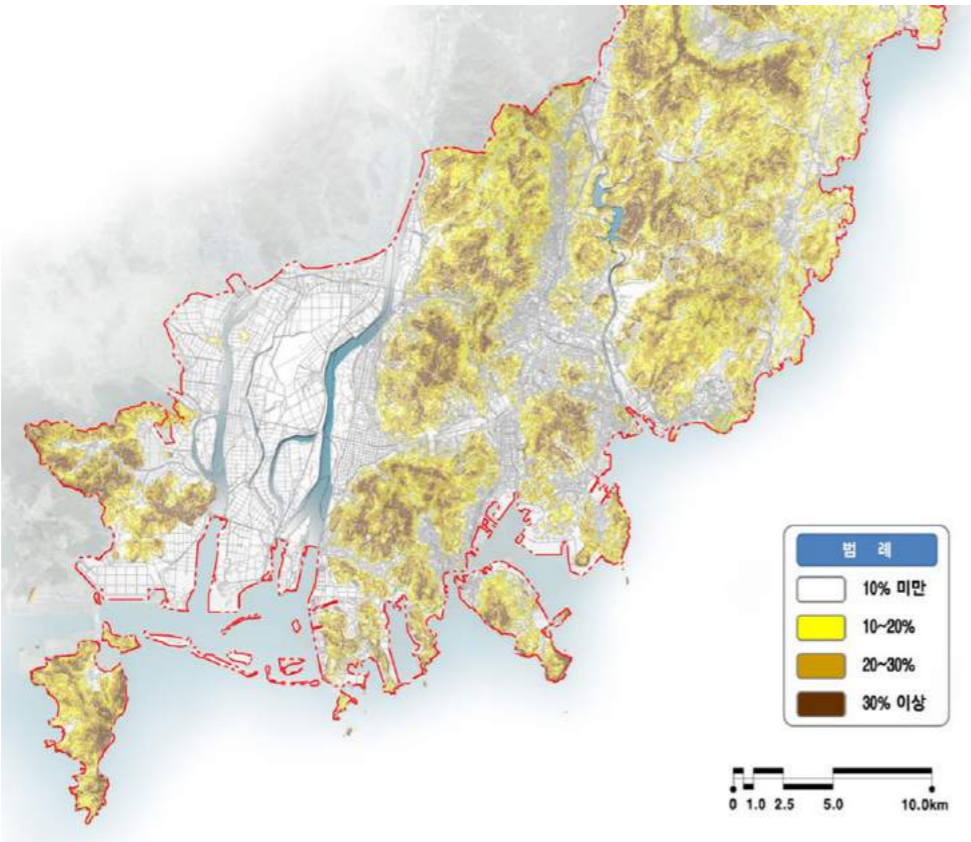
2) 표고분석

- 산세는 도시 중앙부를 관통하는 형세로 동서로 양분되어 서측으로는 금정산(802m), 백양산(642m), 구덕산(565m), 천마산(332m) 등이 금정산성에서 남쪽의 송도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장산(634m)을 중심으로 태백산맥의 지맥이 양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수영강 연안에는 장산, 황령산, 금련산 등으로 지맥이 뻗어 해안평야의 발달이 미약하고 동래일대에는 분지상의 평지를 이루고 있음
- 기장군 지역은 서측으로 삼각산, 달음산, 천마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해안과 함께 낮은 구릉지 및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전체 지형은 표고 100m 미만의 지형이 343.93㎢로 전체의 약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지역은 표고 50m 이하의 평야 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기장군 일원은 해안선을 따라 100m 이하의 평탄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3) 산복도로 형태의 보행환경

- 지형상 낙동강 서부지역을 제외한 시가지 전역에 구릉성 산지가 산재
- 경사도 30°이상의 급경사지 비율이 19.7%, 10°이하의 경사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체의 46.1%
- 개발이 양호한 환경사 지역은 시가지가 형성, 강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개발 및 발전에 제약
- 수직·경사 등의 보행환경이 다수이며, 특히 구도심 주거 환경은 고령자 및 이면도로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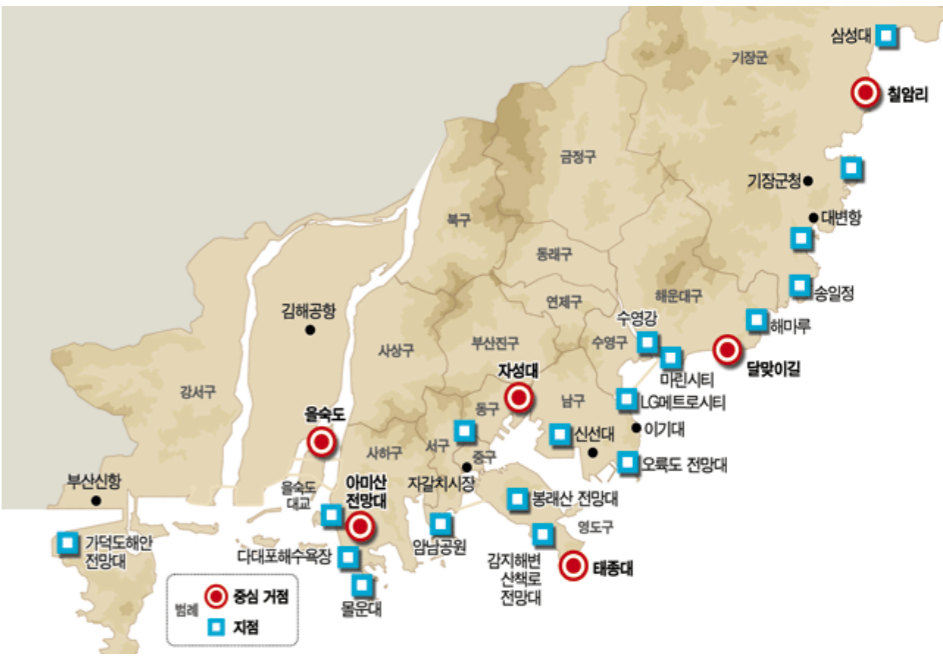


비전	계	10°미만	10~20°	20~30°	30° 이상
면적적(km ²)	769.86	354.65	134.82	128.71	151.68
구성비(%)	100.0	46.1	17.5	16.7	19.7

< 부산광역시 지형의 경사분석도 >

4) 수변도로 형태의 보행환경

- 바다 및 강 등 휴양·관광·산책 등의 보행환경을 보유
-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위치하는 주요 하천은 대부분 개수상태에 있으며, 많은 하천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구간이 복개되어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
- 해양 경관 자원으로 항만과 포구, 해수욕장, 수변 끝단 해안공원으로 구분
- 국내외 관광객 및 영유아 등의 보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필요



< 부산광역시 해안선 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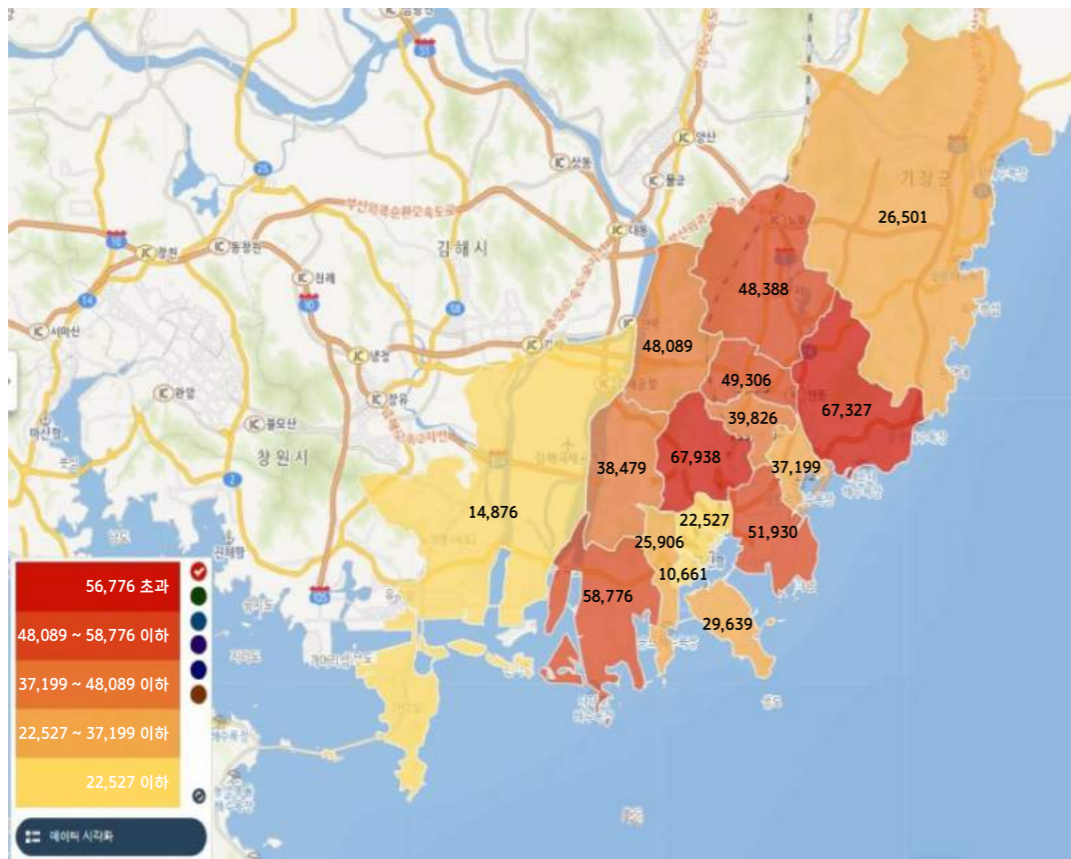
구·군 별	해안선(km)	육지부	도서부
합계	379.82	298.43	81.39
중구	6.70	6.70	-
서구	17.15	15.48	1.67
동구	9.57	9.57	-
영도구	41.24	39.24	2.00
부산진구	-	-	-
동래구	-	-	-
남구	31.49	29.16	2.33
북구	-	-	-
해운대구	16.87	16.52	0.35
사하구	74.92	41.17	33.75
금정구	-	-	-
강서구	113.69	73.67	40.02
연제구	-	-	-
수영구	7.18	7.18	-
기장군	61.01	59.74	1.27

< 부산광역시 구·군별 해안선 길이 비교 >

■ 사회적 특성

1)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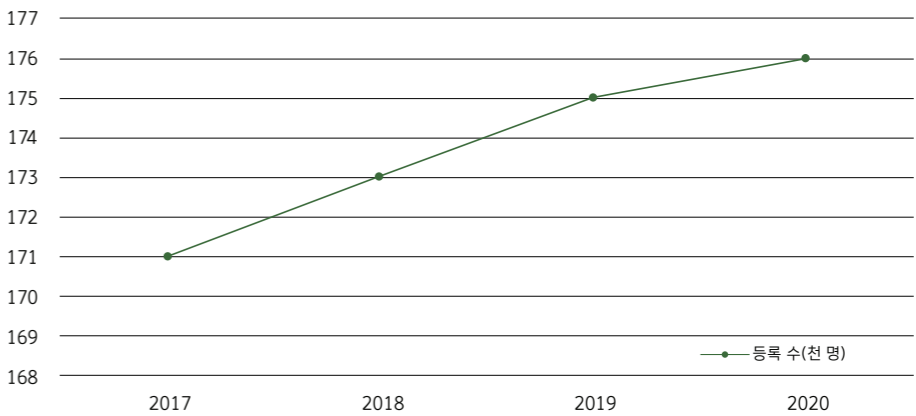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증가 : 9개의 구·군이 고령사회, 6개의 구가 초고령사회
- 중구 27.2%, 영도구 26.7%, 동구 26.5%가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음
- 부산진구 67,938명, 해운대구 67,327명으로 두 곳에 노인인구가 가장 높음
- 전국평균 노령화 지수는 132.9%이며, 부산시는 179.4%로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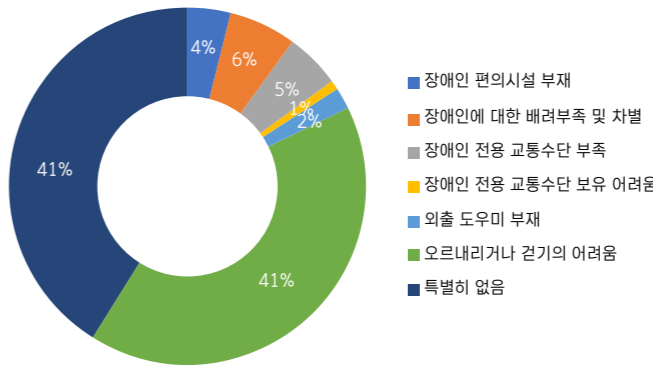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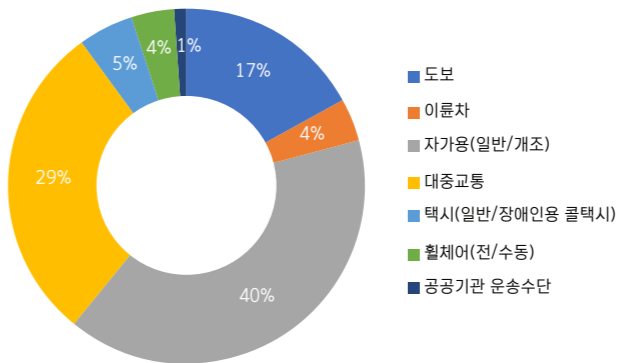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노인인구 분포 >

2) 장애인 인구

- 장애인 등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부산지역 무장애 인증 시설 실태(부산연구원 연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인 것으로 분석
- 외출 시 이동 수단으로는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 외출 시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특별히 없다는 항목 다음으로 오르내리거나 걷는 등의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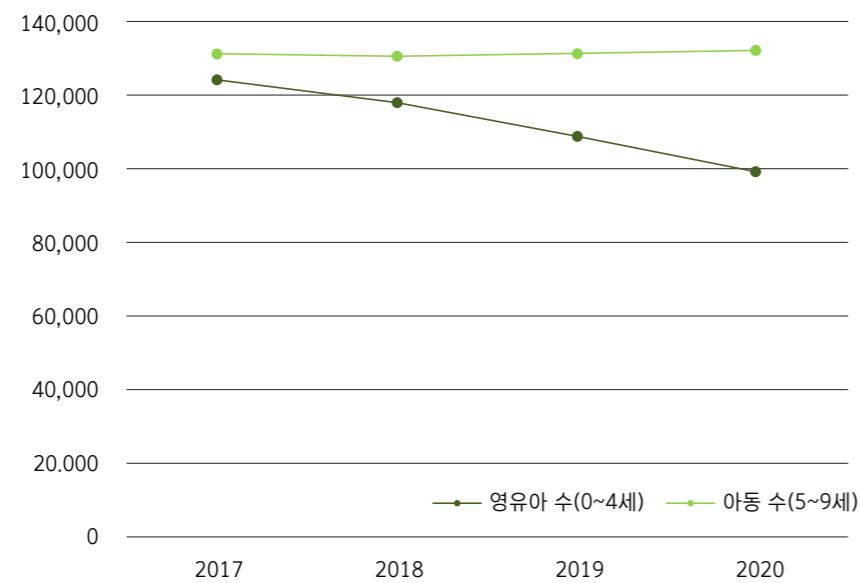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장애인등록 현황 (천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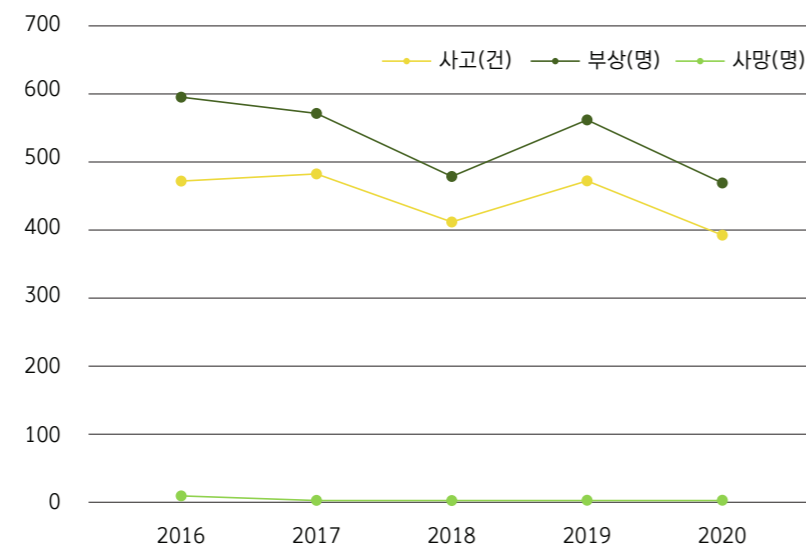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이동 시 장애로 겪는 어려움 >

3) 영유아 및 어린이

- 부산광역시 영유아(0~5세 기준) 인구수는 113,297명, 어린이(6~10세 기준) 인구수는 135,053명으로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
- 사고 시간대는 주로 낮~저녁 시간대 이며, 12~14시 사이에 가장 높음, 새벽 시간대에는 사고율이 낮음
- 2018년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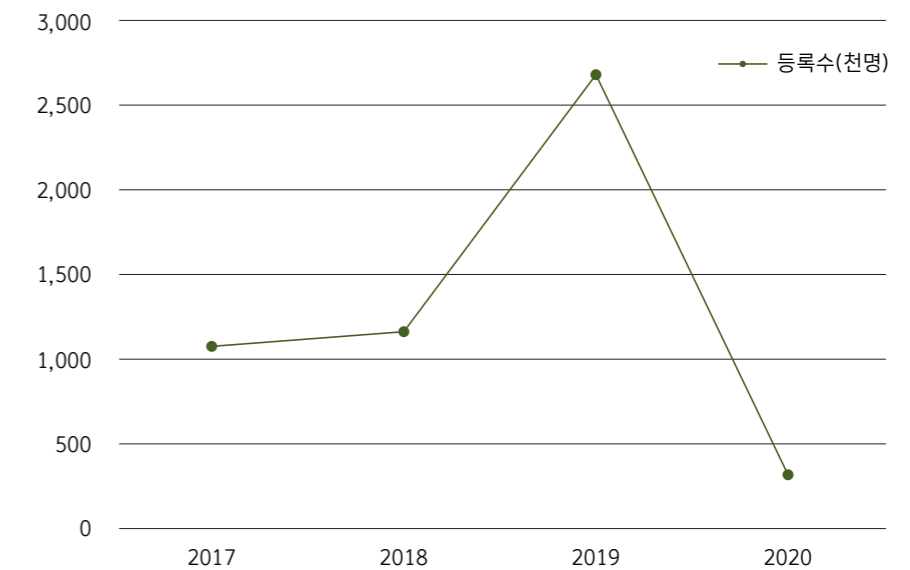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수 >



< 부산광역시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

4) 외국인 관광객

-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서면(32천명), BIFF 광장 일원(25천명), 해운대해수욕장(18천명) 순이며, 주요 관문 지역 방문현황은 부산역(55.6%), 김해국제공항(29.5%), 부산항(14.9%) 순으로 높게 조사
-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국가별로 일본(57천명), 중국(34천명), 대만(28천명), 미국(20천명), 러시아(17천명) 순으로 방문



< 부산광역시 외국인 관광객 현황 >


주 요 지 점	2019	2020
부산 서면	188,747	31,581
BIFF 광장 일원	143,589	24,532
해운대해수욕장	140,424	18,056
자갈치·국제시장	104,713	17,014
전포카페거리	109,047	16,134
동백섬 일원	91,105	15,116
달맞이고개	91,487	13,098
마린시티	68,543	10,071
송도 해수욕장	47,102	6,931

< 부산광역시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 >

■ 역사, 문화, 경관 자원 특성

1) 역사, 문화 자원

- 부산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거나 문화적 요소를 대표하여 경관으로 인식되는 자원
- 상실되기 쉬운 지역성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 주요 보전의 대상

구 분	경관자원
유형자원	· 자갈치시장, BIFF, 국제시장, 감천문화마을, 영도대교, 금정산성, 동래읍성, 동래향교, 북천동고분군, 충렬사, 범어사, 용궁사, 보수동, 유엔기념공원, 근대역사관, 부산박물관, 북천박물관, 동래별장, 40계단, 백산기념관, 구포시장, 동래시장, 상해거리, 제뢰등대, 동래사적공원
	
무형자원	·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불꽃축제, 동래야류, 동래학춤, 조선통신사축제, G-STAR 게임박람회
	

< 부산광역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현황 >

2) 경관 자원

- 도시에 자연발생/인공적 형성으로 조성되어 경관으로 인식되는 대상



구 분	경관자원
도시 산지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장산, 봉래산, 구덕산, 엄광산
하천	낙동강, 수영강, 온천천
저수지	회동저수지
수변 생태자산	을숙도, 삼락 둔치
대형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중앙공원, 화명수목원, 용두산공원, APEC 나루공원, 삼락체육공원, 부산시민공원, 자성대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스포원파크, 평화공원
건축물·인공구조물	부산역, 마린시티, 벡스코, 영화의 전당, 서면중심 상업지, 국제금융센터, 부산타워, 충혼탑
교량	광안대교,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낙동대교
공공시설물	부산시청, 각 구·군청,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야구장, 시립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여객터미널, 구덕운동장,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 부산광역시 주요 경관자원 현황 >

3.2 관련 법규 현황

3.2.1 유니버설디자인 법규 사항

■ 통합적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움직임

· 2017년 9월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건축, 정보제공, 피난 분야를 중심으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중앙정부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2012.12)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활용실태와 외국의 정책을 토대로 문화적 적용 방안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18. 8) :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간·시설별 설계기준 제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 책자)

구 분	법규 및 계획	관련 주요내용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법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편의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부산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장애 공간 (Barrier Free)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인 의료·교육·직업 재활·생활 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보호구역의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을 규정

3.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위계획 및 법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위계획 및 법규 사항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2020년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비전	제도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생활을 위한 공공디자인
목표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과도하고 무분별한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이고 질서 있는 공간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디자인의 도입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전략	[전략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UD Street) 조성 -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UD -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9원칙	[유니버설디자인] ·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가로 보행로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도입 · 사회적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공간 디자인의 지향 · 무분별한 가로공간을 지양하고, 가로 건축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 디자인의 마련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2019년		·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2022년	
미래상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해양수도 부산!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비전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열림과 어울림의 부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 가로경관 - 사용자 중심의 걷기 좋은 공간 확보를 위한 통합적 가로환경 조성 -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공간인 가로공간을 입지 유형, 공간 유형에 따라 구분 · 공공건축(시설)물 -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위한 자연 친화적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등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건축물 용도별 경관 가이드라인] · 상업, 업무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 -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약자 배려 유도 등 [공공시설물 경관 가이드라인] · 보도육교, 관광안내도 및 관광 안내표지판, 정류장 등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 결정 권장 등 [오픈스페이스 경관 가이드라인] · 공원, 차도, 보도 등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부산 보행혁신 종합계획	
·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2018년		·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2019년	
비전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비전	모두 다 같이 걷는 시민행복 부산
목표	공정한 도시 / 안전한 도시 / 활기찬 도시	목표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전략	[정책과제2] 건강한 도시건축 인프라 구축 ·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도시디자인 개선 -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 · 백세시대 액티브 도시건축 지원정책 수립 - 신체활동을 고려한 활동하기 좋은 건축공간 시범사업 지원 등 ·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 확보와 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막힘없이 (연속) - 인도 시설물 비우고 모으고 줄이기 등 · 걱정없이 (안전) -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 조성 등 · 마실가듯 (편리) -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환경 조성 등 · 소풍가듯 (매력) · 모두 다 같이 (함께)

3.2.3 유니버설디자인 법률구조

■ 유니버설디자인 법률 구조



“국가적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위법 부재”

3.2.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현황



3.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3.3.1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책무	①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시설물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심의대상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이외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7.>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상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도시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 시켜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 5. 27.>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2. 건축위원회: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건축·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1. 시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 2.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사업 3. 장애인·노인 주거개선사업 4.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조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활성화 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 시행규칙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① 시장은 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교육시설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7.>
시민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사례발표회,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와 민간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주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참여단 구성·운영 및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3.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3.4.1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및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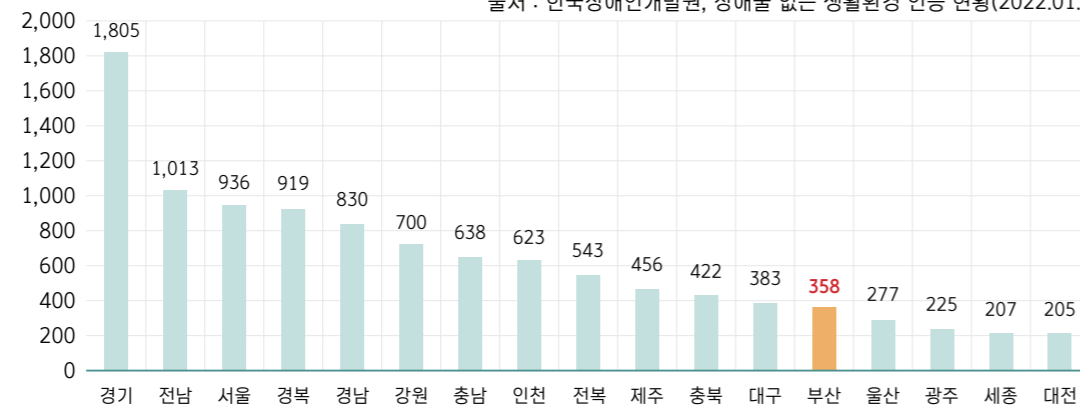
■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부산시 보행권리 장전 선포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목적 :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 선포일자 : 2019년 09월 17일 · 선포내용 : 기본원칙 3항 및 실천과제 10항, 광역단체 최초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부산 국제 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 2020~2024년 · 사업내용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 친화 환경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3~ · 사업내용 : 공공 건축, 보행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부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현황

· 부산시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이며, 도시규모 및 인구 감안 시 최하위 수준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2022.01.)



■ 부산시 구·군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부산 16개 구·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3곳 부산시, 사하구, 남구	16곳 북구 제외 부산시 모든 구·군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4곳 부산시, 동래구, 영도구, 중구	4곳 부산시, 사상구, 서구, 수영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곳 부산시	10곳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17곳 부산시, 16개 구·군	11곳 부산시,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3.4.2 일반현황

■ 복잡한 관리주체

- 현재 부산광역시는 운영 및 특징에 따른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
-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역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각각의 관리 주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뿐 유니버설디자인의 총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업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
- 현재와 같이 각 관리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간 및 시설물의 관리 방식은 디자인의 부조화로 부산지역의 독특한 브랜드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노출

■ 취약한 이동권

- 부산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보행로 및 교통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보행자들이 힘들어 하며, 좁고 노후되어 방문객들에게 불편 야기
- 주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휠체어 및 유아차 사용자, 노인 등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으나 구간구간 존재하는 심한 경사, 단차, 고르지 못한 노면 등으로 이동약자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동약자들의 이동이 용이한 방안 모색 필요
- 주요 대로에서는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주요 관광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미흡한 정보 제공

- 이동 및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 불편 야기
- 대부분 거대한 실사 그래픽 종합안내지도로 시인성 및 서체의 작은 크기로 인하여 가독성이 낮음
- 종합안내지도에는 주요 시설의 명칭과 개략적인 위치만 표시되어 있을 뿐 보행로, 특히 이동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보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방문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제작 및 배치되어 있는 실정
- 방향 지시안내물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식별하기 힘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되어 잘못된 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미제공 문제 발생
- 부산지역 주요 관광·역사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으나, 내용의 흥미도가 낮고 서체의 크기 등 장애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



■ 모두의 이용이 불편한 편의 시설

1)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화장실 앞 단차 제거, (장애인)화장실 안내판 위치 변경을 통한 시인성 제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수정,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안전 손잡이 설치 및 위치 수정, 경사 거울 설치, 대변기 등받이 설치, 자동 출입문 설치, 출입문 앞 사용 중 표시판 부착,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일부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 남녀 화장실 모두 설치 필요
- 장애인 화장실의 미사용 및 잠금 장치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



2) 수유실

- 일부 공공시설 및 화장실에 수유실이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설치 필요



3) 휴식 시설 (벤치, 파고라, 쉼터, 그네의자 등)

- 공공공간 및 보행로 등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행로와 접한 채 일렬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으로 등받이 및 물건을 놓을 수 있는 탁자 등이 없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동반한 방문객들이 함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쉼터 및 정자, 파고라 등에는 단차 혹은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조건



4) 주차장

- 현재 공용주차장의 장애인 지정 주차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 이후 안전을 고려한 보행 통로가 확보된 장애인주차장은 전무하며, 이동권 확보가 필요



5) 식음료 판매시설

- 현재 주요 관광지 및 시설 내부에 편의점 및 관광상품 등의 판매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및 외국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판매시설의 경우 일부 시설의 주문 데스크 및 보행 시 진입 턱이 높아 휠체어 사용자들이 주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내부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서비스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여건(유도블럭, 점자메뉴, 점자표시 등) 마련 필요



3.4.3 시설 현황

■ 부산광역시 시설 현황

1) 공공공간

- 경사도가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인도에 경사가 생기며, 노후 되어 파손이 생김. 또한, 점자 블록을 침범하는 시설물도 존재함. 그러므로 인도를 평탄화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도 경계석의 과도한 턱 낮추기와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의 일부 턱 낮추기로 인해 보도면의 굴곡이 심하여 보행자가 걷기 힘들며, 특히 유모차의 이동 시나 아동을 동반한 경우,노인의 경우엔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함. 그러므로 보행하기 편하도록 동일한 높이의 보도면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손 된 점자 블록



턱 낮추기로 경사진 경계석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경사도

2) 공공건축물

- 부지 내 보행 진입로에 단차나 계단 등이 있어 유모차와 함께 이동하는 여성이나 노인들이 이동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경사지거나 협소한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건물로의 접근과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그러므로 진입로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로에는 단차나 계단, 경사로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경우 완만하고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건물 주출입구의 문이 지나치게 무거워 열고 닫기 어려우며, 여닫이문의 경우 무거운 가방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하므로, 아동과 유모차, 양손에 짐을 든 사람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 빈도가 높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중화장실의 경우 적절한 안내사인이 없어 식별이 어렵고, 내부는 어두우며,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편하므로, 적절한 위치에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식별이 쉽도록 구성하며 내부는 밝고 청결해야 하고,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용 변기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함



진입하기 어려운 출입구



진입하기 어려운 공원 화장실



무겁고 열고 닫기 어려운 출입문

3) 도시기반시설

- 엘리베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육교와 곳곳에 노후화된 육교가 존재하며 보도육교 계단 디딤판 끝부분의 식별이 어렵고 디딤판이 평평하지 않아 내려갈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나 야간 사용자를 위해 마감재 선택에 유의해야 함
-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높고 가파른 계단이 많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난간 재정비가 필요함
- 도로 차량 등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된 볼라드 간격이 좁아 유모차나 자전거, 휠체어 등이 지나가기 불편하며, 딱딱한 고정형 볼라드는 충돌 시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 시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의 접촉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쓰레기통은 청결하지 못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능적이며 청결하고 통일된 디자인이 필요함



노후화 된 육교



엘리베이터 없는 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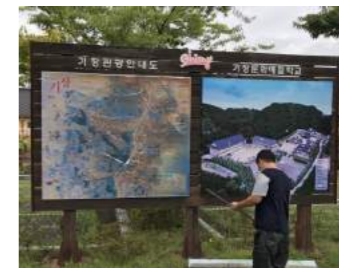
가파른 계단

4) 공공정보매체

-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버스노선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은 글자와 이해하기 어려운 도해로 되어 있으며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버스노선도 등의 정보매체는 알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해야 함
- 안내표지판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인이 읽기 어려우며, 각종 안내판이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안내표지판 등의 정보매체는 어린이나 노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기준이 필요함



외국어 미표기 버스 안내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안내시설물




높은 위치의 안내사인물

3.4.4 사업 현황

■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1) HAPPY 챌린지

함께 만드는 15분 도시
Happy 챌린지



Happy 챌린지	
사업목적	· 15분 도시 만들기
사업기간	· 2022.08 ~
사업내용	· 15분 도시 조성사업 + 도시재생 -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 · 생활이 편리한 접근성, 삶을 나누는 연대성, 지속 가능한 생태성


2) 부산국제관광도시사업

속성&MICE

일자리

해양관광

역사·문화



부산국제관광도시사업	
사업목적	· 부산 국제관광 활성화
사업기간	· 2020 ~
사업내용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 친화 환경 조성 등

3) 15분 생활권 걷기 좋은 도시 조성


15분 생활권 도시

생활문화

기반시설

교통안전

지하철매실물안전



15분 생활권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목적	· 보행자 중심의 도보 환경 개선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사업기간	· 2022 ~
사업내용	· 보행권 지킴이단 · 보행 사각지대 발굴 · 무장애 걷기 코스 발굴

4)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안전복합타운 조성도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사업목적	· 주거안정 및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사업기간	· 2021 ~
사업내용	· 1인 거주 원룸 밀집 대학가의 각종 범죄로부터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

5)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산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인식개선 및 보호강화
사업기간	· 2022 ~
사업내용	· 고령친화마을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노후 지원

6)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사업목적	· 고령친화형 행복도시를 위한 공원 조성
사업기간	· 2021 ~
사업내용	· 공원 내 노인친화시설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7)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업목적	· 공공건축 및 보행공간에 UD 적용, 시범사업 실현
사업기간	· 2023.02 ~
사업내용	· 시민 보행권 회복,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공간을 위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개선

8) 유니버설디자인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사업목적	· UD 저변 확대 및 민간 확산, 선도 사업 발굴
사업기간	· 2023.02 ~
사업내용	·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목표 실현 · 다양한 관점(정책 공급자, 정책 수요자, 분야전문가)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 도출, 상호 이해, 만족도 제고

9)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목적	·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2023.02 ~
사업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공공공간의 컨설팅 지원 · 부산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10)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	
사업목적	· 공무원 및 시민 대상 홍보,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기간	· 2023.02 ~
사업내용	· 공무원 등 UD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특강 및 교육 자료 제작 (교육자료 제작 후 관련 기관 배포) · 포럼 개최 : 공무원, 시민 등 대상 포럼 개최로 UD 역할 중요성 모색

1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사업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적·제도적 정비
사업기간	· 2023.02 ~
사업내용	· UD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등 업무협약 및 정책 공유 (도시 간 추진사업, 정책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보완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마련 지원 · 자치구(군)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

3.5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3.5.1 인식 조사 개요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설계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유형

1) 공직자 대상

- 대 상 : 부산광역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직자 694명
- 조사기간 : 2022.08.01. ~ 2022.09.07.
- 조사방법 : 공직자 전용 인트라넷 활용
- 조사문항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경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BF)와 유니버설디자인(UD)의 차이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경험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만족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참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무부서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편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공공공간)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순위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우선순위

2) 부산시민 대상

- 대 상 : 부산광역시 거주 일반시민 203명
- 조사기간 : 2022.09.01. ~ 2022.10.31.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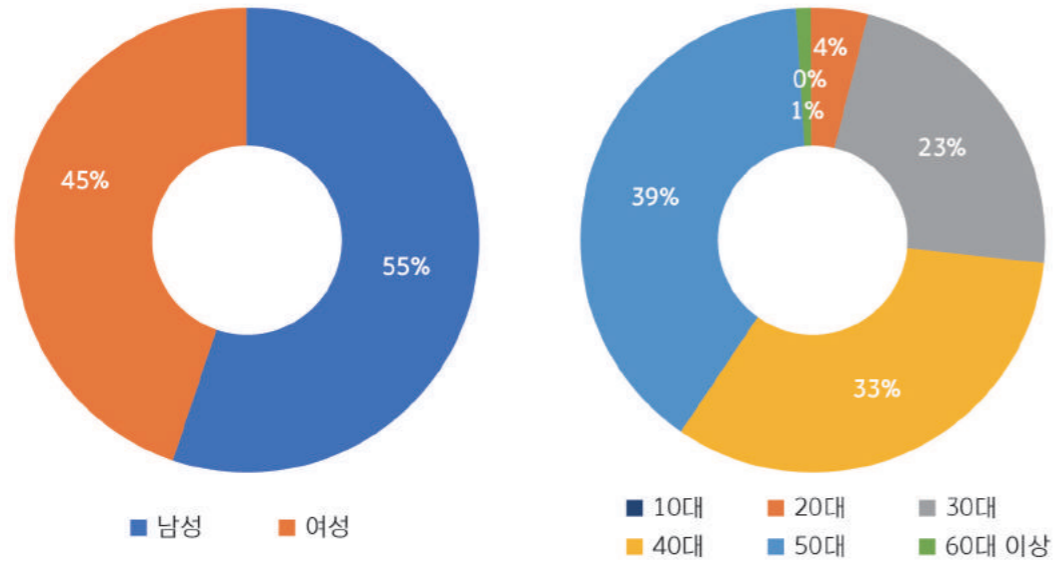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설명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 · 유니버설디자인 안내 매체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 요소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의 중요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수직이동의 문제점 · 부산광역시 평지이동의 문제점 · 부산광역시 보행로 보행시 문제점 · 부산광역시 이면도로 보행시 문제점 · 부산광역시 휴식공간 이용시 문제점 · 부산광역시 보행로의 매력(편의/사용/기능/특색 등) · 부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 요소

3.5.2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 공직자 대상

■ 표본의 특성

1) 공직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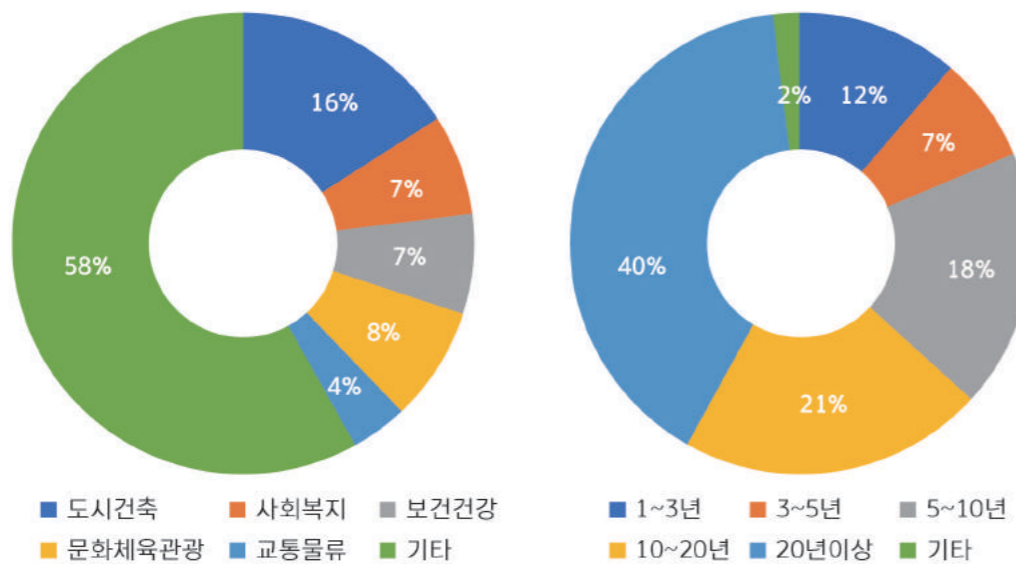
·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표본의 특성은 남성 55%(382명), 여성 45%(312명)이며, 연령은 10대 0%(1명), 20대 4%(25명), 30대 23%(163명), 40대 33%(226명), 50대 40%(275명), 60대 이상 1%(4명)으로 조사



< 공직자 - 대상자 성별 >

< 공직자 - 대상자 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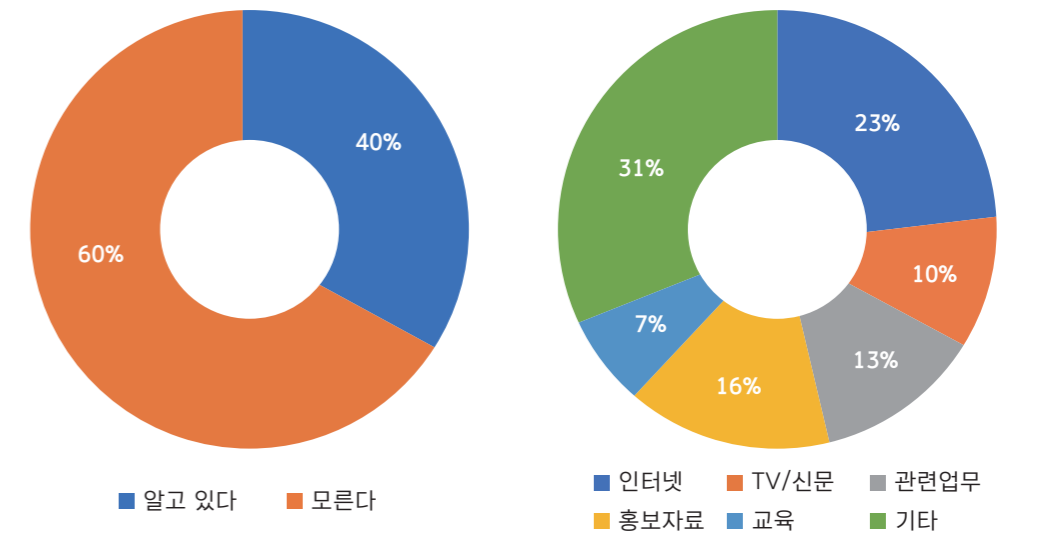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특징으로 분류된 근무부서 유형에서는 도시건축 16%(112명), 사회복지 7%(46명), 보건건강 7%(50명), 문화체육관광 8%(55명), 교통물류 4%(27명), 기타 58%(404명)으로 선행 조사된 답변에 대한 근무기간에서는 1~3년 12%(79명), 3~5년 7%(51명), 5~10년 18%(125명), 10~20년 21%(148명), 20년 이상 40%(279명), 기타 2%(12명)으로 조사



< 공직자 - 대상자 근무부서 >

< 공직자 - 대상자 근무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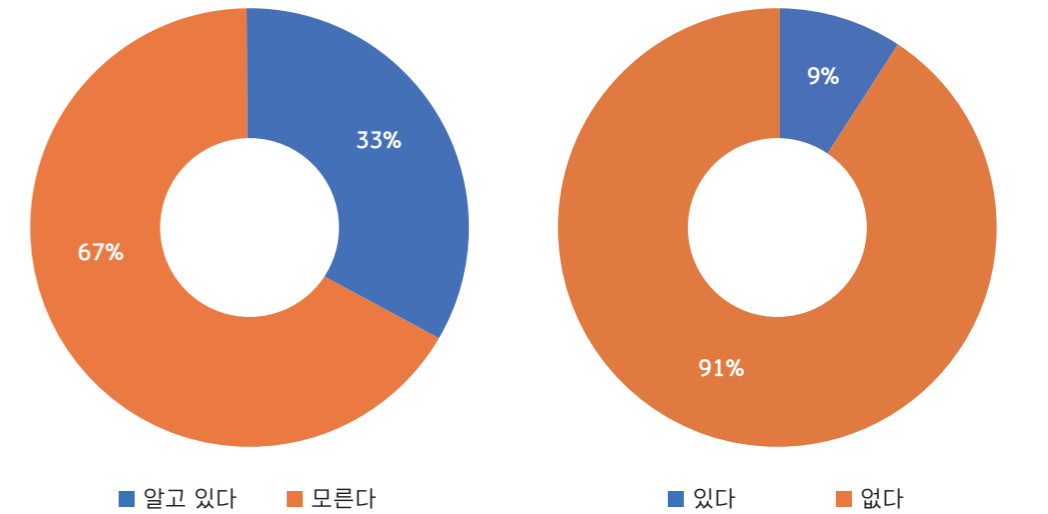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알고 있다' 40%(278명), '모른다' 60%(416명) 비율로 인식에 따른 경로를 묻는 추가 문항 '유니버설디자인을 알게 된 경로'로는 인터넷 23%(149명), TV/신문 10%(79명), 관련업무 13%(99명), 홍보자료 16%(112명), 교육 7%(64명), 기타경로 31%(191명)으로 조사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알게된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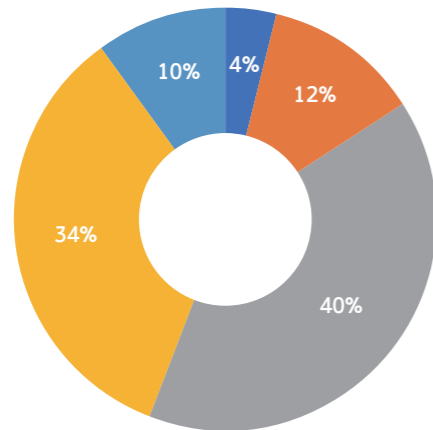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배리어프리(BF)와 유니버설디자인(UD)의 차이점을 이해'에서는 응답 중 '알고 있다' 33%(229명), '모른다' 67%(465명)이며, 관련 교육의 경험에서는 '있다' 9%(60명), '없다' 91%(634명)로 조사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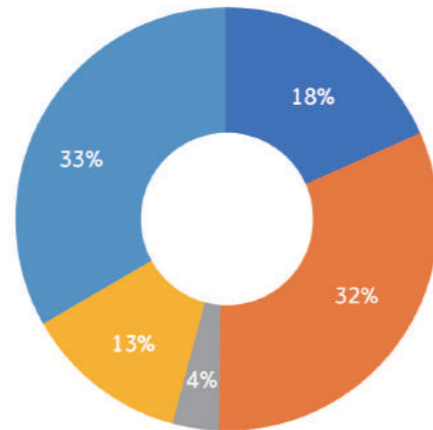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 >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경험에서 교육을 통한 이해 및 과정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충분하다’ 4%(69명), ‘충분하다’ 12%(100명), 보통이다 40%(239명), 기타 34%(194명), 기타 의견 10%(92명)으로 대부분이 교육의 미실행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시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18%(124명), ‘바쁜 업무’ 32%(226명), ‘교육의 효과’ 4%(23명), ‘업무공백’ 13%(87명), ‘기타’ 33%(234명)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 과정의 인지 및 교육정보의 부재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조사



■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보통
■ 기타 ■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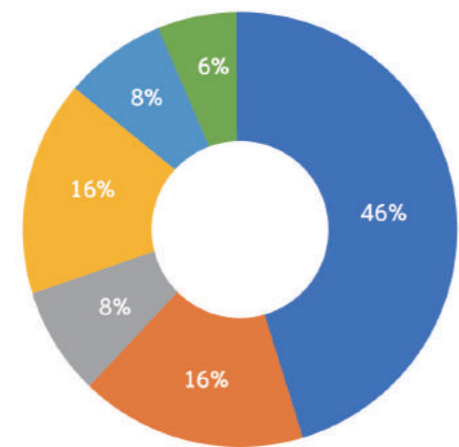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참여 >



■ 미교육과정 ■ 바쁜 업무 ■ 교육의 효과
■ 업무공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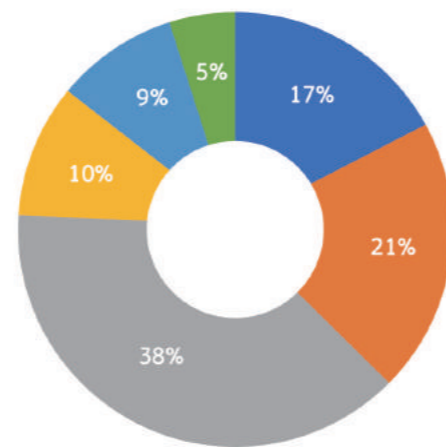
< 공직자 - 교육 참여 못하는 이유 >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무부서를 묻는 문항에서는 도시건축 46%(313명), 사회복지 16%(133명), 보건건강 8%(44명), 문화체육관광 16%(130명), 교통물류 8%(43명), 기타 6%(3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를 위한 주무부서의 편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시장직속 17%(117명), 부시장 직속 21%(140명), 국급 38%(265명), 실/과 10%(72명), 공공기관 9%(66명), 기타 5%(34명)으로 조사



■ 도시건축 ■ 사회복지 ■ 보건건강
■ 문화체육관광 ■ 교통물류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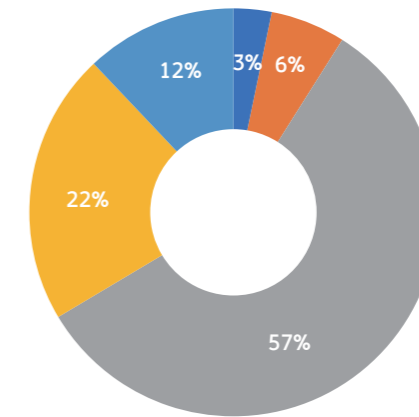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주무부서 >



■ 시장 ■ 부시장 ■ 국급
■ 실/과 ■ 공공기관 ■ 기타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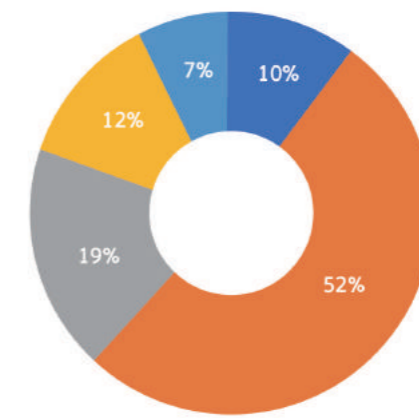
· 근무하는 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적용되어 있다’ 3%(18명), ‘적용되어 있다’ 6%(44명), ‘보통이다’ 57%(400명), ‘적용되지 않다’ 22%(151명), ‘전혀 적용되지 않다’ 12%(81명)으로 조사



■ 매우적용 ■ 적용 ■ 보통
■ 미적용 ■ 매우 미적용

< 공직자 - 근무공간(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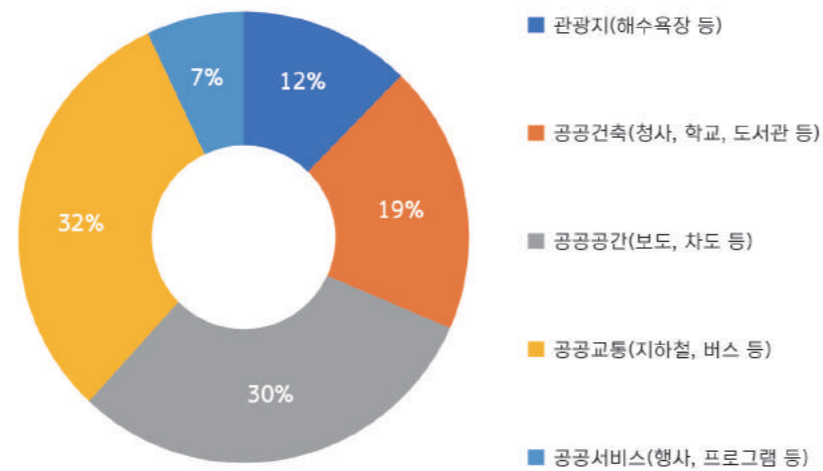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부산의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충분히 편리한 도시’ 10%(72명),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해 연구 및 예산투입 등 시책추진 필요’ 52%(358명), ‘부족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 19%(130명), ‘매우 불편한 도시이며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12%(85명), 기타 7%(49명)으로 조사, 기타 의견 중에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시민 중심의 기반조성의 시작,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



■ 도시환경 측면에서 충분히 편리한 도시
■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해 연구 및 예산투입 등 시책추진 필요
■ 부족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
■ 매우 불편한 도시이며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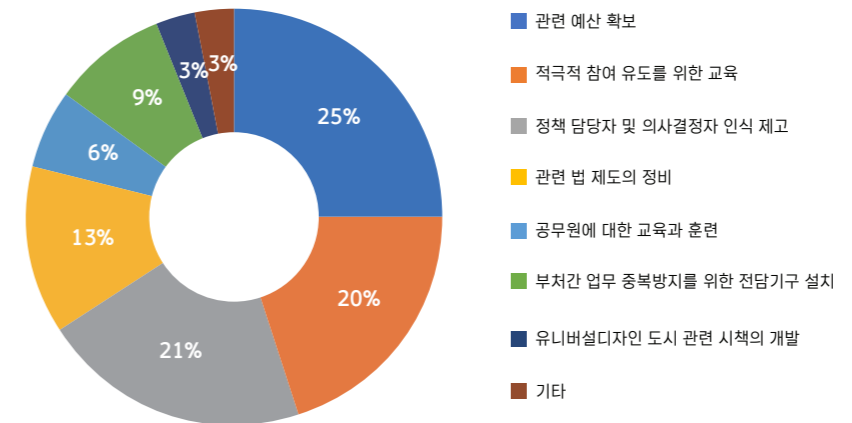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수준 >

·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필요한 곳을 묻는 문항에서 주요 관광지 12%(97명), 공공건축 19%(128명), 공공공간 30%(120명), 공공교통 32%(217명), 공공서비스 7%(52명)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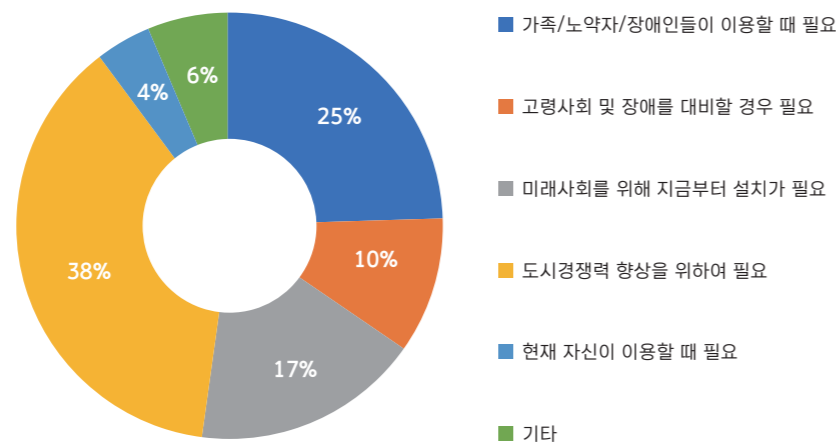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순위 >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 25%(156명),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20%(132명), ‘정책 담당자 및 의사 결정자 인식 제고’ 21%(137명), ‘관련 법 제도의 정비’ 13%(88명),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6%(46명), ‘부처간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9%(67명),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관련 시책의 개발’ 3%(31명), 기타 3%(33명)으로 조사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우선순위 >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가족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필요’ 25%(172명), ‘고령사회를 대비’ 10%(74명), ‘미래 선진사회를 위한 설치’ 17%(123명), ‘부산의 도시경쟁력 향상’ 38%(260명), ‘현재 자신의 이용이 필요’ 4%(25명), 기타 6%(40명)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의견 중에서는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성과 특성의 적용과 공익 및 인권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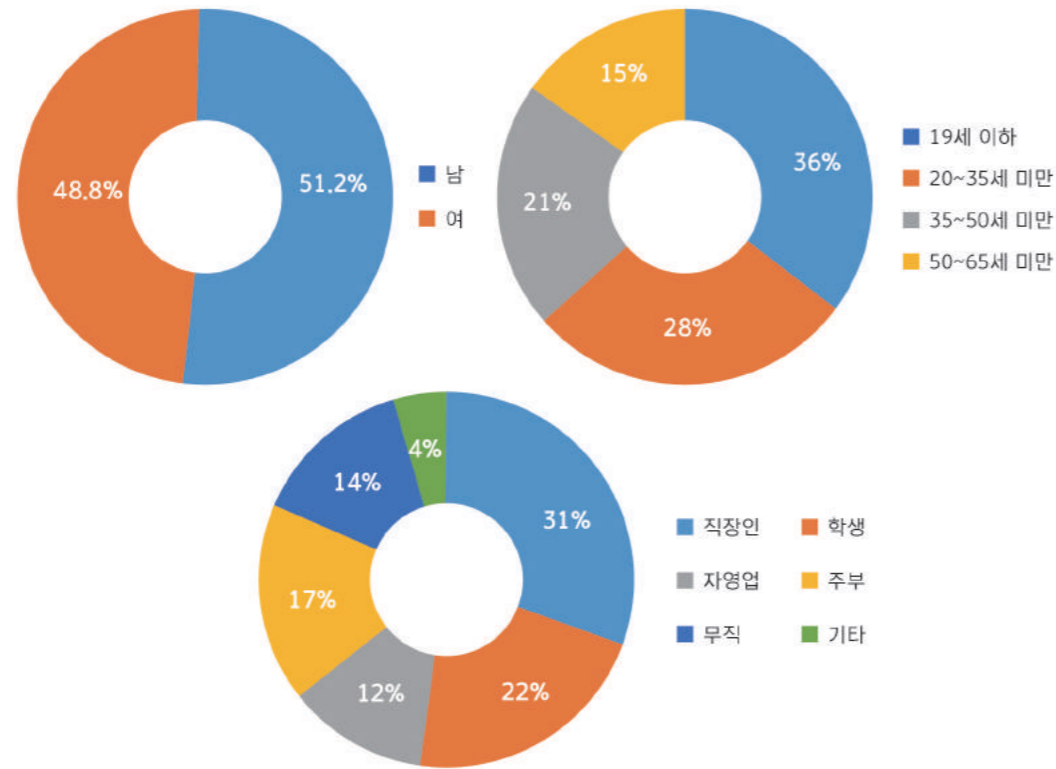
< 공직자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목적 >

3.5.3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 시민 대상

■ 표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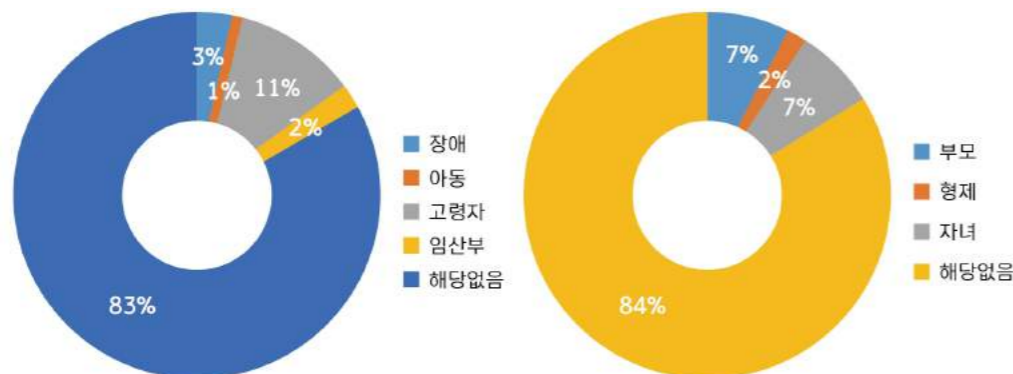
1) 부산시민 대상

· 인구통계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및 연령 조사 대상의 비율을 조정



< 부산시민 - 응답자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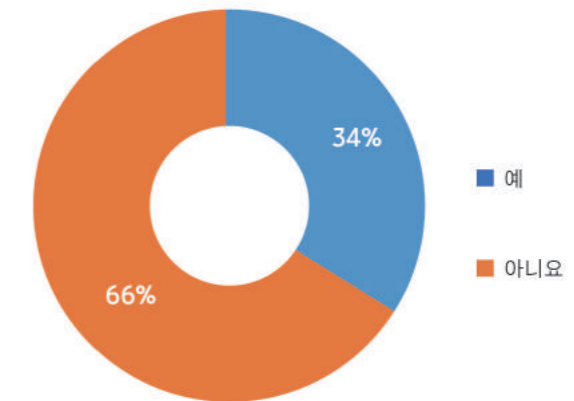
· 응답자 본인 및 가족 중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는 문항으로 해당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특수 사용자에게 대한 응답보다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과 인식, 요구 사항으로 보편적 응답으로 구성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 주요 사용자의 해당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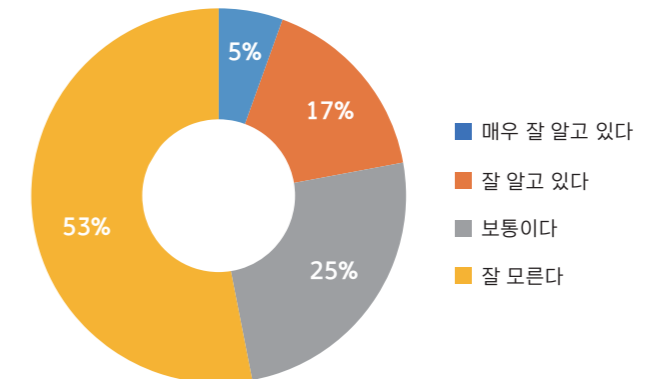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과반수 이상이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의 진행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전달하여 추가 설문을 진행

·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행위
·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 누구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방문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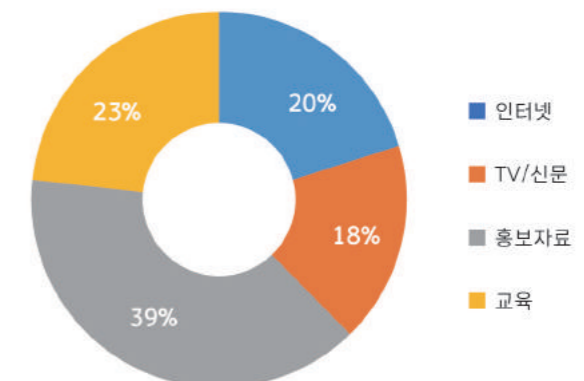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및 이해 >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응답자(69명)에 한하여 이해도를 묻는 문항으로 과반수 이상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낮으며, 해당 용어를 처음 듣게 된 매체로는 인터넷->홍보자료->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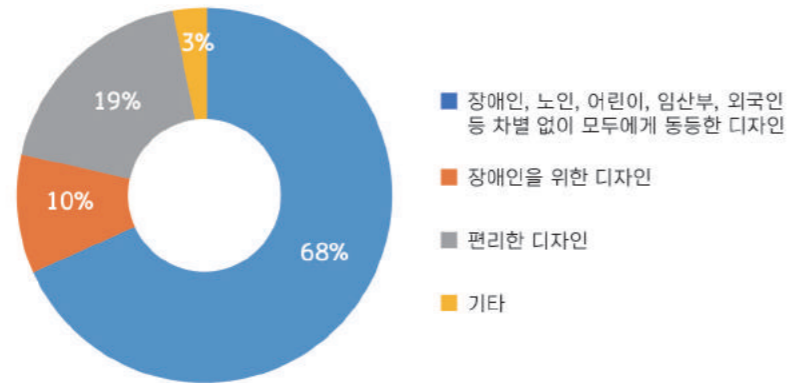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이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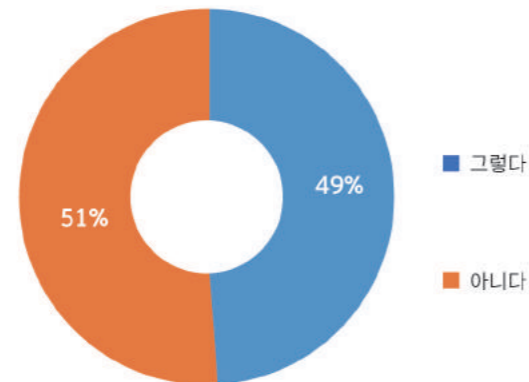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매체 >

·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를 묻는 문항으로 개념 설명 후 과반수 이상이 해당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도 크게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개념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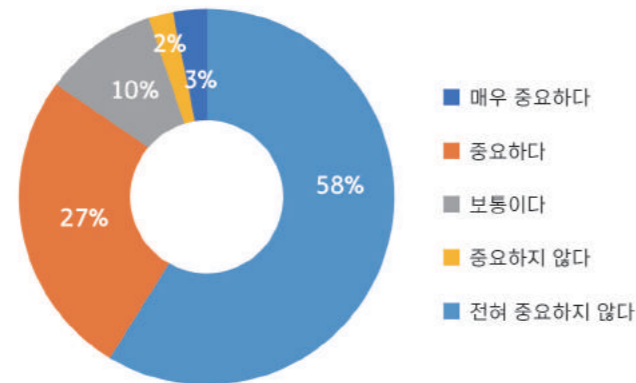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 >

· 유니버설디자인의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사회복지 및 공공성을 위해서 응답이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수가 유니버설디자인의 혜택과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자라 생각하여 응답을 하였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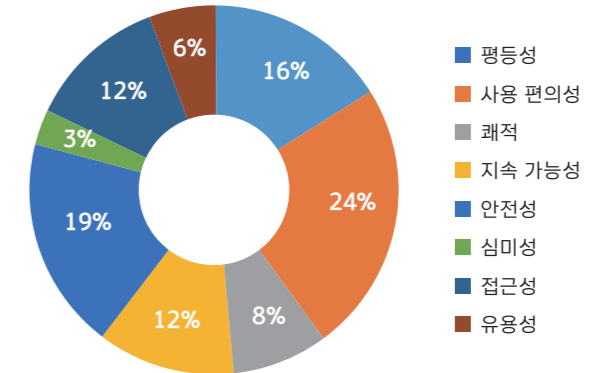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교육 및 인식 확대 필요성 >

· 공공디자인(공간 및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다수가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의 공공성을 위해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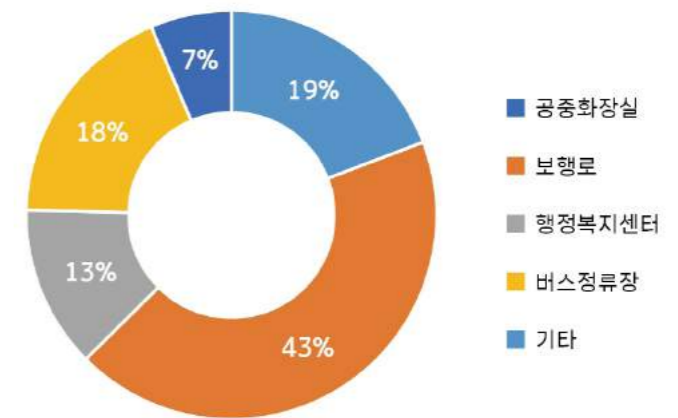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공공디자인 적용 >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가장 우선시 되는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사용편의성(176명)과 안전성(141명), 평등성(126명) 순으로 가장 높게 응답, 디자인 요소와 관계가 높은 심미성(29명)과 유용성(48명), 쾌적성(78명), 접근성(96명)은 낮게 응답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적 요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요인인 평등성이 중요하다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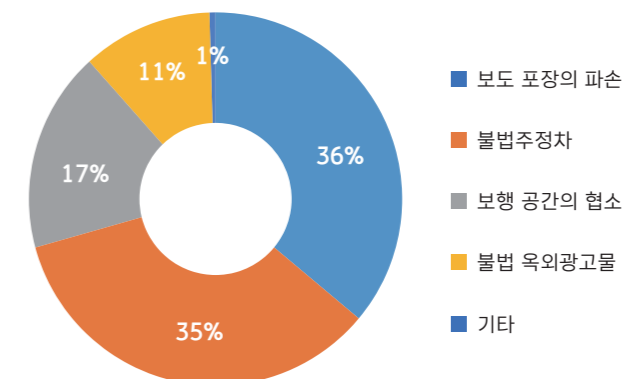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 요소 >

·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시 되는 공간을 묻는 문항으로 보행로(88명), 공중화장실(39명), 버스 정류장(37명), 공공기관(2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공원과 생필품 판매 공간 등으로 응답되어 보행이 가장 높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간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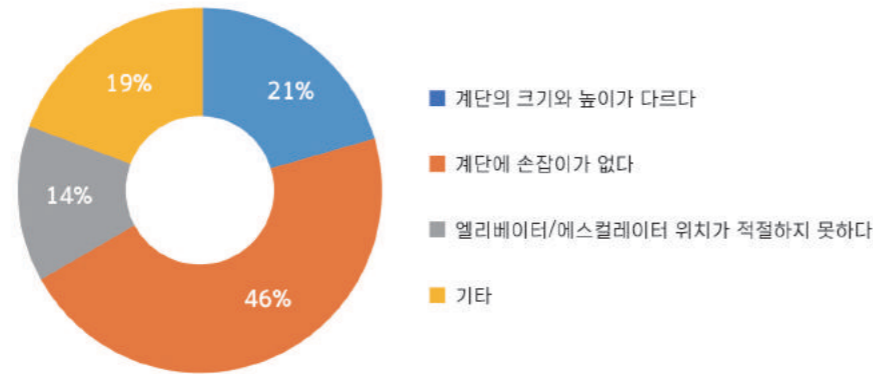
< 부산시민 - 유니버설디자인의 우선 적용 공공공간 >

· 부산광역시 보행로의 불편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보도 포장의 파손(73명), 불법주정차(71명), 보행 공간의 협소(35명), 불법 옥외광고물(23명)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보도 포장의 파손으로 인한 보행 시 불편함과 사고위험, 경관의 훼손 등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제공한다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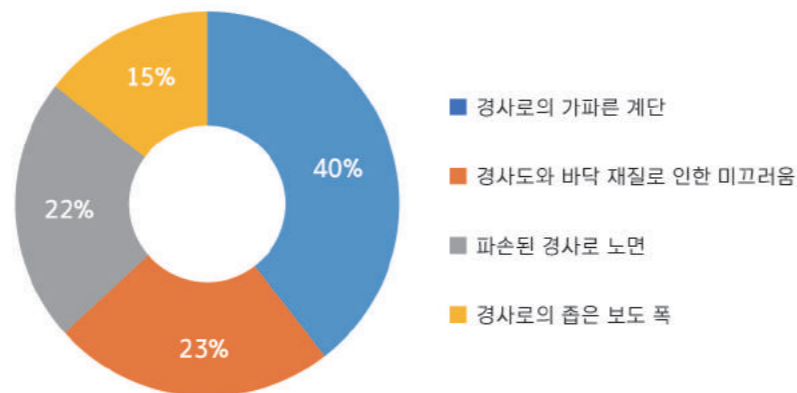
< 부산시민 - 부산광역시 보행로의 문제점 >

· 산지가 많은 부산광역시의 지형적 특징으로 수직적 이동이 많이 발생, 이러한 수직적 이동을 묻는 문항에서 계단과 손잡이(81명)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응답 되었으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이동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 기타 의견으로 이용 시 관리 및 복잡 등의 의견 등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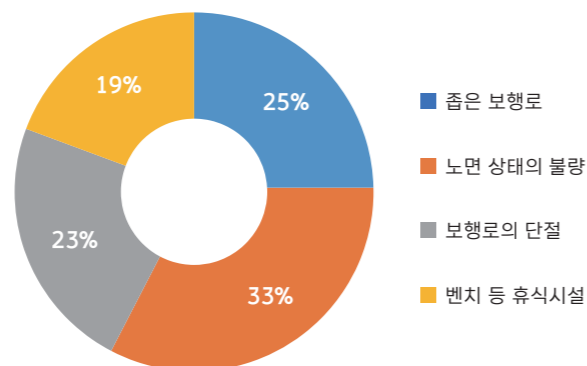
< 부산시민 - 부산광역시 수직 보행 환경의 문제점 >

· 부산광역시 경사로 보행환경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으로 가파른 계단(78명), 재질의 미끄럼 (46명), 보행로의 파손(44명) 순으로 조사되어 높은 경사로와 재질, 관리 등을 문제로 응답, 기타 의견으로 경사로의 좁은 보행로 및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이 다수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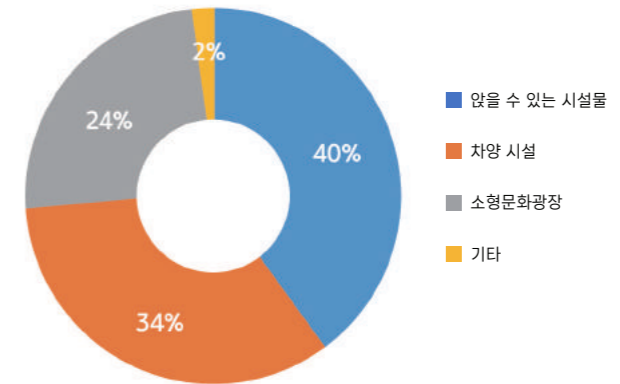
< 부산시민 - 부산광역시 경사로 보행 환경의 문제점 >

· 부산광역시 평지 보행환경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으로 노면 상태의 불량(66명)이 가장 높게 응답, 보행로 폭(50명), 보행로의 단절(46명), 보행 시 휴식시설(3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보행로 폭과 보행로 간의 연결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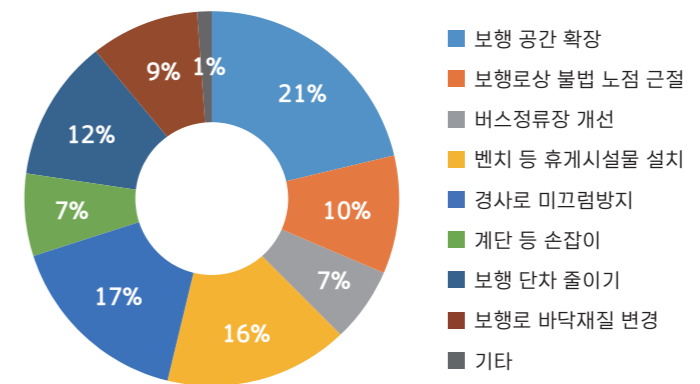
< 부산시민 - 부산광역시 평지 보행 환경의 문제점 >

· 보행 중 필요 시설을 묻는 문항으로 앉을 수 있는 시설물(266명), 차양 시설(220명), 소형문화광장 (185명), 기타(23명) 순으로 응답 되었으며, 보행 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및 차양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에 있어서 도로 폭 기준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 필요



< 부산시민 - 보행 시 필요 시설물 >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보행 공간의 확장(130명), 경사로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100명), 벤치 등 휴게시설물 설치(96명), 보도 위 불법 노점 근절(62명) 순으로 높은 응답이 조사



< 부산시민 - 보행 공간 개선사항 >

3.6 종합분석

3.6.1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1) 공직자 대상 조사의 분석

- 공직자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에 대한 응답이 낮게 조사되었으며, 관련 이해와 사례 등 전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민 홍보와 사업화 전략 동반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위해 예산확보 및 공직자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선행 교육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및 확산을 위한 조직체계로서 도시건축 관련 부서에서 연계할 필요가 높다고 응답, 편제를 묻는 문항으로 국급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반면에 이러한 결과로 인하면 해당 도시건축 부서에 업무를 추가하여 형식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근무공간(공공공간) 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묻는 문항에 보통이라는 응답 및 미적용이라는 부분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공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공직자의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방문객 및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부산광역시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예산 등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행로와 안내 사인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공공공간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곳으로 보행 및 교통 등 공공공간에서의 순위가 높았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2) 부산시민 대상 조사의 분석

- 부산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에 대한 응답 또한 낮게 조사되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도 개념과 이해도가 낮게 조사되었고,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교육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이해와 필요성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대상을 국한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일반인인 다수의 응답자는 혜택과 필요성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응답함
- 공공디자인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중에서는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평등성을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심미성 부분은 낮게 조사되어 무분별한 형태 또는 과도한 표현은 제한하는 디자인 전략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공간을 묻는 조사에서는 보행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사 보행로에서는 가파른 계단 및 노면의 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고, 평지 보행로에서는 노면의 상태 및 좁은 보행로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 이면도로에서는 보행 공간의 협소, 불법주정차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됨으로서 전반적으로 보행로의 노면 상태, 보행 폭, 경사면 등을 유니버설디자인 유형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불법주정차, 불법시설물(노점) 등이 보행 환경을 방해하므로 해당 불법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보행 시 필요 시설물에서는 앉을 수 있는 공공시설물, 차양 시설, 소형문화광장(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부산의 현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인 부산시 각 담당부서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사업 반영 필요

3.6.2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분석

■ 현황별 특징 및 방안

1) 사용자 유형에 따른 분석과 방안



2) 분야에 따른 분석과 방안

구 분	환경 / 지형 분야	안내 / 정보 분야	제도 / 정책 분야	교육 / 홍보 분야
현 황	· 시 차원 환경개선 사업 시 적용될 UD 가이드라인 기준 · 사용자 배려 UD 수립 · 생활안전공간 UD 계획 수립 필요 · 보행로, 교통, 복지 시설에 UD 적용을 위한 가 이 드 라 인 부재	· 다양한 모든 사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체계 구축 필요 · 도시철도, 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 등 교통시설 및 공원 내 안내정보체계 미비	· 기존사업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한 기준, 정책 개선 필요 · 피드백을 통한 기존 사업 평가, 지속적 개선 필요 · 부산 UD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용역수행 · 부산광역시 UD 조례 개선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인식개선 필요 · UD 교육 관련 사업 추진 필요
방 안	·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장소 등에 대한 실행 가능한 UD 가이드라인 구축	· 교통시설 및 공원 등 안내정보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다양한 사용자 이용 가능성 확대)	· 부산 UD 기본계획 및 UD 가이드라인 용역 완료 · 부산광역시 UD 조례 개선 (의무화)	· 교육을 통한 UD 인식 개선 · UD 교육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

“기초가 튼튼한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 각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4.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102
4.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106
4.3 유니버설디자인 육성종합계획	109
4.4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110

4.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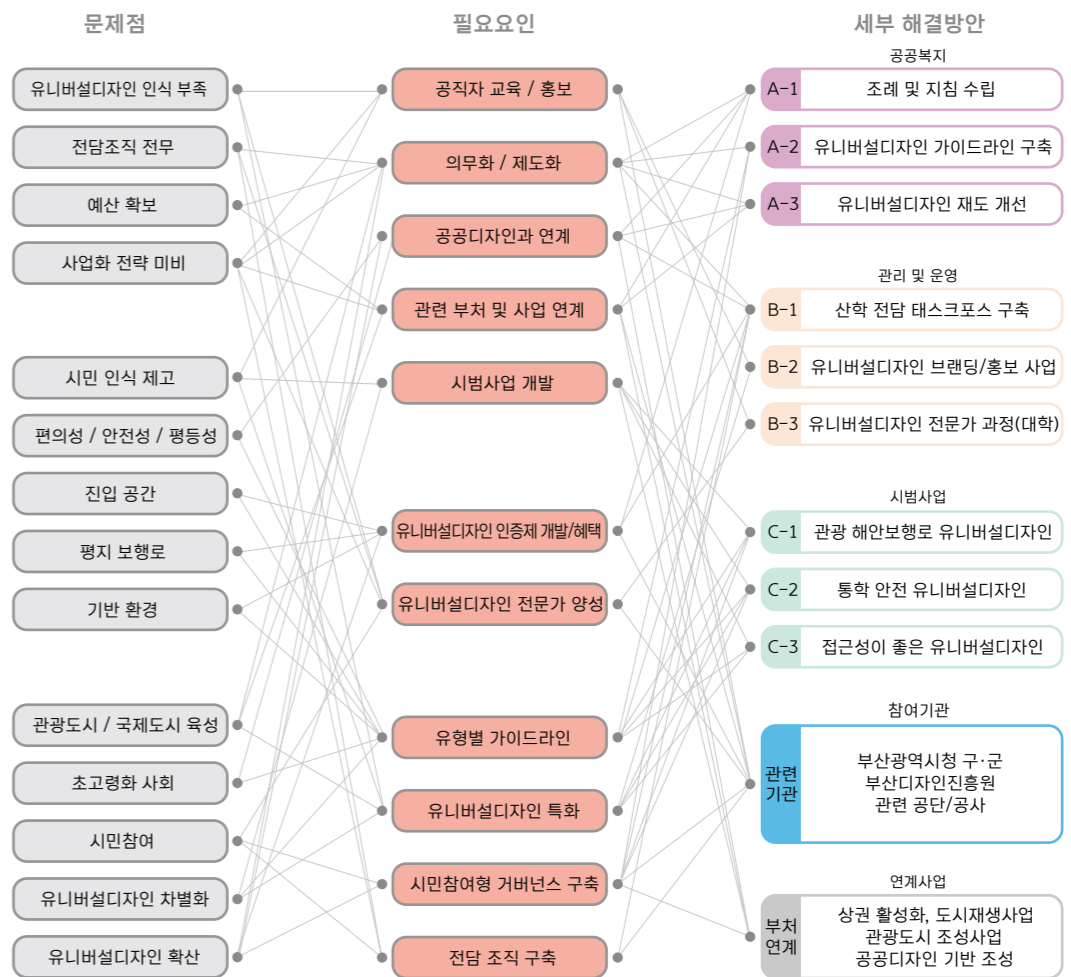
4.1.1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의 방향

1) 계획수립의 전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반면에 공공디자인과 유사하나 연계되지 못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중앙의 추진정책에 맞추어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등 소극적
- 단순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 주로 공공디자인과 같은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기관, 도로, 주거, 상점, 공원, 안내 표지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한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스펙과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한계점 발생
-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통한 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추진기관 및 조직, 예산의 확보가 요구
-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정책은 공공에서 시작하여 민간영역의 생활환경 전반으로 확대함을 목표로 공직자와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까지 포함하여 전개가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학계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 산업을 통해 개발·보급·확산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과 법규로서 뒷받침이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사회 특성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요인들을 추가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비전을 수립하고 활성화와 실질적인 실행력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연계성 및 연속성 :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의 상위 개념의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연속과 확장 방안을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세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 및 사업을 추가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시
- 계획의 연속성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마스터플랜 계획 제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시행 2020.06.17.) 제7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위한 조직 정비로 인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공공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공공건축의 우수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모델 확산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체계 구축
-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인 부산시 각 담당부서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및 사업 반영 필요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보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공직자 및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른다’가 60% 이상으로 인식적인 면이나 확산이 미흡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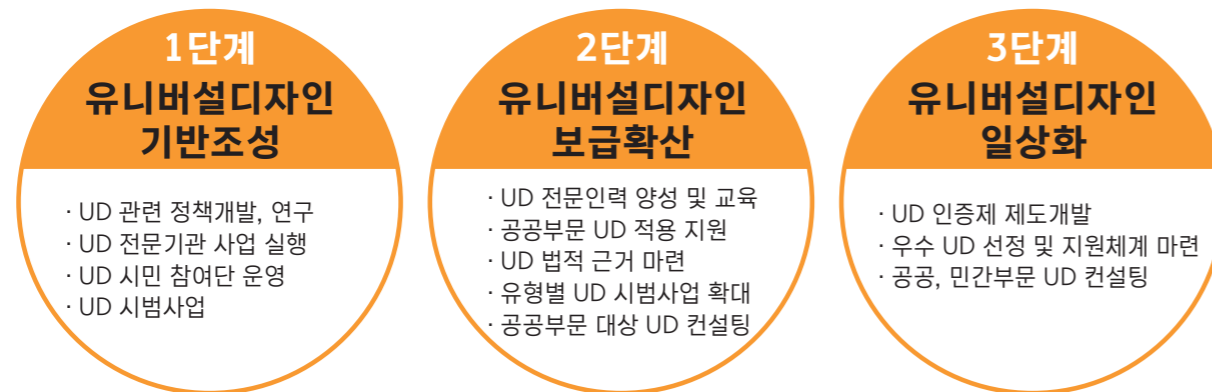
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

- 부산광역시 구·군이 함께 공유하게 될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은 부산광역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체성 있는 비전 설정
- 지역 환경과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디자인 정책을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의 변화까지 포함한 통합적,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
- 유니버설디자인 수립방안의 연결요소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 시범사업과 단계별 세부 과제의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성과를 극대화
 - 부산광역시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맞춤형 사업 추진
 - 장기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응용을 통해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위상 정립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방안 (매트릭스 구조)



3) 계획수립의 단계별 추진 과정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UD)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 유니버설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유형별 테스트베드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계몽 및 교육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컨설팅 시행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보편화 실현

4) 구·군 협력 추진방안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군 교육 추진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전문가 등)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디자인센터 설치 등 통합관리 체계 구축

구 분	부산시	각 구·군
시책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사업 대상지 발굴, 사후 관리
협치·협력	· 구·군 협력 민관 거버넌스구축	· 민관 협치 사업(시민공감 디자인단) 참여
교육·컨설팅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전문가 등)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참여 및 자체 교육 시행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제도 참여 및 활용
홍보·활동	·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와 확산을 위한 홍보 협조
기타	·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4.1.2

목표 및 비전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

누구나 함께 15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부산

2) 비전

- 생활환경 전반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와 디자인 도입
- 부산의 다양한 환경 특성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부산의 도시환경, 사회경제, 인구구조, 미래산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다양한 개성을 포용하는
글로벌 유니버설디자인도시, 부산"

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4원칙

01	안정적인 기반환경조성	안정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 환경 시스템 구축
02	배려하는 공간환경조성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구현
03	자유로운 이동환경조성	누구나 장애없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15분 도시생활권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04	시민을 위한 서비스환경조성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통한 홍보,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서비스 도시환경 구축

4.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4.2.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도시 이미지 비전을 표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 제시
- 사회적·환경적·행정적 변화에 따라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 계획과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및 관련 사업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 접근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추진 방안 모색
-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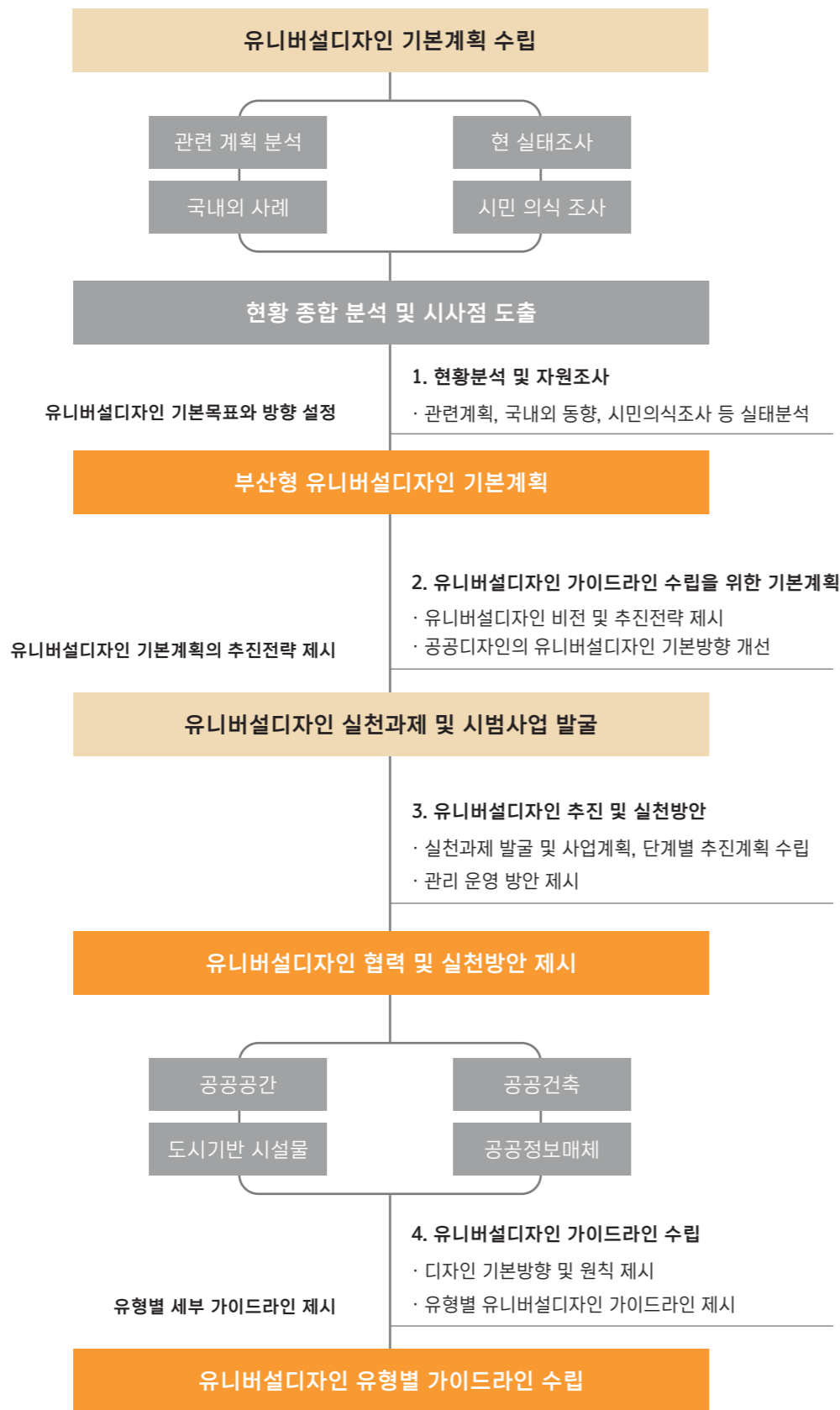
기 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계획'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보 완	<p>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상세한 방안 보완</p> <p>부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단위에서 나타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의 미흡함에 대한 보완</p>
조 정	일부 계획 및 기준 범위에서 중복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기준 및 계획의 검토를 통해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수립 시 조정 필요
검 토	현실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해서는 수용 가능 여부, 이해관계, 안전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무장애디자인(BF)에 기반 된 계획으로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방안



4.2.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체계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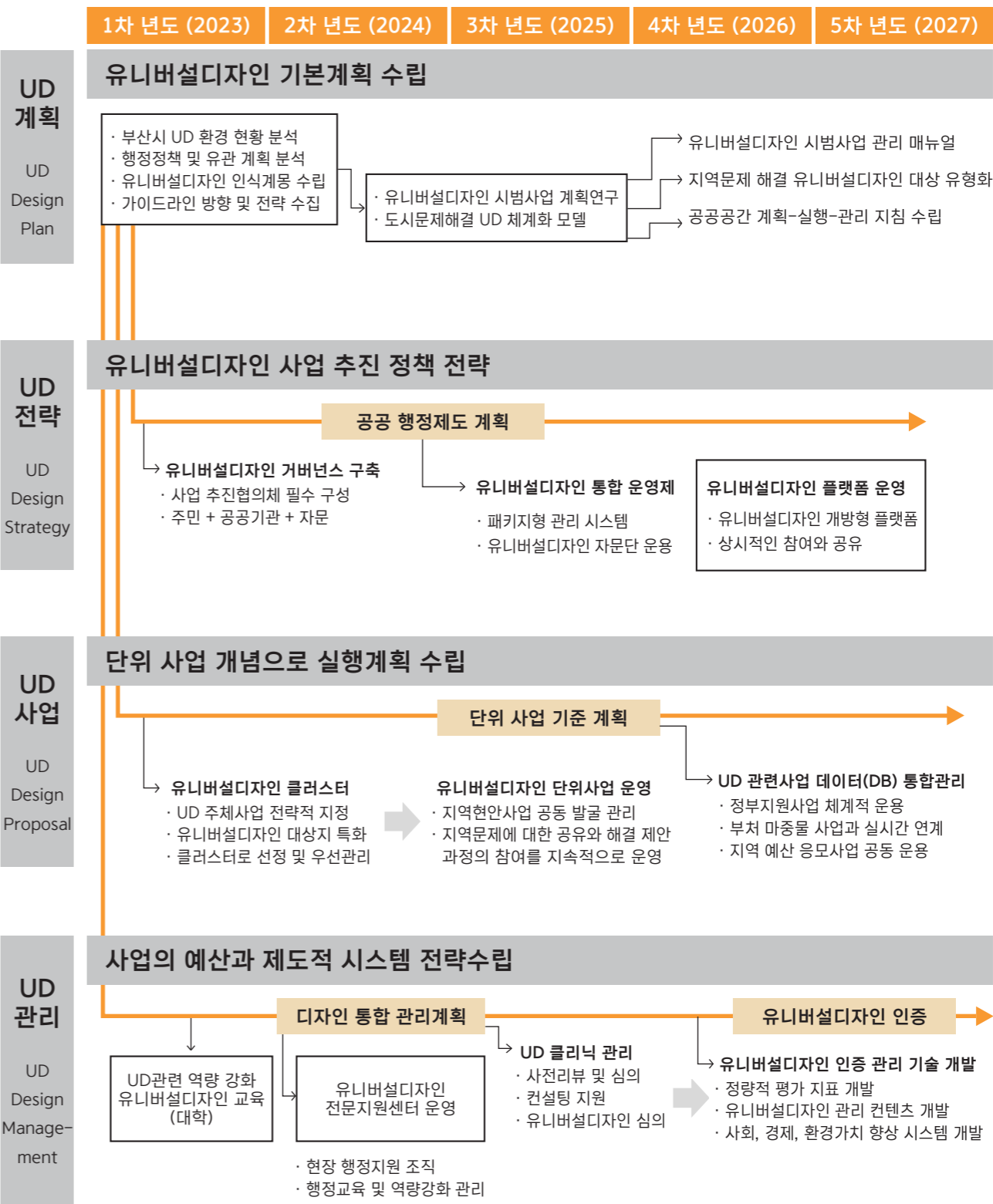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체계



4.3 유니버설디자인 육성종합계획

4.3.1 유니버설디자인(UD) 추진 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추진방안



4.4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4.4.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 추진전략으로 “UD 기반 환경 조성”, “UD 공간 환경 조성”, “UD 이동 환경 조성”, “UD 서비스 환경 조성” 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 세부내용과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함

전략 1. UD 기반 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체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및 컨설팅

전략 2. UD 공간 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부산형 열린 도시 공간 환경 구축

-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 관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 고령자 관련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3. UD 이동 환경 조성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

-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 읽기 쉽고 찾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 보행 환경이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4. UD 서비스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및 홍보 시스템 구축

-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4.4.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사업

1)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우선순위 발굴 및 추진 필요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통계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 대상 및 시기 선정
-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지원 공모사업 추진할 사업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분야별 공모사업 중 부산시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
- 기본설계 단계의 대상지별 공간, 시설, 매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 사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료 마련 및 프로그램 사업 제시
- 마중물 사업 및 부처협업사업 등 국가 공모 지원 안 수준으로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전략별 실행방안

5.1 단계별 추진 계획	114
5.2 UD 기반 환경 조성	116
5.3 UD 공간 환경 조성	129
5.4 UD 이동 환경 조성	137
5.5 UD 서비스 환경 조성	145

5.1 단계별 추진 계획

5.1.1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추진 사업 계획

추진전략	사업명	단기 2024	중기 2025~2026		장기 2027~2028		비고
UD기반 환경조성	1-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1-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실태조사			○			
	1-3.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	○	○	
	1-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	○	○	
	1-5.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	○	
	1-6. 시민 교육 기반 마련 및 아카데미 운영	○	○	○	○	○	
	1-7. 어린이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	○	○	○	○	
	1-8.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	○	
	1-9.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	○	○	○	
UD공간 환경조성	2-1. 공공/복지 시설물 접근환경 개선	○	○	○	○	○	시범 사업
	2-2. 진입 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	○	○	○	○	시범 사업
	2-3.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	○	○	○	○	○	시범 사업
	2-4.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	○	○	○	○	
	2-5. 세대 복합형 스마트 노인복지회관 조성		○	○	○	○	
UD이동 환경조성	3-1. 해양 이동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강화	○		○		○	시범 사업
	3-2.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	○	○	○	○	
	3-3.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정보 체계 가이드라인 구축		○				
	3-4.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앱 개발 및 배포		○				
	3-5.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개선	○		○		○	
UD서비스 환경조성	4-1. 홍보매체 개발(웹사이트) 및 운영		○	○	○	○	
	4-2.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기획·운영	○	○	○	○	○	

5.1.2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예산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전략	사업명	단기 2024	중기 2025-2026		장기 2027-2028		비고
UD기반 환경조성	1-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00		
	1-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실태조사		120				
	1-3.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2	12	12	12	12	
	1-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300	300	300	300	
	1-5.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	20	20	20	20	
	1-6. 시민 교육 기반 마련 및 아카데미 운영	20	20	20	20	20	
	1-7. 어린이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20	20	20	20	20	
	1-8.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50		
	1-9.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20	20	20	20	20	
UD공간 환경조성	2-1. 공공/복지 시설물 접근환경 개선	200	200	200	200	200	시범 사업
	2-2. 진입 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200	200	200	200	200	시범 사업
	2-3.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	700	700	700	700	700	시범 사업
	2-4.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300	300	300	300	300	
	2-5. 세대 복합형 스마트 노인복지회관 조성		800	800	800	800	
UD이동 환경조성	3-1. 해양 이동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강화	350	350		350		시범 사업
	3-2.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200	200	200	200	200	
	3-3.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정보 체계 가이드라인 구축		200				
	3-4.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앱 개발 및 배포		1,000				
	3-5.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개선	500		500		500	
UD서비스 환경조성	4-1. 홍보매체 개발(웹사이트) 및 운영		50				
	4-2.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기획·운영	30	30	30	30	30	

5.2 UD 기반 환경 조성

5.2.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1) 기획 목적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를 위한 사전 기반 구축

2) 추진 방향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시행 2020. 6. 17) 제7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각 사업부서별 세부사업 제안 및 자치구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및 기반을 조성하여 부산만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
- 부산이 지향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천전략 체계 마련 및 구조를 제시함
- 장기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조사하고 현 시점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을 파악함

3) 기대 효과

-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수립하여 나감
- 새로운 정책과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함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1-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실태조사

사업명	1-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각 사업부서별 세부사업 제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을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로 구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및 보급을 원활히 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년 마다 시대변화와 특성 변화에 따른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재정비· 기존 기본계획의 조사 분석 및 종합 평가·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개발 및 실행 방안 제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민의식 개선 방안 마련· 시민 대상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공공사업에 대한 시/자치구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계획 수립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2028년 (5개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소요예산 : 200백만원
관련 사례	

사업명	1-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실태조사
사업 목적	· 계획 목표의 달성도 조사 및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정착 및 지속 가능한 체계를 조성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후 실태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조사 · 정책 및 실행사업 평가를 통해 2년 마다 정책방향 및 계획을 수정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및 시민 인식 수준 조사를 통해 정책 달성도의 지표 활용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 이행률 평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적용 실태조사 ·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선별 후 책자 제작 및 데이터 자료 배포 ·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보완 전략 수립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후)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관련 사례	

5.2.2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1) 기획 목적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에 관한 기준 정립

2) 추진 방향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시행 2020.06.17) 제13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발굴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부산시 공공디자인 관련 소속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계약직 공무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부산시 소속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각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독립된 기구와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산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 가능한 관리 조건과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1-3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명	1-3.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업계획 및 관련 조례의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그룹의 조성이 필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의원,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도시계획·건축·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12백만원

사업명	1-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업무의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운영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활용 방안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직 및 운영방안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구성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처 방안 마련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설치 방안 계획), 2025년~ (설치·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관련 사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련 사업을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련 공공기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인력(팀) 배치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 관련 업무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등을 수행 - 공공기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팀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및 컨설팅 업무,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 수행

5.2.3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양성 및 교육

1) 기획 목적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계획 및 실행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

2) 추진 방향

- 실효성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함
- 공공건축물, 보행자도로, 공원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실무교육을 편성
- 공무원들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업무와 연관성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흥미 유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종 공모전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및 확산되도록 유도

3) 기대 효과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산시 공무원 및 시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교육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1-5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	시민 교육 기반 마련 및 아카데미 운영
1-7	어린이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사업명	1-5.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 및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확보 및 교육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관광, 교통, 건축, 복지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적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부산시 및 자치구 등에 배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우수 사례집 발간· 교육 콘텐츠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2024년 ~· 소요예산 : 2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사업명	1-6. 시민 교육 기반 마련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행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 실행 ·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공모전을 통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및 인식 확산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별 설명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 콘텐츠 제작 -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등 대상별 교육 콘텐츠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초 이론 및 실무디자인 학습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 소요예산 : 2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사업명	1-7. 어린이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산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불편한 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체험교육을 실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외부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 관계자들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우선 추진 ·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에 대한(휠체어 및 안대 착용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지도에 표기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공유 · 통학로 내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유도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 교육 관련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 소요예산 : 2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5.2.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및 컨설팅 방안

1) 기획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 의무가 필요함
- 부산시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최소한의 접근성과 이용성 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자체 인증 제도가 필요함

2) 추진 방향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적용 의무시설 이외 신축과 증·개축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인증은 우선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며,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을 마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인증의 경우 현장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설치 전에 상세도면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컨설팅 시행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및 컨설팅 업무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또는 전담팀에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며,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인증 시설에 부착하도록 함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외 홍보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

3) 기대 효과

- 현행 국가(중앙정부)의 인증제도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의무적용 시설이 신축 공공시설물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도입 하여 다양한 시설물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1-8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1-9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명	1-8.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사업 목적	· 부산시의 현실과 여건에 적합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마련 필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건축물 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 ·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내에 인증본부 설치 운영 · 부산시 내·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참여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평가 체계 수립 병행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7년(인증제도 개발), 2028년(운영) · 소요예산 : 50백만원(인증제도 개발)
관련 사례	 

사업명	1-9.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 목적	· 부산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 별도의 심의를 받는 공공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획 과정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적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내용	<p>· (단기) 공공건축 및 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p> <p>–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 컨설팅 지원</p> <p>– 공공부문 사업 계획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컨설팅 지원</p> <p>· (장기) 공공건축 및 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p> <p>– 건축계획 단계에서 부산시 공공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컨설팅 의무화 (조례 개정)</p> <p>– 적용대상 : 공공건축물 중 설계비용 5천만원 이상</p>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p>· 시행시기 : 2024년 ~</p> <p>· 소요예산 : 20백만원 (연간)</p>
관련 사례	 

5.3 UD 공간 환경 조성

5.3.1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부산시민 및 부산을 찾는 관광객 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 시 가이드라인 적용
-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이 적용된 신축 공공건축물의 내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환경에 가깝게 조성되어가고 있으나 건축물 내부가 아닌 건축물 접근공간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이 적용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공공/복지 시설로 진입하는 구간에 단차가 있거나 계단으로만 진입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통해 누구나 진입 가능한 환경 조성
- 보도 턱 낮춤과 점자블럭 및 볼라드 설치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로 접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기대 효과

- 공공시설물 진입 장애로 인한 접근환경의 문제, 보행 안전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2-1	공공/복지 시설물 접근환경 개선
2-2	진입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사업명	2-1. 공공/복지 시설물 접근환경 개선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지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시각·청각·지적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 제공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복지 시설물 주변 접근로 및 내부공간에 픽토그램 및 외국어를 혼용 표기한 안내사인 및 유도사인을 개발 후 설치 ·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한 키오스크 설치 · 시각·청각·지적 장애 및 외국인, 비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법 개발 후 적용 ·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경로 안내 등의 이동 지원 방법 적용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사업명	2-2. 진입 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F 인증 제도의 실행 의무화 이전(2015년)에 준공된 공공건축물의 진입공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 · 공공/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 ·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 및 시설이용자 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공/복지 시설물에 대한 진입공간 분석 · 공공/복지 시설물 출입 경로 내에 존재하는 단차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출입 공간에 경사로 설치 · 출입 경로 내 불필요한 장애물 제거 · 시설 주변 보도 턱 낮춤 및 점형블럭, 안전 볼라드 설치 · 공개공지를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5.3.2 관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지 조성으로 부산만의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특성화

2) 추진 방향

- 상대적으로 관광지역의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대표적인 관광지역(광안리해수욕장 등)을 찾는 부산시민 및 외부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지역들에 부산의 이미지가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부산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문화 수단으로 활용
- 방문량 및 기타 접근사항들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나누어 적용

3) 기대 효과

· 부산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단순한 정비가 아닌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환경 실현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2-3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
2-4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명	2-3.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대표적 관광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특성화 거리 조성·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관광 인프라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등 관광 약자가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및 정보시설 등의 시설물 개선·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의 방문 빈도 및 기타 접근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 실행·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디자인 요소 개발· 기존 관광지 인근 거리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특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요소 발굴 및 홍보· 기존의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응용 방안 모색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소요예산 : 7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사업명	2-4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관광도시 위상에 걸맞은 공중화장실 내·외부 공간의 개선 필요(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 대하여 차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특색 있는 화장실 디자인으로 주요 관광지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필요· 공중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시민의 안정성과 편리성 보장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정 검토·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시설 및 설비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기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준수· 이용객 사용률이 높으나 노후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미적용 후보 대상지 선정· 부산교통공사 협업을 통하여 역사 내 개·보수 필요 후보 대상지 선정·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배치· 남녀 화장실 내 경증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 가능한 대변기 부스 설치· 중증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이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설치· 부산시 관광지 및 도시철도 역사 내 공중화장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개·보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적용)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소요예산 : 3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5.3.3

고령자 관련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부산시 내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성 강화 및 사고 예방에 기여

2) 추진 방향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부산시의 실태를 반영하여 고령자와 청년들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고 있어 이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와 관점에서 물리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주요 고령자 관련 시설(노인복지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 필요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3) 기대 효과

- 고령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며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공간 환경 조성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2-5	세대 복합형 스마트 노인복지회관 조성

사업명	2-5 세대 복합형 스마트 노인복지회관 조성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령자를 위한 건강 복지 문화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고령자뿐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공간 조성으로 세대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 기대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내 고령자 인구 실태 조사 및 노인복지회관 현황 분석 후 리모델링 우선 구역 선정 · 시설물의 진·출입구 및 내부 이동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경 개선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여 세대 복합 공간으로 재배치 · 고령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지 건강 디자인 시설물 계획 및 설치 · 헬스 케어 키오스크 등의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고 인근 병원들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관련시설 : 다목적실, 강의실, 장기/바둑실, 활동실, 도예/미술실, 서예실, 음악실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5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8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5.4 UD 이동 환경 조성

5.4.1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대

2) 추진 방향

·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경 개선, 일상 생활환경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확대

·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 도시철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통약자의 편의성 개선

3) 기대 효과

·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 제고,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대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3-1	해양 이동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강화
3-2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사업명	3-1 해양 이동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강화
사업 목적	· 부산의 국제 관문인 해양 이동 시설(국제여객터미널, 부산신항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국제 해양 물류 도시로서의 기틀 마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내 해양 이동 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외국 선진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 · 대기 공간 및 이동 공간에 대한 계획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성하되 특수한 상황 및 환경의 경우 보행 약자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 ·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정보 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 사인물 계획 및 설치 · 주출입구, 매표 공간, 대기 공간, 복도, 탑승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환경 조성 · 시설물 외부 상징물을 설치하여 인지성 강화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35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사업명	3-2 대중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의 제약을 많이 받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 사항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환경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와 이용 편의성 개선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 도시철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칸을 시범 설치 · 휠체어 전용공간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범위 이외 불편 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 · 탑승구와 탑승 경로의 간격 및 단차를 고려한 계획 및 리모델링 · 다국어 음성지원 시스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 등 적용 · 열차와의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리모델링 · 도시철도 공간 및 시설 요소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사인 및 색채 계획 · 주요시설 : 점자 유도 안내판, 이중난간, 대형 출구번호 안내체계, 휠체어 공간을 위한 접이식 의자 공간, 높낮이 조절 손잡이 등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5.4.2 읽기 쉽고 찾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수요자의 맞춤형 디자인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유니버설 정보디자인

2) 추진 방향

-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자인,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도시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 등에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더욱 쉬운 접근성, 쾌적성, 안정성 제공
- 사용자 중심의 공간 환경 분석으로 스마트한 안내 표지 디자인 및 안내표지판의 체계성 및 가독성 개선
- 주요 관광지 내 관광객 특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 표지판 개선 추진
- 현행 표지판 정보 콘텐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 배치, 정보 양, 안내지도 등 유니버설디자인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부산시 내 어디서든 정보를 얻기가 쉽도록 통일성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한정된 공간 안 다양한 정보 전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사용자 편의 증대

3) 기대 효과

- 안내 사인 시스템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하고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디자인하여 글로벌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틀 마련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3-3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정보 체계 가이드라인
3-4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앱 개발 및 배포

사업명	3-3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정보 체계 가이드라인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역 요소들의 특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시인성, 판독성, 통일성 제공· 외국인 방문객 등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국제도시 구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성, 시인성, 국제성이 확보된 사인 시스템 개발· 부산시 안내정보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계획· 안내체계에 대한 세부 형태·색채·기능·설치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방향성 계획· 방문객의 시인성, 판독성을 고려한 안내 정보를 마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 주변 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디자인 계획 구상· 사업대상물 : 교통 관련 안내표기, 보행 관련 안내 정보, 안전 관련 안내 정보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2024년· 소요예산 : 200백만원
관련 사례	<div></div>

사업명	3-4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앱 개발 및 배포
사업 목적	· 부산시 내 보행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쉽고 편리한 최적의 경로 데이터 구축, 정보 제공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이동 관련 지형적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로 구축 ·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목적지로의 원만한 이동 여부의 조건이 되는 경로상의 접근 저해요소 종류와 위치, 노면과 지형적 특징 등을 반영한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 경로 안내 시 방문객에게 방문지역의 흥미를 유발하는 간략하고 직관적인 아이콘 및 일러스트레이션 제공 ·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전문 자문단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앱 개발 및 홍보·운영 관리 · 부산 보행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정보 제공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5년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관련 사례	 

5.4.3

보행 환경이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모두에게 장애가 없는 접근성이 좋은 보행환경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의 편리성 추구

2) 추진 방향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단차가 없고 경사가가 발행하지 않는 공공환경 및 가로 개선 사업 실행
- 부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 보도의 안전범위 확보를 위해 보행장애물의 침범을 제한하여 안전구역의 유효폭 확보
-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 부산시에서 실행 중인 정책 중의 하나인 “15분 생활도시 부산 ” 과 연계하여 부산 시민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공간 및 시설물 계획 필요
-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 확대 검토

3) 기대 효과

- 보행환경의 다양한 문제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사업을 통해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 만족도 향상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3-5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개선

사업명	3-5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유효 폭 확보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약자의 보행 만족도 향상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유효 폭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행로 내 보행 방해 요인 (식재, 시설물 등) 정비 - 안정성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로 폭을 축소하여 보행 폭 확보 · 보행 공간 경사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안전시설물(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적용 · 보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블럭 미 설치 구간에 대한 신규 설치 및 보완 - 경계석과 보도블럭 사이에 높은 단차가 없도록 정비
추진 주체	· 관련기관 및 부서
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 2024년 / 2026년 / 2028년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관련 사례	 

5.5 UD 서비스 환경 조성

5.5.1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1) 기획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제고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구상

2)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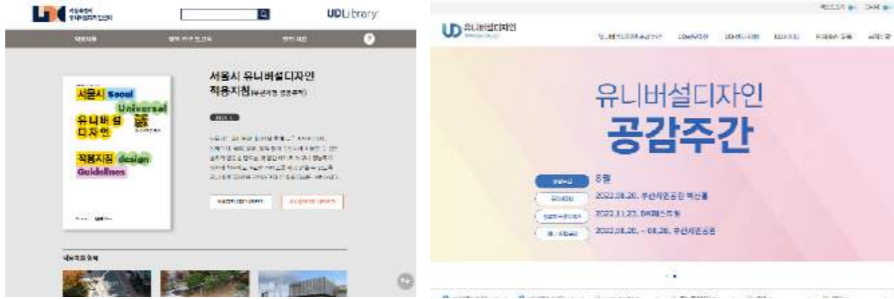
-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민의 생활환경 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공모전 등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조성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 캠페인 등 홍보 활동 기획 등을 통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자발적 참여 유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기대 효과

-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민간 확산 유도

4) 추진 사업 제안

NO.	사업 내용
4-1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4-2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기획·운영

사업명	4-1 홍보매체 개발(웹사이트) 및 운영
사업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관련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식하고 부산시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홍보자료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웹사이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종합 정보 게재 - 부산 내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소개 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건축물 및 업체 홍보(인증제에 관한 인센티브)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 기본계획, 정책, 가이드라인 등 기존 개발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UI(User Interface) 개발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 시행시기 : 2025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50백만원
관련 사례	

사업명	4-2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기획·운영
사업 목적	·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 발굴 · 부산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부산시민 참여 기회 확대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 - 공공환경 개선 - 문화환경 개선 - 그 외 기타 · 공모전 상금 및 인센티브 부여 ·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전시회 개최 · 공모전 아이디어의 실행 사업화 방안 계획
추진 주체	· 공공도시디자인과
기간/예산	· 시행시기 : 2024년 ~ (연차별로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30백만원 (연간)
관련 사례	

시범사업 추진계획

6.1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150
6.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52

6

6.1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6.1.1 UD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 시범사업 배경

- 부산광역시 전략별 주요 추진사업에 '막힘없이 걷기 좋은 부산'으로 보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15분 생활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생활이 편리한 '접근성' 분야에서 보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생활 보행권 단위 실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지역 주민의 활용 영역을 고려한 생활 보행권 단위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야별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 목적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 구현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구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적인 요소 제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부산시 청사 및 각 구·군 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한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점진적 확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환경 구현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기능적 공간 및 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6.1.2 UD 시범사업 근거 및 필요성

■ 공공시설물 접근 환경

-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최소 필요 정보와 최대 필요 정보로 구분하고 필요한 정보가 위치하기 위하여 정보안내 체계 개선
- 공공시설물을 찾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상황의 보행 약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수단 제공

■ 진입 공간 접근을 위한 환경

- 고령자, 장애인, 유아 동반 가족, 다문화 가정, 무거운 짐을 소지한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방문객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부산시민들의 생활권 내 주요 장소별 가장 많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접근 개선이 시급함
- 행정복지센터 접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관광 특성화 환경

-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관광도시 부산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 해양 친수공간의 매력을 보유한 부산에서 이미 열린관광지로 지정된 해운대해수욕장을 제외한 방문율이 높은 해수욕장 및 해변 공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이 필요함
- 사회적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행로를 지나 해변 가까이 가서 수변 공간의 관광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특성화 거리 계획

■ 해양 관련 시설 접근 환경

- 해양 관련 시설(관문) 주변 접근로 및 내부공간에 픽토그램 및 외국어를 혼용 표기한 안내사인 및 유도사인 설치
- 부산의 관문이 되는 항만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부산의 관문인만큼 외국인, 외부 관광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정보체계 조성



6.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6.2.1 UD 시범사업 - 공공시설물 접근환경 개선

1) 공공시설물(공공건축) 접근환경 시범사업의 배경

- 공공건축 및 시설물, 공원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상황의 보행 약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 마련

사용자 중심 User-Centric



사용자 관점의
효율적인 보행
안내정보 제공

-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고려가 필요한 수요자의 특성에 맞도록 감각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성 향상

접근성 향상 Accessibility improvements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지원

- 안내표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하여 공평한 접근성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 되어야 함

인지성 강화 Cognitive Enhancement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색채를 사용하여
모든 이용자를 포용

-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최소 필요 정보와 최대 필요 정보로 구분하고 필요한 정보가 위치하기 위하여 정보안내 체계 개선

2) 공공시설물 접근환경 시범사업

위 치 (부산역 일대)

- 부산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시설인 부산역의 접근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공연장,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도 사업을 진행



대상지 현황



외부 방향 안내 사인물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되어 있고 가독성이 떨어짐

버스 승강장

버스 하차 후 이동 방향에
대한 안내 정보가 없음

외부 입간판

인지성이 부족한 사인물로
대상 시설물에 관한 직관적
인 설명이 떨어짐



지하철 내부 통행로

방향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요소 부족

부산역 연결 지하 출입구

부산역 방향 연결 출입구의
인지성이 떨어짐

부산역 안내 사인물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
가 없음

3) 공공시설물 접근환경 시범사업 내용

■ 목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환경 개선

■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 주변 접근로 및 내부공간에 픽토그램 및 외국어를 혼용 표기한 안내사인 및 유도사인 설치
-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및 외국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개발

■ 사업내용

① 외부 - 방향 안내 사인을 설치

- 다국어나 픽토그램을 활용한 방향 안내 사인물



호주 브리즈번 다국어 병기 안내사인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안내 사인

② 외부 - 주출입구 입구 사인 설치

- 공공시설을 나타낼 수 있는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 계획



문자를 활용한 출입구 사인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입구 사인

③ 외부 -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 대부분의 충전소가 관공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야간에 사용의 불편이 있음
-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진입로 인근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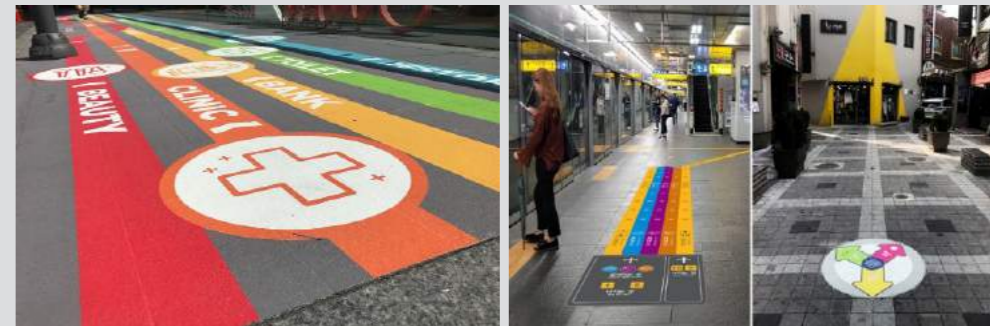


진주성 공원 내 전동휠체어 충전소

서울시 노원구 전동보장구 충전기

④ 지하도 - 바닥 안내 그래픽 조성(웨이파인딩)

- 지하도 바닥에 방향을 표기한 안내사인물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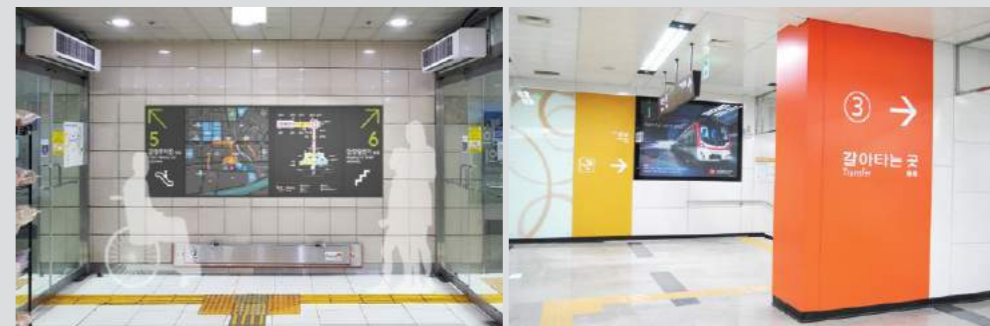


서울 스퀘어 바닥광고+웨이파인딩

지하철과 전통시장 적용사례

⑤ 지하도 - 방향 안내 사인물 설치

- 지하도 무질서한 방향 안내 사인물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재정비



안양시 일번가 지하상가

역사 별 색상으로 구분한 신분당선

- 인지성이 떨어지고 산만한 입구 진입부를 정비하고 계단에 안전 난간 및 컬러 논슬립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강화



경기도 화전역 지하보도 게이트



안전난간 및 논슬립(컬러)설치

⑦ 지하도 - 부산역 안내 키오스크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키오스를 설치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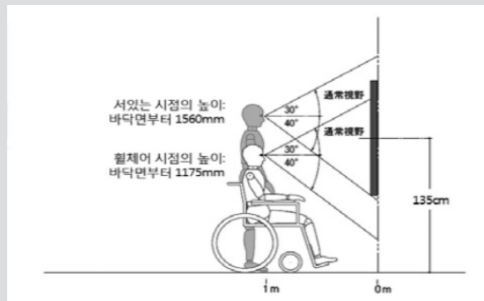
점자 패드 및 음성 안내 등의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



부산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⑧ 공통 -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환경 안내사인 체계 연구

-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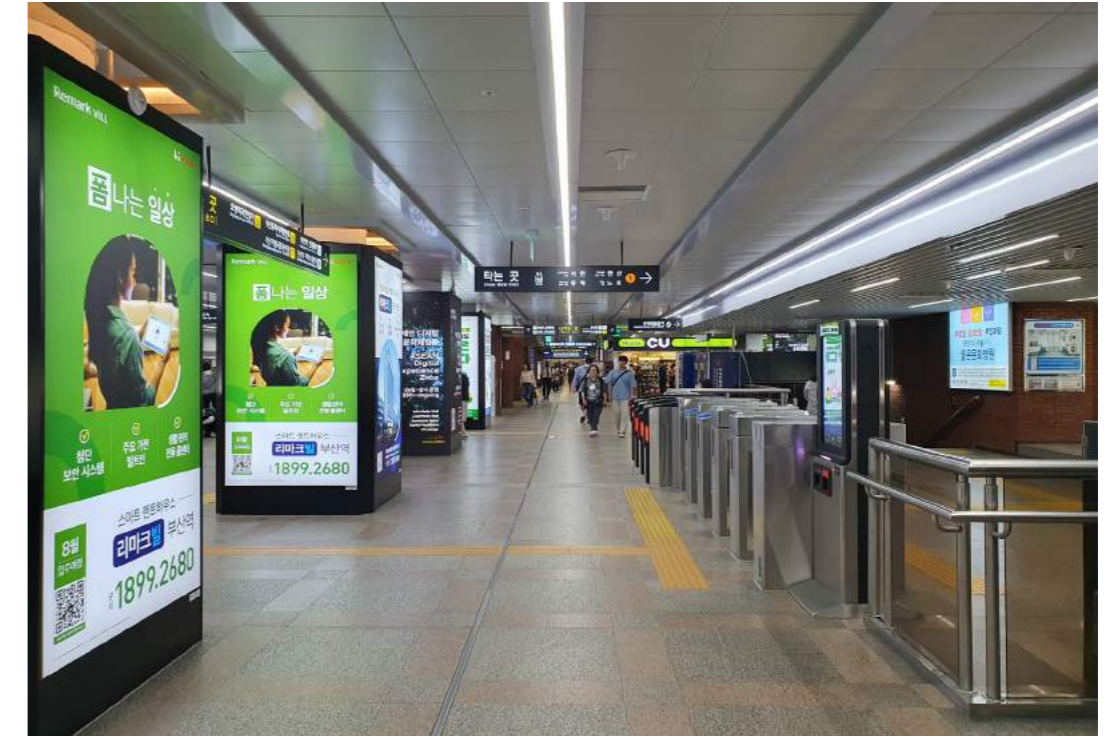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기관에 대한
이동 관련 가이드라인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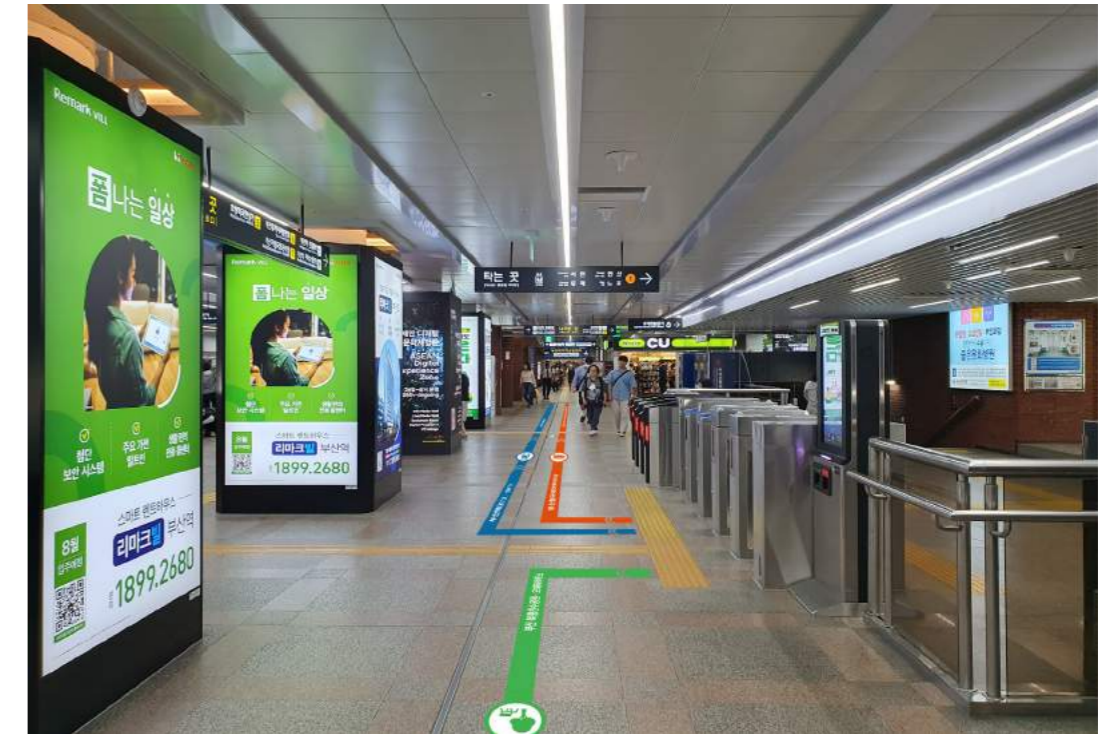
일본 요코하마의 보행자 안내 체계

4) 공공시설물 접근환경 시범사업 전, 후 (예시)

■ 사업 전



■ 사업 후



- 부산역을 찾는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

6.2.2 UD 시범사업 - 진입 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1) 진입 공간 환경 개선 시범사업 배경

- 주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 서비스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 공공기관 방문 시 누구나 진입이 용이하도록 포용하는 진입 환경 구축

진입환경 Entrance Environment



누구나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 개인이 가진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행정적 환경 구축

편리한 생활 Convenient Life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방문하는
생활권역 구축

- 누구나 편리한 생활권역에서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을 조성

행정서비스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장애유무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의 보장

- 행정기관 방문 시 불편함이 없고, 장애유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주어지는 UD 환경 구축

2) 진입 공간 환경 개선 시범사업

위 치 (동구 초량1,2,3,6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권 내에서 자주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누구나 진입하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진입 환경 구축 계획
-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도 부산 내 고령화 지표가 가장 높은 동구 초량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UD 진입 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함



대상지 현황		
좁은 진입 램프 구간 휠체어, 유모차 등 진입하기 에 너무 좁은 램프	보행로를 침범한 램프 발걸림 등 보행에 있어 안전 사고 초래 위험	열기 힘든 여닫이 문 짐을 들고 있거나 유모차, 휠체어 동반 시 어려움
연령대에 맞지 않는 디자인 어린 연령대를 위한 벽면 구성은 공감도가 부족함	행정복지센터 인지 어려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간판 부재	활용성 낮은 쉼터 공간 쉼터이지만 차양시설이 없어 실 이용객이 적은 편

3) 진입 공간 환경 개선 시범사업 내용

■ 목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누구나 진입이 용이하도록 포용하는 진입 환경 구축

■ 기본방향

-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외부의 진입 환경 개선
- 고령자 방문율이 높은 동구 초량동 주민센터의 접근도를 높여 행정서비스 범위 확장

■ 사업내용

① 행정복지센터 좁은 진입 램프 개선

-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등 진입 시 경사도를 낮추고 회전반경 고려



램프 양 측면 안전 핸드레일 설치



넓고, 회전반경이 넓은 램프로 개선

② 진입 램프 경사도 환경 개선

- 보행로를 침범한 램프를 철거하고 측면 쉼터 공간을 활용한 램프 경사도 개선



램프를 완만한 경사도로 설치



보다 효율이 높은 공간 활용을 통한 개선

③ 문턱 제거 및 기존 여닫이 문을 자동 출입문으로 재정비

- 짐을 든 사람, 휠체어, 유모차, 유아 동반 등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동문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자동문



문턱을 없애 출입이 자유로운 자동문

④ 차양 및 차수를 위한 입구 캐노피 구조물 설치

- 날씨 환경에 따라 출입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차양 캐노피 설치



자동 출입문 앞 차양 캐노피 설치



차양/차수를 위해 건물 전체 면에 설치

⑤ 행정복지센터 앞 작은 쉼터공간 조성

- 누구나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주민센터 앞 작은 쉼터 공간 구성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설치

4) 진입 공간 환경 개선 시범사업 전, 후 (예시)

■ 사업 전



· 일상속에서 흔히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지만 기본적인 간판도 찾기 어렵고, 다양한 여건의 사람들이 진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사업 후



·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외부의 진입 환경 개선

5) 진입 공간 환경 개선 사례

■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복지관 : 진입램프 개선



■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 진입램프 개선



6.2.3 UD 시범사업 - 관광 특성화 거리 조성

1) UD 관광 특성화 거리 시범사업 배경

- 관광도시 부산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 대표적 관광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특성화 거리 조성

관광환경
Tour
Environment



특별한 것의 최소화
일반적인 것의 최대화,
UD 관광환경

· 개인이 가진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며, 안전하게 관광 향유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총체

무장애관광
Barrier-free
Tour



무장애 관광길을
통한 부산만의
UD 관광벨트 구축

· 무장애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모두를 위한 관광, 포용 관광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동일

관광 향유권
Enjoy the
Sightseeing




장애유무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권 보장

· 누구나 관광지에서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UD 관광 특성화 거리 계획

2) UD 관광 특성화 거리 시범사업

위 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 사회적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행로를 지나 광안리 해변 가까이 가서 수변 공간의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UD 관광 특성화 거리 계획



대상지 현황

 <p>보행로 트렌치 구간 휠체어, 유아차, 구두 등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p>	 <p>바닥 방향 안내 블럭 멀리서 바라보는 인지성 및 가독성 저하</p>	 <p>보행로를 침범하는 가로수 보행로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로수 공간</p>
 <p>보행과 자전거의 경계 자전거, 보행자, 유아차 등이 섞이므로 위험함</p>	 <p>해변길 돌출 구조물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에게 방해 요인</p>	 <p>제한적인 해변 진입 공간 휠체어, 유아차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해변에 진입</p>

3) UD 관광 특성화 거리 시범사업 내용

■ 목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UD 관광 특성화 거리 구축

■ 기본방향

- 보행로에 있어서 휠체어, 유아차, 시각장애인이 보행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보행 공간 확보
- 사회적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행로를 지나 광안리 해변 바다 가까이 가서 수변공간의 관광 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UD 관광 특성화 거리 계획

■ 사업내용

① 보행로 트렌치 교체

- 바퀴나 구두가 빠지지 않는 그레이팅 커버로 교체



공공디자인 품목 중 그레이팅 사용



보도 패턴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레이팅

② 바닥 방향 안내블럭 정비

- 색상 차이를 이용한 인지성 강화



서울시 방향 안내 컬러 블럭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한 바닥 안내표시

③ 야간 보행로 경관 개선

- 야간시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접근이 쉽게 환경 조성



야간 시 방향 안내 사인물 인지성 높임



보행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바닥조명

④ 보행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색으로 표기하여 보행자와 분리하여 안전 유지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충돌 최소화



구분하기 쉬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⑤ 해변길 돌출 구조물 철거

-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를 통해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로 조성



조경 이외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구조물 철거로 보행이 자유로운 공간

⑥ 해변 진입을 위한 접근로 신설

- 누구나 쉬운 해변 접근을 위한 견고하고 안전한 목재 데크 접근로 설치



해변 접근 및 휴식이 용이한 접근로



해변 모래사장 진입이 쉬운 목재 데크

⑦ 누구나 편리한 관광안내소 구축

-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조작이 편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안내소 등 실내 키오스크 설치



편리한 관광 관련 자료 열람



편리한 관광 관련 자료 열람



교통약자 안내데스크 별도 설치

⑧ 무장애 공중화장실 개선

- 누구나 이용하는 다목적 화장실로 개선, 화장실 위치 안내 유도사인 설치



다목적 무장애 화장실 설치



픽토그램을 이용한 즉각적인 인지 가능

⑨ 보행자를 위한 고원식 교차로, 대각횡단보도

-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횡단보도 거리 축소, 보행 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대각횡단보도

⑩ 통합 스마트 횡단보도

- 기존 교통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용 음향송출로 사고위험 저감



야간 또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신호

4) UD 관광 특성화 거리 시범사업 전, 후 (예시)

■ 사업 전



■ 사업 후



· 대중교통 이용 후 보행로를 통해 광안리 해변 바다 가까이 가서 수변공간의 관광 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UD 관광 특성화 거리 구축

5) UD 관광 특성화 거리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 | | |
|---------------------|--------------------|
| ① 보행로 트렌치 교체 | ⑥ 해변 진입을 위한 접근로 신설 |
| ② 바닥 방향 안내블럭 정비 | ⑦ 누구나 편리한 관광안내소 구축 |
| ③ 야간 보행로 경관 개선 | ⑧ 무장애 공중화장실 개선 |
| ④ 보행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⑨ 고원식 교차로, 대각횡단보도 |
| ⑤ 해변길 돌출 구조물 철거 | ⑩ 통합 스마트 횡단보도 |

6.2.4 UD 시범사업 -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 조성

1)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 시범사업의 배경

- 부산의 관문이 되는 항만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부산의 관문인만큼 외국인, 외부 관광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정보체계 조성

사용자 중심 User-Centric



사용자 관점의
효율적인 접근
안내 정보 제공

-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고려가 필요한 수요자의 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인 접근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성 향상

접근성 향상 Accessibility improvements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지원

- 안내표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하여 공평한 접근성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

인지성 강화 Cognitive Enhancement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표기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이용자를 포용

-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최소 필요 정보와 최대 필요 정보로 구분하고 외국어 표기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안내 체계를 개선

2)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 시범사업

위 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고, 외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위한 UD 기반 안내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향상 극대화



대상지 현황

<p>외부 방향 안내 사인물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가독성이 떨어짐</p>	<p>외부 접근 시설 정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접근 시설에 대한 안내 정보 부족</p>	<p>외부 안내표지 인지성이 부족한 사인물로 대상 시설물에 관한 직관적인 설명이 떨어짐</p>
<p>2층 입국장 내부 통행로 방향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요소 부족</p>	<p>3층 출국장 대합실 출국 전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부족</p>	<p>안내소(Information) 안내소를 이용하기에 다양한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 부족</p>

3)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 시범사업 내용

■ 목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을 개선

■ 기본방향

- 해양 관련 시설(관문) 주변 접근로 및 내부공간에 픽토그램 및 외국어를 혼용 표기한 안내사인 및 유도사인 설치
-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및 외국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개발

■ 사업내용

① 외부 - 방향 안내 사인물 설치

- 다국어와 함께 인지하기 쉬운 픽토그램을 활용한 방향 안내 사인물



폴란드 코샬린 픽토그램 안내사인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안내사인

② 외부 - 주출입구 입구 사인 설치

- 부산의 관문만큼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인물 디자인 계획 수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문자를 활용한 사인물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한 입구 사인

③ 외부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광장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접근이 어려움
- 휠체어 리프트를 진입로 인근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환경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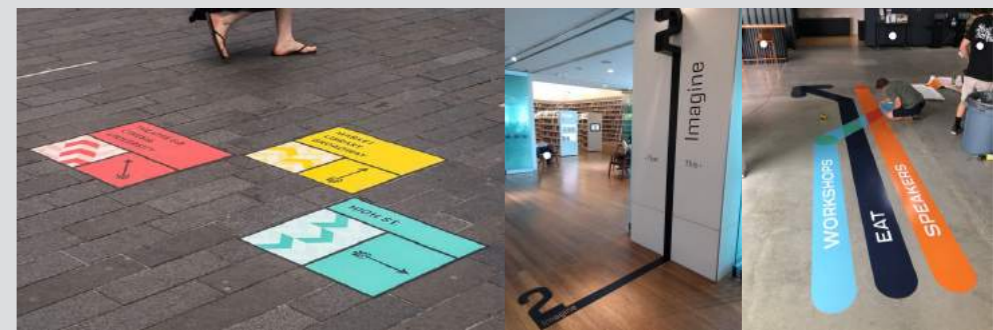


쇼핑몰 내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서울시 요양병원 내 휠체어 리프트

④ 내부 - 바닥 안내 그래픽 조성(웨이파인딩)

- 바닥에 방향을 표기한 안내사인물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바닥 방향 안내사인 + 웨이파인딩

라운지와 연결통로 적용 사례

⑤ 내부 - 방향 안내 사인물 설치

- 무질서한 방향 안내 사인물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재정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향 안내사인

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정보 사인물

4) 해양 관련 시설 접근환경 시범사업 전, 후 (예시)

■ 사업 전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기본적인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나, 다양한 여건의 사람들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선 신고대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사업 후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고, 외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위한 UD 기반 안내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향상 극대화

5) 해양(친수) 관련 시설 접근환경 개선 사례

■ 미국 시카고 리버워크 : 보행로 확장 및 보트 계류장 접근환경 개선



■ 경기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 층간 이동없는 출입국 수속 시스템 도입



7.1 결론

7.1.1 정책적 시사점

■ 현 시사점

- 각 자치단체별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각 자치단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UD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하고, 각 자치단체별 특징은 별도 연구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함
- 또한, 무장애 디자인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UD 매뉴얼을 구축해야 함
- 하지만 중앙정부의 추진정책에만 맞추어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등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지침으로 수용 가능성, 이해 가능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무장애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중앙정부차원
UD계획 부재

UD 매뉴얼
구축 필요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무장애 디자인
기반 계획 유지



■ 원칙

- 부산광역시는 지형적으로 산지 지형에 의한 산복도로, 수 많은 터널과 고가도로가 있고, 아름다운 해안지형, 다수의 해변, 항만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표 해양 친수 도시이며, 3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임
- 부산의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기반
환경조성

공간
환경조성

이동
환경조성

서비스
환경조성

■ 시사점 제시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정책은 공공환경에서 시작하여 민간영역의 생활환경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분야를 비롯하여 행정 담당자 및 교육, 부산시민의 의식계몽까지 포함하여 전개되어야 함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은 부산만의 특성인 다양한 지형적 조건과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디자인 정책이 되어야 함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추진기관 및 조직,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확산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산만의 정책화, 사업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함
-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부산시는 UD 기반조성을 잘 다지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중심 목표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이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UD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도록 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공디자인과

김봉철 국장
남건수 과장
이교재 팀장
천영남 주무관
이승경 주무관
최은영 주무관

자문위원 배기범 부산디자인진흥원 본부장
최민준 부산디자인진흥원 팀장
김유준 부산디자인진흥원 과장
이호승 경성대학교 교수
정원준 동명대학교 교수
송기연 (주)시프트디자인컨설팅 대표

수행기관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성기택 책임연구원
박정혁 연구원
엄상욱 연구원
김민서 연구원
조현량 보조연구원
정현주 보조연구원
미셸 보조연구원